

개역성경 분석

〈개역개정·표준새번역·공동번역 포함〉

성경은 단 두 종류뿐이다!!

당신의 성경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육체 밖에서 **욥기 19:26** 육체 안에서

(없음) **사도행전 8:37** (있음)

짐승의 혼 **전도서 3:21** 짐승의 영

삼위일체 삭제·변개 **요한일서 5:7-8** 삼위일체 하나님 있음

계명성 **이사야 14:12** 루시퍼

해골 **누가복음 23:33** 갈보리

당신의 성경, 어느 쪽인가?



그리스도
예수안에

개역성경분석

1. 성경 문제	-----	1
2. 우리말 성경 역사	-----	4
3. 두 종류의 성경 본문	-----	7
4. 웨스트코트와 호르트	-----	20
5. 개역성경분석	-----	29
6. 킹제임스 성경의 신학적 우수성	-----	79
7. 킹제임스 성경과 말씀 보존	-----	87
8. 결론	-----	90
9. 추천 참고 도서	-----	93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계22:18-19).



그리스도 예수안에

하나님의 말씀

나는 어젯밤 대장간 문 옆에서 잠시 멈추어 섰습니다.
그리고 모루가 울리는 소리를 들었죠.
그것은 마치 저녁 기도를 알리는 종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낡은 망치들이 보였습니다.
수 년 동안 두들긴 탓에 망가져 버린 낡은 망치들을.

그때 나는 물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모루를 사용하셨죠?”
“이 모든 망치들이 이렇게 망가지고 닳아 못쓰게 됐으니 말입니다.”
“오직 하나뿐이시오.” 대답하며 그는 반짝이는 눈동자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모루가 이 망치들을 다 망가뜨렸습니다.”
그때 난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모루와 같구나! 수세기 동안
회의와 의심의 망치질은 거세게 말씀의 모루를 내리쳐 왔지만,
두들기는 소리는 요란했지만 모루는 지금도 변함없이 건재하며
그 많던 망치들은 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구나!” 하고 말입니다.



제 1장

성경 문제

1885년 4월 5일 동방의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 왔다. 한국의 초기 그리스도인들도 역사상 다른 나라들에서 일어난 것과 마찬가지로 참되신 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큰 고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조선 왕조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선포하며 선한 싸움을 싸웠다.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필요하므로 1877년부터 로스 등을 필두로 하여 여러 외국인 선교사들에 의해 성경 번역 작업이 시작되었다. 그 결과 1911년에는 신구약성경인 성경전서가 출간되었고 그 뒤 1938년에 성경전서의 개정판인 성경개역이 출간되었으며 1961년도에는 성경개역의 개정판인 성경전서 개역한글판(이하 개역성경)이 출간되었다.

한국에서는 초기 장로교 선교사들의 집중적인 노력으로 장로교회가 가장 큰 그룹을 형성하였는데 장로교인들은 전통적으로 주일을 안식일로 여기면서 주일 성수나 금연/금주 같은 규칙을 강하게 주장해 왔고 특히 성경에 관한 한 아주 보수적인 믿음을 고수해 왔다. 그 결과 그들은 개역성경에 단 한 점의 실수도 없음을 성도들에게 주지시켜 왔고 따라서 어떤 이가 행8:37 같이 전체 구절이 삭제된 사례를 들며 그 이유를 묻거나 혹은 너무나 명백하게 번역이 잘못된 부분을¹⁾ 지적하면 그 일을 형제들 사이에 분열을 조장하는 것으로 여겨 왔다. 한 마디로 지난 수십 년 동안 개역성경에 대해서는 누구하나 제대로 입을 열어 그 문제점을 지적하려 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성도들의 믿음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성경의 보존과 번역에 대한 성도들의 이해가 부족하고 대부분의 성도들이 교회나 교단에게 맹목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이다.

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그나마 개역성경이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었으며 이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렸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을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로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사본에서 나와 프로테스탄트들의 교리와 실행에 문제를 안겨 준 성경, 많은 삭제 구절을 포함하고 있는 훼손된 성경, 문법 등과 같은 기본적인 것들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실한 성경을 최종 권위라고 주장하며 100여 년을 버텼으므로 이것으로 인해 신학, 교리, 실행 등의 문제가 매우 컸음도 부인할 수 없다.

킹제임스 성경 이슈

국내에서는 1611년에 영국에서 출간되어 영어의 발흥과 함께 전 세계적인 성경이 되고 모든 기독교 교리를 확립하며 수많은 신학 교재 및 일반 크리스천 교양서적의 근간이 되고 300여 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권위를 자랑하는 킹제임스 성경(*King James Bible*, KJB)이 단지 문헌을 통해 '제임스 왕이 제정한 성경' 즉 '흠정역 성경'으로 알려져 왔다. 그것은 영미 문학에 가장 큰 공헌을 끼치고²⁾ 문장이 수려하며 보수적인 성경 정도로만

1) 이것에 대한 예로는 창1:2의 '하나님의 신'(the God of God)을 들 수 있으며 이것은 원래 '하나님의 영'(the Spirit of God)이 되어야 한다.

2) 킹제임스 성경이 영어와 영미 문학에 미친 공헌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참고로 가장 최근에 나온 두 개의 문헌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것은 Benson Bobrick의 『*Wide As the Waters : The Story of the English Bible and the Revolution It Inspired*』(Simon & Schuster, April 11,

2 개역성경분석

인식되었고 그것을 소장하여 공부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래서 1980년대 후반까지는 개역성경과 킹제임스 성경 사이에 큰 차이점이 많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바로 그때에 성경대로 믿기를 원하는 성도들 가운데 몇 사람들이 주로 미국에서 출간된 문헌들을 통해서 킹제임스 성경과 신국제역(New International Version, NIV), 신미국표준역(New American Standard Bible, NASB) 같은 현대 역본들 사이에 엄청난 교리적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개역성경이나 공동번역 그리고 표준새번역 등의 한글 성경들을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한글 성경들도 다른 현대 영어 역본들과 내용 면에서 거의 동일함을 알게 되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학계나 관련 출판계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없었다.

실제로 미국 등의 영어권 국가에서 성경 논쟁이 일어난 것도 그리 오래 된 일이 아니다. 1969-78년에 NIV가 출간되기 전까지 전 세계 영어성경은 킹제임스 성경 하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1611년 이후로 약 400년 동안 킹제임스 성경은 전 세계의 유일무이한 '거룩한 성경'(Holy Bible)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1960-70년대 이후에 NIV, NASB, NKJV, Living Bible 등의 현대 역본들이 광고의 홍수 속에 우후죽순 쏟아져 나오면서 한결같이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하였고 이것들의 맹공에 맞서기 위해 급기야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NIV 등의 현대 역본들의 오류를 지적하고 반격에 나서기 시작했다.

1881년 영국에서 웨스트코트(B. F. Westcott)와 호르트(F. J. A. Hort)³⁾가 전통적인 프로테스탄트 공인본문(*Textus Receptus*, TR)을 대적하며 로마 카톨릭 천주교 사본에 근거한 영국개역성경(*English Revised Version*, ERV 혹은 짧게 RV)을 들고 나온 이래로 성경학자들 사이에서는 성경 본문 논쟁이 늘 있어 왔다. 그러나 미국에서 일반 성도들에게까지 성경 본문 논쟁이 확산된 것은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일이다. 한 마디로 미국의 성경 논쟁은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공격과 변호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

킹제임스 성경 논쟁은 마치 진화론 논쟁과 비슷하다. 다윈의 진화론이 등장했을 때 보수주의 학자들이나 성도들은 이에 대해 거의 신경을 쓰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지냈다. 그러다가 인본주의자들에 의한 맹공으로 인해 성경의 토대인 하나님의 특별 창조가 거의 무너질 지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성경 신자들이 창조과학회 등의 사역을 통해 진실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 진화론은 이미 온 세상에 마치 과학처럼 굳건하게 자리를 잡았다. 이와 마찬가지로 NIV 등의 현대 역본들이 나올 때에 미국에서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은 이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성경 문제로 인해 교회가 갈리고 교리의 문제가 발생하자 적극적으로 이에 대항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지금은 미국의 웬만한 크리스천 독자라면 성경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많은 유학생들이 미국에 가서 신학 공부를 했지만 이 같은 성경 본문 문제를 접할 기회는 거의 갖지 못하였다. 그들 역시 필자와 마찬가지로 여러 역본을 대하면서 본문은 같은데 단지 번역이 다를 뿐이라고 피상적으로 생각했음에 틀림이 없다. 한국 교회의 특성상

2001)이다. 이 책은 위클리프로부터 시작되는 영어 성경의 역사를 잘 보여 주며 특히 킹제임스 성경의 영향에 대해 잘 설명한다. 둘째 것은 Alistair McGrath의 「*In the Beginning : The Story of the King James Bible and How It Changed a Nation, a Language, and a Culture*」(Anchor, February 19, 2002)이다. 흥미 있는 것은 이 책의 저자가 NIV의 편집자 중 하나라는 점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킹제임스 성경이 미국과 미국말과 문화에 미친 영향을 보여 주고 있다. 이 두 책 모두 계속 출판사가 출간한 것이므로 읽을 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제공하므로 가치가 있다. 이 두 책은 모두 www.amazon.com에서 구할 수 있다.

3) 영국 성공회 학자들인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킹제임스 성경을 대적하는 영국개역성경을 처음으로 출간한 장본인들이다. 이들은 성경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었으며 이들이 로마 카톨릭 소수 사본을 근거로 만든 '수정 그리스어 본문'(Revised Greek text) 혹은 '비평본문'(Critical text)은 1881년 이후로 출간된 대부분의 현대 역본들의 본문이 되고 있다. 4장은 집중적으로 그들의 사상에 대해 다룬다.

유학생이라면 앞으로의 사역을 위해 주로 장로교와 감리교 신학교를 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주지하는 대로 미국에서는 장로교와 감리교가 가장 인본적이므로 이런 신학교에서는 이미 현대 역본만을 사용하거나 혹은 현대 역본의 기초가 된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그리스어 본문을 귀중히 여기므로 이런 데서 공부하는 경우 성경 문제 자체를 살펴볼 기회를 갖기 어렵다. 여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 미국에서는 침례교회가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이런 교회들에서는 어김없이 킹제임스 성경만을 사용해 왔다. 따라서 성경 본문 논쟁도 실제로 침례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침례교회의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의 장로교, 감리교 등은 성경 본문 문제 등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다. 따라서 대부분의 한국 유학생이 침례교 신학교에 대해 알지 못하고 그런 학교에 진학하지 않으므로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왔어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다.

한국에서도 뜻있는 성도들이 개역성경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던 차에 미국의 자료를 통해 킹제임스 성경의 우수성을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리려 노력했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마귀의 계략에 넘어간 극단주의자들이 등장하여 “개역성경은 사탄 성경이다.”, “개역성경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야말로 한국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신약교회이다.” 등과 같은 비상식적이고도 비논리적인 발언을 하며 안하무인격의 행동을 함으로써 킹제임스 성경의 명성과 권위는 하루아침에 땅에 곤두박질치고 말았다.

한편 이런 현실과 성경 문제의 핵심이 성경 본문에 있음을 인식한 성경 신자들이 1990년대 초반부터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성경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의 모든 단어를 보존해 주심을 확고히 믿는 가운데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말로 바르게 번역해야 한다는 책임 의식과 부담을 갖고 차근차근 일을 수행하여 2000년 8월에 ‘킹제임스 흠정역’이라는 우리말 성경을 펴냈고 꾸준히 교정 작업을 수행했다.

성경 문제의 핵심

어떤 제품을 만들 때 그것을 만드는 사람과 원료에 의해 최종 산물의 질이 결정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이 같은 원리는 성경에도 그대로 적용되며 이 경우에는 번역의 대본으로 쓰인 친구약 본문과 성경 번역자들의 사상 및 문화적 배경이 최종 산물 즉 번역된 성경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개역성경과 공동번역 그리고 표준새번역 등 대한성서공회에서 출간한 성경들 밖에 없었으므로 과연 그런 역본들이 바른지 그렇지 또 그러다면 어느 부분이 그렇지 비교/검토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역본들과 뿌리가 다른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그리스도 예수안에, www.KeepBible.com)이 출간 되었으므로 문제가 되는 점들을 하나하나 비교하고 그 결과와 원인을 검토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책에서는 번역의 핵심 요소들이 한국의 독보적 성경으로 자리를 굳힌 개역성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킹제임스 성경과 개역성경을 비교/분석하려 한다. 이번의 분석을 통해서 한국의 성도들이 개역성경을 비롯한 기존의 한글 성경들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간에 본문 및 교리적 차이가 심각함을 발견하고 과감하게 로마 카톨릭 교회의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사본에서 나온 성경들을 버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목숨을 걸고 보존해 준 성경, 로마 카톨릭 교회의 허구와 미신을 와해시킨 루터와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의 성경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끝으로 저자는 개역성경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혼의 안식과 위로를 주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5장의 개역성경분석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개역성경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바른 것을 제시해야 하므로 그것의 좋지 않은 면을 많이 부각시킨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부디 양식 있는 독자께서 이 점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달고 선한 말씀들로 은혜 가운데 빛을 주실 줄 확신하다.

제 2장

우리말 성경 역사

우리말 성경의 역사는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다. 공식적으로는 언더우드(H. R. Underwood)와 아펜젤러(H. G. Appenzeller)가 한국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첫 선교사들로 알려져 있지만 처음에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은 스코틀랜드의 연합장로교회 선교사로 중국에 파송된 로스(John Ross)로 알려져 있다.⁴⁾ 그는 중국어 성경을 들고 1874년과 1876년에 한중 국경 지대에 와서 한국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는 한국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한 지 11년 뒤인 1887년에 신약성경을 우리말로 출간하였다. 로스가 스코틀랜드에 보낸 선교 보고에 따르면 우리말 성경 번역을 위해 그가 사용한 본문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사본에서 나온 영국개역성경(ERV)과 중국어 성경이었다. 그는 또한 번역을 위해 형식적, 문자적 일치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뜻만 통하면 된다는 동적 일치 기법을 사용하였다. 이 사실은 그가 1877년에 만주에서 한국어로 성경을 출간하기 위해 발간한 「조선어 문법」(*Corean Primer*)이라는 소책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먼저 한국인 번역자가 중국의 한문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다.
- (2) 그 원고를 그리스어 신약성경 및 영어성경⁵⁾과 대조해서 수정한다.
- (3) 그리스어 성구사전과 주석을 참조하여 어휘의 통일을 기한다.
- (4) 문자 그대로의 축자적 번역보다는 의미에 유의하고 조선어의 관용구를 그대로 살린다.⁶⁾

한편 1882년에 이수정은 일본에서 역시 중국어 성경을 사용하여 신약성경의 일부를 번역하였으며 한국 프로테스탄트교의 첫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는 인천에 상륙하면서 그가 번역한 마가복음을 가지고 들어왔다.

〈개역성경〉

국내에서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들어온 지 8년 뒤인 1893년에 미국성경협회의 지원을 받아 주로 장로교인들과 감리교인들로 구성된 성경실행위원회와 성경번역자회가 설립되었고 이 두 기구의 주도 하에 1906년에 구약성경이 출간되었으며 신구약을 다 담고 있는 한국어 성경(구역)은 1911년 3월에 신구약 3권으로 출간되었다. 두 선교사를 중심으로 한국의 교계 지도자들이 함께 번역한 이 성경은 최초의 공식적인 한글 성경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이 구역 성경 역시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수정 그리스어 본문에 근거한 네슬레의 25판과 영국의 영국개역성경(ERV)과 미국의 미국표준역(*American Standard Version*, ASV)을 본문으로 채택하였다.

구역 성경의 구약은 영국개역성경의 미국 판인 미국표준역을 가장 중요한 원전 중 하나로 사용하였으며 특별히 미국표준역의 영향을 받아 히브리어 사자음 문자 'YHWH'를 '주'(LORD)로 번역하지 않고 음역하여 '여호와'로 표기했다.⁷⁾ 사실 미국표준역과 여호와의 증인들이 사용하는 신세계역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성경은 이 신성한 '사자음 문자'를 '주'

4) 나채운, 우리말 성경 연구, 기독교문사, 1990, p.36.

5) 그들이 사용한 영어 성경은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만든 영국개역성경(ERV)이었다(나채운, p.37 주석).

6) 나채운, p.37.

즉 'LORD'로 번역했다. 이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언급할 것이다.

한편 1938년에는 구역 성경을 개정한 성경 개역판이 출간되었다. 케이블(E. M. Cable), 스토크스(M. B. Stokes) 등의 미국 사람들과 남궁혁, 김인준 등의 한국 사람들이 개정에 참가하였으나 이번에도 여전히 오리겐의 70인역, 네슬레 25판, 영국개역성경, 미국표준역을 중심으로 개정이 이루어졌고 필요한 경우 중국어 성경과 일본어 성경 등도 참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뒤 이 성경은 철자 수정과 얼마간의 본문 수정을 거쳐 1961년도에 '성경전서 한글개역판'으로 고정되었고 바로 이 성경이 우리나라의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가장 많이 애독하고 애용하며 대부분의 성도들이 단 하나의 오류도 없다고 믿고 있는 개역성경이다.⁸⁾

간단하게 개역성경의 역사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개역성경이 중국어 성경을 근간으로 만들어졌다는 점과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영향을 받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전통 그리스어 공인본문'이 아닌 '수정 그리스어 본문' 혹은 '비평본문'(Critical text)을 중심으로 하고 거기서 파생된 영국개역성경과 미국표준역을 번역의 대본으로 삼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나채운은 자신의 저서에서 중국 역본들도 킹제임스 성경이 아닌 영국개역성경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밝힌다.⁹⁾

개역성경은 문장이 간결하고 우아하고 웅장하여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마치 영어권의 킹제임스 성경 같이 한국의 독보적인 성경으로 자리를 굳혔다. 그러나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는 달리 개역성경 문장의 간결성 등은 본문의 정확성을 무시하고 한자 숙어나 한국어 용례 등을 사용하고 많은 단어를 삭제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자체에 한계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성경 번역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본문 선택과 번역자들의 사상에 기초한 용어 선택을 살펴보면 개역성경이 기독교 교리와 신학 및 믿음의 실행 등에 큰 폐해를 끼쳤음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어찌되었든지 개역성경은 보통 사람들의 감정과 문화를 잘 반영하였으며 아름다운 문체와 운율 등을 통해 읽는 이에게 감동을 주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회심하고 구원의 감격을 맛보았으므로 이 성경이 우리 민족에게 남긴 자취는 영원토록 기억될 것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결코 개역성경이 전체적으로 다 잘못되었다고 주장하지 않으며 다만 개역성경의 번역 대본으로 선정된 천주교 편향적인 본문과 번역자들의 이교도/샤머니즘 사상으로 인한 번역상의 문제와 이로 인한 교리의 부패를 지적하려 할 뿐이다.

〈표준새번역〉

개역성경이 확고하게 자리를 굳히는 동안 대한성서공회는 새로운 세대를 겨냥한 새로운 번역의 필요를 느꼈다. 또 동시에 외국인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한국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번역이 있어서 외국인 선교사들의 힘으로 거의 이루어진 개역성경을 대체시켜야겠다는 생각이 힘을 얻게 되었다. 이에 대한성서공회는 외국에서 공부한 국내 학자들이 이런 작업을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고 1983년에 번역 작업을 시작하여 표준새번역이라는 새 역본을 발간하였다. 표준새번역은 연합성서공회가 1983년에 발행한 그리스어 신약성경 3판과 키텔(R. Kittel)이 수정한 '히브리어 구약성경'(Biblia Hebraica)과 거의 유사한 '슈투트가르트 비블리아 헤브라이카'(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1967/1977, BHS)를 번역의 원전으로 삼아 만들어졌다.¹⁰⁾ 표준새번역 역시 개역성경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7) 나채운, p.50.

8) 나채운, p.57.

9) 나채운, p.50.

10) 대한성서공회, 표준새번역 서문, 1993. 나채운 역시 자신의 저서에서 이것을 확증해 주고 있다(우리말

그리스어 본문과 히브리어 본문을 사용했으므로 문체만 다를 뿐 그 내용은 거의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동번역〉

1968년에 대한성서공회는 프로테스탄트 교회와 카톨릭 교회의 연합 작품인 공동번역을 만들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것은 사실 1960년대에 이루어진 제2차 바티칸 공회의 종교일치 운동(Ecumenism)의 사상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¹¹⁾ 1962년에 미국성서공회와 영국성서공회의 니다(E. A. Nida)와 브래드록(W. J. Bradnock)이 한국을 방문해서 새로운 번역 원칙을 제시하였다.¹²⁾ 그들은 ‘형식적 일치’보다는 ‘동적 일치’ 번역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공동번역 위원회는 이런 원칙을 수용했다.¹³⁾ 공동번역의 구약은 1937년도에 발행된 키틀의 Biblia Hebraica에서 번역되었으며 신약은 연합성서공회가 1966년에 발간한 그리스어 신약성경 1판에서 번역되었다.¹⁴⁾ 이렇게 출간된 공동번역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프로테스탄트와 카톨릭 교회가 연합해서 만든 성경 중 둘째 것이다. 또한 이것은 한국에서 발행된 최초의 의역 성경(Paraphrased Bible)이며 프로테스탄트 판과 카톨릭 판이 출간되었는데 카톨릭 판에는 외경도 정경으로 들어가 있다.¹⁵⁾

성경 연구, 기독교문사 1990, p.460.).

11) 나채운, p.72.

12) 나채운, p.72.

13) 성경 번역에서 ‘형식적 일치’란 본문의 단어 하나 하나를 수용 언어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그대로 일치하게 번역하는 것으로 이렇게 번역된 대표적인 성경으로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들 수 있다. 반면에 ‘동적 일치’란 단어 단어를 신경을 쓰기보다는 사상이나 뜻이 전달되도록 번역하는 것이며 이렇게 번역된 대표적인 성경으로는 신국제역(NIV)을 들 수 있다. 다음은 구체적으로 이런 번역의 원칙이 어떤 차이를 가져오는지 보여 준다.

“마가복음 14장 5절에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옥합을 깨뜨려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 그 향유의 가치를 헬라어 원문에서는 300 데나리온이라고 했는데 NIV에서는 1년 분 봉급이라고 번역했다. 그러면 NIV의 번역을 오역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필자는 이 부분의 NIV 번역은 너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면 1년 동안에 안식일과 절기를 빼면 300 데나리온 정도 번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렇다면 NIV의 번역은 현대인들에게 훨씬 더 그 의미가 분명하게 전달된다고 할 수 있다.”(장두만, 묵화와 신학, 1998년 6월, 7월)

이런 주장대로라면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 데나리온, 에바, 큐빗 등을 모두 ‘1년 치 봉급’, ‘10坪’, ‘세 바구니’, ‘50센티미터’ 등으로 바꾸어야 하지 않겠는가? 왜 이 부분만 ‘1년 치 봉급’으로 해야 한단 말인가? 과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정할 권한과 그에 필요한 영감을 그에게 주었는가?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단어, 단어를 영감을 불어넣으시고(즉자 영감) 단어, 단어를 보존하시며 단지 뜻만을 보존하시지는 않는다. 성경을 번역할 때 300 데나리온이라 두고 그것이 대략 1년 치 봉급이라고 풀어 주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래서 목사와 교사가 필요한 것 아닌가? 성경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신 단어 단어를 그대로 유지한 가운데 독자들이 그 안에서 뜻과 사상을 찾아야 한다. 성경은 값싼 소설책이 아니며 초등학교 학생들의 만화책이 아니다. 이런 책은 한 번 읽고 나면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신비를 간직한 책이므로 계속해서 읽어도 질리지 않는다. 저자는 결코 어려운 단어를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성경이 뜻이나 사상만을 전달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God's word)으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단어 단어를 보존하신다!

14) 대한성서공회, 공동번역서문, 1977.

15) 나채운, p.75. 나채운은 또한 지난 200년간 로마 카톨릭 교회가 한국어 성경을 발간한 적이 없음을 밝히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 카톨릭 교회의 성경관이 어떠한지 금방 알 수 있다. “그러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롬10:17).

제 3장

두 종류의 성경 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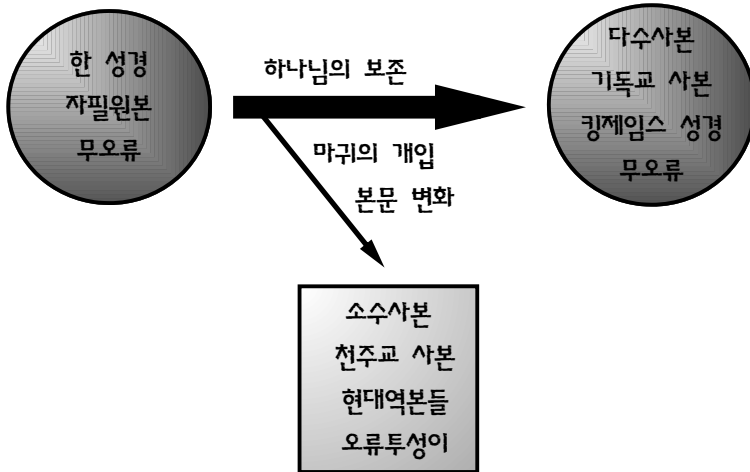
하나님은 처음에 자신의 거룩한 사람들이 직접 쓴 자필 원본으로 성경 기록들을 주셨다(벧후 1:21). 그 이후에는 다른 사람들이 그 자필 원본에서 필사하여 사본들을 만들었으며 처음의 자필 원본과 그 후의 많은 사본들은 수명을 다한 뒤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성경을 번역하려면 번역의 대본인 ‘본문’(Text)이 필요한데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단어들)을 담은 사본이 하나도 없으므로 누군가가 현존하는 사본들을 편집해서 ‘본문’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막상 ‘본문’을 가지고 실제로 성경을 번역하려다 보면 본문이 한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라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따라서 누가 어떤 본문을 선택해서 어떻게 번역하느냐에 따라 완성된 성경의 내용이 크게 달라진다. 다음의 표는 본문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많은 사례들 중의 일부를 보여 준다.

〈내용이 전혀 다른 성경 구절들〉

개역/개정, NIV 등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19:26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악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시10:4-5	[사악한 자]의 길들은 항상 고통을 주고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잠26:22	소문을 퍼뜨리는 자의 말들은 상처들과 같아서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전1:14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주께서...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사9:3	주께서...기쁨을 더하지는 아니하셨으나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호10:1	이스라엘은 텅 빈 포도나무요
삼일마다 너희 십일조를 드리며	암4:4	삼 년 뒤에 너희 십일조를 가져오고
없음	막 9 : 4 4 , 46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 하느니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골2:18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보지 아니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
갓난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벧전2:2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여 함이라
없음(6절을 둘로 나누어 6절 후반부를 7절에 넣었음)	요일5:7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 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마귀의 개입

사본의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구약성경 본문이 한 종류가 아니고 두 종류라는 데 동의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여기에 바로 마귀의 개입이 있다. 첫 사람 아담을 속여 사람을 죄 가운데로 몰아넣은 장본인이 사람의 구원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냥 둘 리가 없다. 분명히 처음에 하나님은 순수한 말씀들을 주셨으나 마귀는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인본주의 학자들을 동원하여 하나님의 말씀들을 변개시켜 왔으며 그 결과 두 종류의 본문이 존재하게 되었다. 마귀가 늘 하나님을 모방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노력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이런 일이 상상 속에서 일어나는 허구가 아니라 실제 역사에서 일어난 사실임을 누구나 쉽게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사 14:12-14; 고후 11:13-15). 다음의 그림은 이 일을 요약해서 보여 준다.



〈성경 본문 전달 과정 요약〉

기독교와 천주교의 이해

예수 그리스도의 '내 교회'(마 16:18)는 유대교의 요람에서 탄생되었다. 거룩한 사도들과 성도들로 구성된 그분의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순수한 말씀들을 지켜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마귀는 복음의 초기에 영지주의 같은 이단들을 설립하여 말씀을 변개시켰고 드디어 313년에는 콘스탄틴(콘스탄티누스)의 밀라노 칙령을 통해 소위 '기독교 공인'이라는 역사를 이루었다. 그 뒤부터 정치와 종교가 혼합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주님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이교도들의 각종 거짓 교리를 도입하여 순수한 기독교를 변개시켰다. 그래서 20세기의 유명한 설교자 로이즈 존스는 천주교를 가리켜 '마귀의 걸작품'이라고 불렀다.¹⁶⁾ 이처럼 천주교회가 1000년 이상 온 세상을 암흑 속에 가두었으나 마침내 때가 왔을 때에 하나님은 종교 개혁을 통해 천주교회에 대항하는 프로테스탄트들을 이 세상에 세우시고 그들이 기독교로 복귀하게 하셨다. 이때에 루터와 칼빈 같은 종교 개혁자들은 그때까지 로마 카톨릭 교회가

16)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출판사 그리스도 예수안에).

지켜 온 라틴 별게이트라는 성경이 심히 부패되었다는 사실과 바른 복음 선포를 위해 바른 성경이 필요함을 절실히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곧바로 로마 카톨릭 교회 이외의 순수한 성도들이 전 유럽과 아프리카와 소아시아와 팔레스타인 등의 지역에서 가장 널리 보편적으로 사용해 온 공인(共認) 본문 혹은 수용(受容) 본문을 이용하여 성경을 번역하였다. 이렇게 바른 본문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은 인쇄술에 힘입어 온 세상을 휩쓸었고 로마 카톨릭주의의 압제 하에서 신음하던 일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므로 성경 문제를 다루면서 우리는 성경의 번역과 보급을 그토록 반대하던 로마 카톨릭 교회와 일반 성도들의 손에 성경을 쥐어 주려고 목숨까지 내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가 서로 다른 성경 본문을 가지고 있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 마디로 성경 본문들과 거기서 나온 역본들의 차이는 천주교와 기독교가 하늘과 땅처럼 다른 것같이 엄청나게 다르다. 그러므로 이 책은 성경의 역사와 주요 교리 등을 다루면서 성경의 변경이 어떻게 교리를 바꾸어 천주교회의 입지를 강화시키는지 구체적으로 보여 줄 것이다.

구약성경본문

구약성경의 경우 20세기 초까지는 유대인들이 순수하게 보존한 전통 마소라 본문(*Ben Chayyim Masoretic Text*)이 거의 모든 성경 번역의 대본으로 사용되어 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특권 의식을 가진 유대인 마소라들이 심혈을 기울여 본문을 보존했기 때문에 이 본문에 대한 비판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1937년에 히틀러 수하에서 일하던 키텔(R. Kittel)이 전통 마소라 본문을 페이지마다 평균 15-20군데씩 수정하여 비블리아 헤브라이카(*Biblia Hebraica*)를 편찬했는데 이 본문은 후에 1967/1977년판 슈투트가르트 비블리아 헤브라이카(BHS)로 개정 출간되었다. 개역성경, 신국제역(NIV), 신미국표준역(NASB) 등 모든 현대 역본의 구약은 이 BHS를 기초로 하여 번역되었으므로 그 안에는 이러한 개정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다시 말해 마소라 본문이라고 해서 다 같지 않고 어떤 마소라 본문을 대본으로 사용했느냐에 따라 구약의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다.

신약성경본문

신약성경의 경우 로마 카톨릭 교회를 제외한 거의 모든 신약 교회가 지난 1900 년간 그리스어 공인본문(*Textus Receptus*, TR 혹은 수용본문)을 보편적으로 사용해 왔다. 이 본문은 다수사본에 근거했기 때문에 '다수본문'이라고도 하며 가장 널리 사용되었기에 '보편적 본문'이라고도 하고 천주교회의 서방본문과 대비되어 '비잔틴(동방)본문'이라고 하며 루터와 칼빈 등 개혁자들이 한결같이 이 본문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종교개혁본문'이라고도 한다. 한편 로마 카톨릭 교회는 '소수본문'만을 고수해 오고 있는데 '소수본문'이란 말이 의미하듯이 이 본문을 지지하는 사본은 몇 개 되지 않는다(전체 사본의 1% 정도). 이 사본들 중 가장 유명한 것으로는 로마 교황청 도서관에 전시용으로 보존되어 온 '바티칸 사본'과 시나이 산에 있는 그리스 정교회 수도원의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된 '시나이 사본'이 있는데 사실 이것들은 변질된 내용 때문에 대다수 성도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던 것들이었다. 그런데 1881년에 영국의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이 두 사본이 가장 권위가 있다고 주장하며 공인본문을 무려 5,604 군데나 수정하여 소위 '수정 그리스어 본문'이라는 개략된 본문을 만들었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공인본문에서 삭제하거나 추가하거나 변경한 단어는 무려 9,970 개나 되며 이것은 신약성경본문에 나오는 140,521 개 단어의 7%나 되는 양이다. 1881년의 웨스트코트와 호르트 이후에 1898년에는 네슬레가 티센도르프의 8판과 위마우스의 3판과 함께 신약성경 본문을 편집하여 '네슬레의 그리스어 신약성경'이라는 본문을 만들었다.

세 도시 이야기¹⁷⁾

성경 본문/사본 역사에 대해 연구해 본 사람이라면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성경 본문이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는 사실을 금방 인정할 것이고 시리아의 안디옥과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가 이런 본문들의 출처임을 또한 쉽게 알게 될 것이다. 또한 이집트 본문을 채택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영향이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안디옥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성경의 보존과 전달 과정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보존의 원리

세 도시 이야기를 떠나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두 가지 성경의 원리를 이해해야 한다. 첫째 원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들’ 즉 ‘단어들’(words)¹⁸⁾을 영원토록 보존하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이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이 말씀들을 주시면서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배우고 거기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확인된다. 하나님은 현대학자들의 주장대로 단지 사상만을 보존해 주시지 않고 단어 단어를 보존해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소유하지 못하는 불상사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다음의 말씀들은 분명하게 이것을 보여 준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흠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시 12:6-7).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마24:35).

이 말씀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 주며 동시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도 순수하게 보존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순수하게 보존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그것을 찾아서 믿고 순종하면 되며 결코 그것을 수정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부패의 원리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둘째 원리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 말씀들을 변개시키거나 왜곡시키려는 자들이 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고후2:17)

둘째 원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의해 부패된 사본들과 역본들이 역사를 통해 존재해 왔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우리 손에 있는 역본들이 다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은 이 같은 성경 부패의 원리를 모르거나 알면서도 고의로 부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것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한두 사람이 몰래 행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직업으로 삼아 하나의 사업을 하는

17) 세 도시 이야기는 리건(David F. Reagan)이 지은 소설자 「A Tale of Three Cities」를 중심으로 편집한 것이다.

18) 우리말 성경은 ‘words’를 주로 ‘말씀들’ 혹은 ‘말들’로 번역했으나 원래 이것은 ‘글자로 구성된 단어들’을 뜻한다. 하나님은 성경의 사상들을 보존하겠다고 하시지 않고 자신의 말들 즉 단어들을 보존하겠다고 하셨다. 단어들이 보존되어야 거기서 하나님의 생각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성경책과 이 책자에서 ‘말씀들’ 혹은 ‘말들’이 언급되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것들은 모두 ‘단어들’을 뜻한다.

것이 되고 말았다.

하나님의 말씀의 독특함

이 두 가지 원리를 합쳐 보면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고 있으며 마귀와 그의 천사들 역시 갖은 노력을 기울여 이 말씀을 변개시키려고 하고 있으므로 성경이라는 책을 단지 하나의 고대 문서를 대하는 것처럼 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호머(호메로스)의 일리아드의 본문을 비평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평하는 것은 결코 바르지 못한 일이다. 이것은 또한 그런 고대 문헌을 비평하는 장치들이 성경에는 적용될 수 없음을 보여 준다. 호머의 책에 있는 실수들은 별 문제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 불리는 책 안에 들어 있는 실수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갈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권능과 사탄의 부패시키려는 영향을 둘 다 고려하지 않는다면 많은 사본들의 증거가 지금 우리 사회의 정치인들만큼이나 부정직한 것이 되고 만다.

세 도시의 개관

성경의 보존과 부패 원리에 대해 공부했으므로 이제 이 문제의 중심이 되는 세 도시 이야기를 하려 한다. 이 세 도시 이야기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존재하던 로마 제국에서 시작된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이 세 도시는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도시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곳이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도시들이 성경의 보존과 변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더 큰 관심사라 할 수 있다.

로마는 로마 제국의 수도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였으며 한 마디로 전 세계를 지배하던 도시였다.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로마는 교통 및 상업의 중심지요 권력의 중심지로 그 영향력이 막강한 도시였다. 로마는 특별히 양식과 법률과 전통 등을 강조했다. 전통을 통해서 로마는 성경에 무엇인가를 첨가하는 작업을 수행했다. 예를 들어 로마는 성경에 외경이라는 고문서를 첨가했다. 이탈리아에서부터 시작해서 로마는 남유럽과 북아프리카 사람들의 신학 및 영적 생활을 지배하였다.

한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는 그 당시 세상에서 둘째로 큰 도시였으며 과학과 교육과 학자들의 중심지였다. 그래서 소위 지성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여기로 몰려들었다. 필로와 오리겐 같은 학자들의 고향인 알렉산드리아는 그 주변의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지역 사람들의 신학과 영적 생활을 지배하였다. 현대 성경학자들이 행하는 것처럼 알렉산드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인가를 삭제하는 일을 행하였다. 여기서 나온 알렉산드리아 본문이 바로 현대 학자들이 만든 새로운 역본들의 기초가 되었다.

그 당시 세상에서 셋째로 큰 도시는 시리아의 안디옥이었다. 동쪽에 위치한 안디옥은 초기 사도들의 활동지였던 시리아와 소아시아 지방 사람들의 신학과 영적 생활을 지배하였다. 안디옥은 대규모 도시였고 사치품으로도 유명했지만 영적인 측면에서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원칙을 고수한 곳이다. 현대 학자들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리아 본문은 킹제임스 성경과 모든 종교 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친 성경들의 근간이 되었다.

이 세 도시는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라는 세 대륙의 중요한 세 국가의 중심지였다. 또한 이 세 도시는 야벳, 함 그리고 셈의 후예들로 구성된 세 인종을 대표하기도 했다. 도대체 이 도시들이 왜 중요한가? 도대체 이 도시들이 성경을 전수하는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제부터 우리는 좀 더 시간을 내서 이런 질문들에 대해 답하려고 한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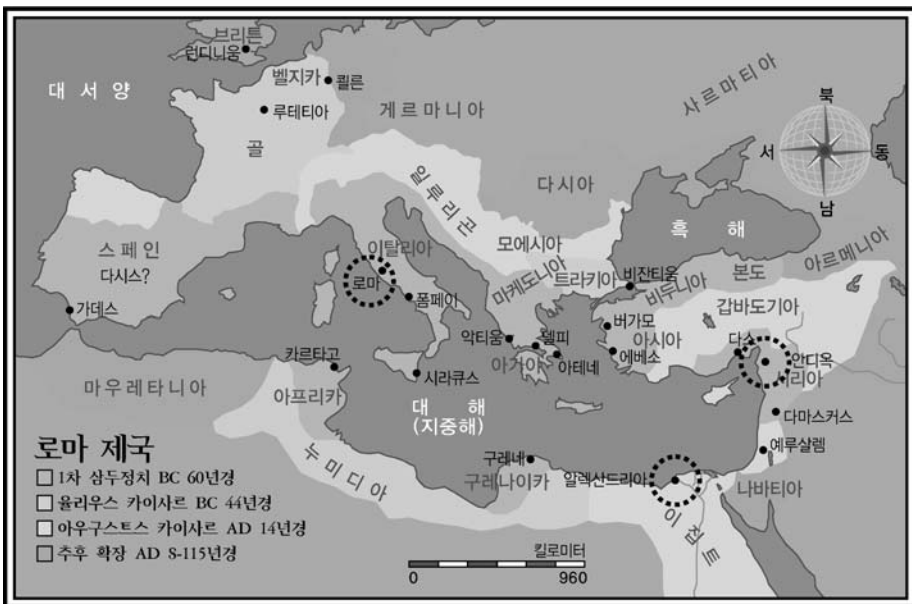
을 기억해야 하며 동시에 마귀가 그 말씀을 부패시키려 한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비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며 보존된 그 말씀을 찾아서 읽고 연구하고 외우고 거기 순종하고 가르치고 선포하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것을 위해 순교할 각오도 가져야 한다.

알렉산드리아

아프리카 대륙의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알렉산드리아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 있는 도시이다. 이 항구 도시는 성경에서 '함의 땅'으로 알려진 땅에 있다(시105:23). 주전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설립한 이 도시는 점점 더 커지면서 고대 세계의 중심 도시가 되었고 주전 1세기경에는 인구가 거의 백만 명이나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를 제외하고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도시로 군림하게 되었다.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 치하에서 알렉산드리아는 전 세계 문화와 과학의 중심지로 발전하였고 그 안의 대학은 그 당시 철학과 사상계를 지배하였다. 저 유명한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오십만 권 이상의 장서를 소장했고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 수학, 천문학, 시, 의학 등을 열심히 공부했다. 비록 이집트에 위치하긴 했어도 알렉산드리아는 사상과 근간 철학을 살펴볼 때 그리스 사상과 철학을 받아들여 발전시킨 그리스의 도시였다.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이 개방을 표명했으므로 온 세상의 종교와 철학 사상들이 이곳에서 집대성되었다.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제가 영토를 확장하고 죽은 뒤에 그의 왕국은 시리아의 셀류시드 왕국과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국으로 나뉘게 되었다. 그 결과 이집트와 시리아 사이에 끼여 있던 팔레스타인 지역은 외세의 각축장이 되었고 특히 시리아의 안티오크스 대왕 통치 때에는 유대교 탄압 등으로 인해 많은 유대인들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내려갔다.



〈성경과 관련된 로마 제국의 세 도시〉

거기서 이들은 곧바로 유대교와 그리스의 인본주의를 결합하여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영적으로 신비적으로 해석하며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뜯어고치는 이른바 알렉산드리아 학파를 만들어냈다. 이런 일을 한 사람들 중에서 구체적으로 필로라는 유대인을 들 수 있는데 그는 유대주의와 플라톤주의를 혼합하여 구약성경을 모두 비유로 해석하는 학문 체계를 설립하여 비유 해석의 아버지가 되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

사실 필로는 유대 신학자라기보다는 그리스 철학자라 하는 편이 더 낫다. 그러므로 사실 그가 영향을 미친 부분은 유대교 관련 영역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그리스 철학을 세우기 위해 단순히 구약성경을 이용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원하는 사상이나 철학에 도달하기 위해 자신이 기초를 세운 ‘영적 비유 해석’¹⁹⁾을 이용하여 구약성경을 왜곡시켰다. 그는 숨겨진 의미 혹은 영적 비유적 의미가 실제의 문자적 의미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의 이런 ‘영적 성경 해석 방법’은 주후 2-3세기의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사상에 큰 영향을 미쳤다.

알렉산드리아 신학교는 주후 2세기에 판테누스라는 사람에 의해 알렉산드리아에 설립되었으며 그 뒤에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로 이어졌다. 이 학파는 그리스 철학과 성경의 비유 해석을 으뜸으로 여겼고 그것만을 강조했다. 이 학파에서 학문과 철학과 업적 등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오리겐이었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같은 세속 문헌도 다음과 같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에 대해 말하고 있다.

고도의 학문 연구를 위해 2세기 중엽 알렉산드리아에 세워진 최초의 그리스도교 학파. 최초의 유명한 지도자들 - 판테누스, 클레멘트, 오리게네스 - 아래서 이 학파는 알레고리적 성서해석 방법의 중심지가 되었고, 그리스 문화와 그리스도교 신앙을 절충하는 사상을 따랐으며, 교리의 변화가 심한 시기에 이단적인 주장들에 맞서 정통 그리스도교 가르침을 확립하려고 애썼다. 알렉산드리아 학파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한 학파는 안디옥 학파로서 이 학파는 성서의 문자적 해석을 주장했다.

오리겐의 영향

대부분의 기독교 역사책을 보면 오리겐이 훌륭한 사람으로 미화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천재성과 종교적 열심에 대해 논하려 하지 아니하며 단지 그의 성경 지식과 해석 방법 그리고 그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오리겐은 의복 한 벌만 소유했으며 신발도 없었고 고기도 거의 먹지 않았으며 포도주도 마시지 않았고 모든 시간을 기도와 학문 연구에 바쳤으며 아무것도 팔지 않은 마룻바닥에서 잤다. 이것은 분명히 그가 종교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한편 그는 그 자신의 독특한 교리로 인해 바르지 못한 성경학자라는 오명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그는 성부 아버지께 의해 아들이 창조되었고 성령님은 성자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으므로 그분께 복종한다고 가르쳤다. 그는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으며 비성경적인 유아세례를 주장했다. 그는 또한 마귀들도 충분히 형벌을 받은 뒤에는 스스로 그리스도께 나아와 복종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 한편 그는 필로의 ‘영적 비유 해석 방법’을 동원하여 신약성경을 같은 방식으로 해석하고 가르쳤는데 사실 그는 이런 잘못된 해석을 통해 위에 열거된 이상한 교리들을 가르치게 되었다.

19) 영적 비유 해석이란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지 않고 모두 비유로 해석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모든 사람의 해석이 다 다르므로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 성경 해석은 앞뒤 문맥이 다른 것을 뜻하지 않는 한 반드시 문자 그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리겐의 영적 비유 해석과 그릇된 교리들을 배척하는 신학자들 가운데 많은 이들이 그의 본문 비평에는 찬사를 보내고 있다. 그는 소위 올바른 그리스어 성경을 내느라 노력한 것으로 크게 찬사를 받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과연 그의 그릇된 교리들과 비유 해석이 그의 성경 본문 비평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역사의 증거는 오리겐이 자기 생각에 맞추기 위해 마음대로 성경을 뜯어고쳤음을 보여 준다.

오리겐 당시에 알렉산드리아에서 형성된 그리스어 본문을 우리는 알렉산드리아 본문이라 하는데 현존하는 두 개의 사본이 이 본문을 지지하고 있다. 하나는 1844년 시내 산 수도원 쓰레기터미에서 티센도르프가 발견한 시내 사본(Aleph, 알레프)과 1481년 로마 바티칸의 도서관에서 발견된 바티칸 사본(B)이 여기에 속한다. 바로 이 두 사본이 1611년 이후에 나온 현대 역본들에서 삭제된 부분들을 정당화시켜 주는 기초가 되었다. 오리겐이 알렉산드리아 본문을 구성한 독본을 지지했으므로 현대 학자들은 현대 역본들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 '부패된 본문'의 증인으로 주저 없이 그를 들고 있다. 오리겐이 죽은 뒤에도 알렉산드리아는 신약성경 본문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 왔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알렉산드리아 본문은 학자들에 의해 원본에 가장 가까운 것으로 존경을 받고 있다.

로마

로마는 유럽 대륙의 이탈리아에 위치했다. 로마의 설립연도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고대 사회에서 로마는 양식과 조직 그리고 법률 등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로마는 주전 275년경에 이탈리아 반도를 장악했고 주전 133년에는 시리아로부터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넓은 영토를 다스리는 세계 제국이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출생하셨을 때에는 로마는 인구가 백이십만 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였다. 로마는 궁극적으로 로마 카톨릭주의의 근거지가 되었고 1871년에는 이탈리아의 수도가 되었다.

성경의 언급

로마는 성경에서 모두 아홉 차례 언급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특별히 딤후1:17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썼으며 여기서 그는 특별히 오네시보로가 자기를 유쾌하게 해 준 것으로 인해 그를 칭찬하고 있다.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공물을 배부시기 원하노니 그가 자주 나를 유쾌하게 하고 나의 사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그가 로마에 있었을 때에는 매우 부지런히 나를 찾아내어 만났느니라(딤후1:16-17).

이런 구절을 통해 우리는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곳임을 금방 알 수 있다. 비록 후에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로 승인했지만 그 이후에도 로마는 계속해서 국가 교회를 유지하려는 자들의 손을 통해 성경대로 믿는 신자들을 핍박했다.

또한 우리는 요한 계시록에 언급되는 로마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계시록 17장은 성도들의 피에 취한 음녀 즉 창녀들의 어머니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 여인은 7년 환난기에 수많은 사람을 죽일 단일세계종교이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여인을 가리켜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도시'(계17:18)라고 말하면서 이 도시의 정체에 대해 9절에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지혜 있는 생각이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앉아 있는 일곱 산이라.

지금까지 역사가들은 로마를 가리켜 '일곱 언덕 혹은 일곱 산 위에 놓인 도시'라고 말해 왔다. 그러므로 로마는 말세의 단일세계종교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로마 카톨릭 교회 교리의 발전

로마에서 교리의 발전은 세 사람을 살펴봄으로써 쉽게 알 수 있다. 이 세 사람은 비록 로마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로마 교회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성경을 번역하고 로마 카톨릭 방식의 성경 해석 체계를 세움으로써 로마에 큰 영향을 미쳤다.

첫째 인물은 키프리안(주후 195-258년)으로 그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우월성을 주장한 사람이다. 주후 1세기경의 교회들 중에서 대도시 교회들은 큰 위치로 부각되어 존경을 받고 권세를 쥐게 되었다. 그 당시 로마는 그런 도시들 중 하나에 불과했으나 키프리안은 다른 교회보다 로마 교회가 우월함을 가르쳤고 카톨릭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음을 가르쳤으며 궁극적으로 오직 로마 카톨릭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교리를 만들었다. 키프리안의 가르침은 로마 카톨릭주의의 근본 원리가 되어 중세 암흑시대에 로마 카톨릭 교회가 엄청난 정치권력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둘째 인물은 제롬(주후 340-420년)으로 그는 특별히 성경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는 오랫동안 은둔 생활을 했으며 후일에는 여러 여인들의 도움으로 베들레헴에서 수도원을 창설했다. 그는 강력한 자기 부인과 성직자들의 독신생활 그리고 마리아 숭배를 주장했다. 주후 382년경에 로마 교황 다마스스는 그에게 신약성경을 라틴어로 다시 번역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그는 오리겐의 작품을 이용하여 훗날 로마 카톨릭 교회의 공식 성경이 된 라틴어 성경을 번역했다. 이 일을 통해 그 당시에 이미 존재하던 '구 라틴어 성경' 즉 원래의 사본에 거의 일치하는 바른 역본이 궁극적으로 폐기되고 그의 '신 라틴어 성경'이 그것을 대체하게 되었다. 즉 제롬의 라틴어 성경²⁰⁾은 올바른 번역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시키면서 강압적으로 그 자리에 대신 들어선 강압적 성경이다.

셋째 인물은 어거스틴(주후 354-430년)으로 그는 오랫동안 아프리카의 히포의 감독으로 지냈다. 그는 연옥 교리 같은 사악한 교리를 창시한 장본인이지만 여기서 우리는 그의 성경 해석 체계에 대해서만 다루려고 한다. 그는 소위 '서방 해석 방법'이라는 체계를 세웠는데 이것은 곧 성경 해석이 교회의 해석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그는 성경 해석이 교회의 전통에 맞게 수정되어야 한다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성경 해석 체계를 설립한 장본인이 되고 말았다.

따라서 로마 카톨릭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의 전통을 교리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로 만든 자들'(마15:9)이라 할 수 있다. 로마 카톨릭주의의 비성경적 관행의 일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생겼지만 로마에 의해 궁극적으로 영구한 전통으로 확립되었다.

성경 부패

알렉산드리아 학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인가를 삭제했지만 로마는 전통을 통해 무언인가를 첨가했다. 이 둘이 서로 상반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둘은 조화를 이루면서 로마 카톨릭 성경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이 둘의 조합으로 인해 지금 온 세상에는 수많은 현대 역본이 존재하게 되었다. 비록 역본의 숫자는 많아도 이것들이 공통적으로 로마 카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수용하고 지지하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역본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한다.

로마 카톨릭주의의 불변하는 특징은 말씀보다 전통을 중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특징은 1546년에 열린 트론티 공회에서 교리로 추인되었다. 이 공회에서 이들은 외경과 사람의

20) 보통 라틴 벌게이트(Vulgate) 성경이라고 불리는데 여기서 벌게이트는 '공통의', '평민의'라는 의미의 라틴어 'vulgar'에서 나왔고 국내에서는 이것이 '불가타'로 알려져 있다.

전통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를 가지며 따라서 구속력을 갖는다고 결정했다. 이렇게 전통을 위에 둬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밑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첨가한 사례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사본으로 유명한 시내 사본과 바티칸 사본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바티칸 사본은 1481년에 발견되었지만 초기 그리스어 학자들은 그 내용이 부실하고 조작하므로 곧 이것을 무시해 버렸다. 이 사본은 발견된 지 약 400년이 지나서야 웨스트코트와 호트라는 친 로마 카톨릭 성향의 성경학자들이 1881년에 영국개역 성경을 내면서 세상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 사본은 '바나바 서신'같은 위조문서를 첨가했으며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를 보여 주는 부분을 삭제했다. 즉 이 사본에서는 삭제와 첨가가 교묘히 혼합되어 로마 카톨릭 교리를 지지하는 쪽으로 각색되어 있다. 또 하나의 로마 카톨릭 교회의 사본인 시내 사본은 1844년에 발견되었는데 여기에도 '헤르메스의 목자' 같은 위조문서가 첨가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 신약성경은 심지어 신약성경의 모든 책이 완성되기도 전에 말씀을 정정해야 했다는 사람들에 의해 이미 부패되었다(고후2:17).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속임수로 다루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고후4:2). 이 같은 말씀 변개의 동기는 학식과 전통이다. 알렉산드리아의 학식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인가를 삭제하며 로마의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조품을 자꾸 더한다. 바로 이 두 가지 요소에 의해 로마 카톨릭 교회의 성경이 변개되었고 바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나온 이런 부패한 사본들로 인해 오늘날의 부패한 현대 역본들이 나오게 되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순수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까? 물론이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보존해 주시겠다는 약속에 따라 지금 이 시간에도 순수하게 보존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 시리아의 안디옥에서 나온 사본에서 번역된 성경이 바로 그 순수한 말씀이다.

안디옥

안디옥은 아시아 대륙의 시리아에 위치해 있었다. 안디옥의 원래 거주자들은 창세기 10장 22절에 있는 말씀에 따라 노아의 아들인 셈에게서 나온 아람이라는 인물의 후손들이다. 하나님께서 유럽의 야벳의 후손들이나 아프리카의 함의 후손들을 사용해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지 아니하셨음에 유의하기 바란다. 그분께서는 아시아의 셈족을 통해 이 일을 하셨는데 이 점에서 노아의 예언 즉 “주 곧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라는 말씀은 참으로 적절하다(창 9:26).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에서 셈의 후손을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하심을 보여 준다.

그분께서는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자신의 특별 민족인 이스라엘을 세우셨고 셈의 후손인 유대인들을 통해 전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게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기 때문이다”(요4:22). 실로 메시아 예수님 역시 셈의 후손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셈의 후손인 유대인들이 기록하고 보존한 성경 말씀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셨다(롬3:1-2).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셈의 후손을 통해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존하는 일에서 역시 셈의 후손을 사용하시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겠는가? 안디옥 사람들은 신약성경이 기록된 지 100여 년이 지났을 무렵에 신약성경을 보존해 준 사람들이었다.

그 당시 안디옥은 소아시아와 시리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바로 이 지역이야말로 초기 부흥과 선교의 중심지였다. 하나님께서는 섭리의 역사를 통해 안디옥이라는 도시를 아주 중요한 곳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안디옥은 초기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중심지요, 성경 보존의 중심지가 되었다.

어떤 성경 교사나 크리스천 그룹이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는가를 살펴보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사실은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안디옥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로마는 교권적인 해석 방법을 취했다. 이것은 다시 말해 교회의 과거 전통과 교회 신학자들이 성경 구절의 의미를 확정했다는 것이다. 누차 말했듯이 알렉산드리아의 해석 방법은 영적비유해석이다. 그들은 성경을 영적으로 풀어서 자기가 원하는 철학이나 사상에 맞게 해석했다. 오직 안디옥만이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했다. 안디옥 학파에 대해 브리태니커 사전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시리아에 있던 그리스도교 신학 학파. 전승에 따르면 200년경에 세워졌다. 성서의 비유적 해석과 그리스도의 신성(神性)을 강조한 알렉산드리아 학파에 반대하여 성서의 문자적 해석과 그리스도의 인성(人性)의 완전함을 강조했다. 4~6세기에 번성했던 안디옥 학파는 여러 명의 주요 신학자를 배출했는데 그들 가운데는 타르수스의 디오도루스, 모프수에스티아의 테오도루스, 성 요한네스 크리소스토무스, 키루스의 테오도레투스 등이 있다.

이런 해석 방법을 취하면 성경은 말하는 것 그대로를 의미하며 의미하는 것 그대로를 말한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므로 그것을 조작하거나 바꿀 필요가 없다. 그러면 어떤 도시에서 바른 사본이 나왔는지는 자명할 것이다.

〈세 도시의 특징〉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지리적 측면	크기	가장 큼	둘째로 큼	셋째로 큼
	위치	이탈리아(유럽)	이집트(아프리카)	시리아(아시아)
	인종	야벳의 후손	함의 후손	셈의 후손
성경적 측면	언급회수	9번	3번	19번
	특징	박해를 가한 곳	거짓 교리	성경적 기독교
	영향	북아프리카 이탈리아	팔레스타인 이집트	소아시아 시리아
역사적 측면	성경해석	전통적/교권주의적	학자적/비유해석	성경적/문자적
	성경처리	첨가	삭제	보존
	본문	서방 본문	알렉산드리아 본문	시리아 본문

성경의 언급

자 이제 우리는 성경이 안디옥에 대해 무어라 말하는지 살펴보려 한다. 아무리 역사적/지리적 특징이 바르다 해도 성경적 특징이 바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안디옥에 대해 성경은 무려 열아홉 번이나 언급하고 있으며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많다. 사실 안디옥 교회는 신약성경에 나타난 가장 모범적인 교회 중 하나였다.

안디옥 교회의 설립과 초기 사역은 사도행전 11장 19-30절에 기록되어 있다. 사도행전 13장 1-4절은 안디옥에서 첫째 선교사들을 보내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안디옥 교회의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볼 수 있다.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였으며 증인이 되는 교회였으며 가르치는 교회였으며 섬기는 교회였으며 남을 돕는

교회였으며 기도하는 교회였으며 선교하는 교회였다. 이런 원칙에 입각하여 안디옥 교회는 여러 교회를 위해 많은 일을 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셔서 성경을 보존하는 일을 했음을 쉽사리 짐작해 볼 수 있으며 사실 그분께서는 그렇게 하셨다.

신약성경의 보존

현존하는 신약성경 사본들은 6,000개 정도가 된다. 이 사본들은 대개 서방 계열(Western family), 알렉산드리아 계열(Alexandrian family) 그리고 시리아 계열(Syrian family) 등으로 분류된다. 서방 계열은 로마와 관련이 있고 알렉산드리아 계열은 알렉산드리아와 관련이 있으며 시리아 계열은 안디옥과 관련이 있다. 그런데 현대 역본들의 모체가 되는 사본들은 다 서방 계열과 알렉산드리아 계열에 속한 것들로 그 수가 몇 개 되지 않아 소수 사본이라 불린다(1% 미만). 이 소수 사본은 로마 카톨릭 교회가 애지중지하고 공을 들여 수정한 것들이다. 반면에 시리아 계열의 사본들은 다수를 차지하여 자연스레 다수 사본, 보편적 사본, 종교개혁 사본이라 불린다. 이 사본들이야말로 초기 순교자들이, 중세 개혁자들이 목숨을 버리면서 지키고 보존해 준 사본들이다.

성경의 판결

우리가 오직 성경만을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실행의 표준이요, 최종권위라고 믿는다면 성경이 이집트에 대해 경고하는 바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해 이집트에서는 결코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 이것이 명백한 성경의 판결이다. 그렇게 지혜가 많던 솔로몬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집트에서 물건과 사람을 가져오다가 실족하여 결국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았던가?(신17:16; 왕상3:1; 왕상10:28-29)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자가 누구란 말인가? 부디 성경의 판결을 믿기 바란다. 이집트에서는 결코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

지난 100여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성경 본문에 대한 책들을 저술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과연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시느냐, 보존하지 아니하시느냐?”의 문제이다. 만일 보존하신다면 그분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셔서도 그 일을 감당하게 했을 것이다. 물론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 이 일은 안디옥 교회를 통해 이루어졌다. 만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존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진리에 대한 최종 권위가 없이 살아야 한다. 우리 인류는 죄와 하나님께 대한 반역으로 인해 어둠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순수하게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므로 이 거친 세상을 곳곳이 살아갈 수 있다. 1611년에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가 언제라도 볼 수 있는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보물을 선물로 주셨다. 이제 우리는 이 보물을 읽고 외우고 거기 순종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다.

신자들에게는 항상 최종 권위의 본문이 있다!



이런 본문은 시리아 본문 혹은
비잔틴 본문이라 한다.

제 4장

웨스트코트와 호르트

성경을 각 나라 말로 번역하려면 번역의 대본인 본문(Text)이 필요하다. 아무리 번역자들과 번역 기법이 우수해도 대본이 나쁘면 거기서 번역된 역본 역시 필연적으로 나쁠 수밖에 없다. NIV, NASB, 개역성경(개역개정판), 표준새번역 등의 모든 현대역본들은 기본적으로 웨스트코트(Brooke Foss Westcott, 1825-1903년)와 호르트(Fenton John Anthony Hort, 1828-1892년)의 그리스어 '비평본문'을 사용한다. 도자기를 만들면 기술자의 지문이 그 안에 남게 마련이다. 이와 동일하게 저술에도 저자의 사상이 배어 있다. 이 장에서는 이 중요한 두 사람의 행적을 통해 이들의 부패된 사상을 살펴보고 그런 사상이 그들의 그리스어 본문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살펴보고자 한다.

사실 그리스어 신약성경과 관련해서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만큼 논쟁의 여지가 많은 인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들이 그리스어 본문 연구에 지대한 발전을 이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선전해 왔으나 이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단, 불신앙, 배교 등의 여러 죄목으로 이들을 고소했으며 참으로 이들이야말로 성경의 참 본문에 극심한 손상을 입힌 배도자라고 주장해 왔다.

근거 없이 어떤 사람을 중상모략 하거나 혹은 사실을 은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 사람들과 또 성경 본문에 대한 그들의 이론들에 대해 알려진 바를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어떤 학자가 성경과 그 안의 교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연구해 보지 않고 맹목적으로 그의 발견을 받아들이 수는 없다. 때때로 학식이라는 것이 적합하지 않고 또 위험한 권위를 만들어 내기에 이 사람들의 삶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웨스트코트의 아들이 지은 「웨스트코트의 삶과 서신들」과 호르트의 아들이 지은 「호르트의 삶과 서신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 사용한 대부분의 자료는 객관성을 입증하기 위해 이 책들로부터 직접 인용한 것들이다.²¹⁾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본문 비평학에서 가장 큰 공헌을 세운 인물이다. 이들은 킹제임스 성경의 '보편적 본문'을 이집트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국지적 본문'으로 대체시켜 버렸다. 또한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킹제임스 성경과 그것의 기초가 되는 '그리스어 공인본문'이 지닌 우월성에 대해 매우 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들은 속임수에 넘어가 로마 카톨릭 산물인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사본'이 가장 오래 되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사본이라고 믿었다. 비록 호르트가 '안디옥 본문' 즉 '보편적 본문'의 연대가 그 사본들의 연대와 비슷하다는 것을 인정하긴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카톨릭 사본들을 신뢰했다.

'보편적 본문'이 로마 카톨릭 사본들만큼이나 오래 되었다는 것을 알고서도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성경 역사에서 이 본문이 차지한 높은 권위를 밀로 끌어내리려고 애를 많이 썼으며 종종 호르트는 자기의 감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나는 그 아비한 공인본문에 질질 끌려 다니면서 그리스어 성경을 거의 읽지 못했기 때문에 지난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본문의 중요성을 전혀 알지 못했다. 전적으로 후대 사본들에 기초를 둔 그 비열한 공인본문을 생각하면 그런 초기의 것들 - 역자 주: 로마 카톨릭 사본들 - 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큰 복이다.²²⁾

21) 본 장은 깃(Samuel C. Gipp)이 지은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Understandable History of the Bible, 출판사 그리스도 예수안예)의 8장에서 발췌한 것이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국지적 본문'인 소수의 영설(대문자) 사본들을 기초로 하여 '수정 그리스어 본문'을 만들어 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이 왜곡된 로마 카톨릭 사본들은 심지어 자기들끼리도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 그런데 참으로 역설적인 것은 웨스트코트와 호르트가 자기들의 본문을 만들 때 이미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 사람들이 성경의 주요 교리들을 희석시키고 공격한 역사를 지닌 사본 계열에 큰 영향을 준 것은 결코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랄 만한 일은 이 두 사람 중 어느 한 사람도 성경을 대하면서 그것을 이미 사라진 역사가나 철학자의 글과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고 믿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그들은 성경과 고문서의 평가 방법이 같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여러 번 베껴 쓴 모든 산문에서 거의 발견되는 것처럼 신약성경 본문 안에도 생략에 의한 본문의 부패보다 삽입에 의한 부패가 훨씬 더 많다.²²⁾

우리는 이런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만 한다. 과연 하나님께서 자신의 책이 셰익스피어나 플라톤의 글과 비교하여 전혀 다를 바가 없다고 믿는 사람들을 사용하시겠는가? 성경이 어느 사람들의 글과 다르다고 믿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신앙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믿지 않는 것인가?

사실 날이 갈수록 그들의 의심은 더욱 깊어만 갔다. 이 두 사람은 성경의 진리를 부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명해졌으며 바로 그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보수주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성경의 권위자로 치켜세워지고 있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는 그리스도인의 기본 신앙에 있어서 너무도 소중하고 없어서는 안 될 근본 교리를 받아들이는 데 실패했다.

호르트의 문제점

호르트는 에덴동산의 실재를 부인한다.

나는 에덴동산 같은 곳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또한 아담의 타락도 영국의 시인 코울릿지가 정확히 지적한 것처럼 그의 후손들의 타락과 전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²⁴⁾

우리는 또한 성경에 오류가 없음을 믿지 않은 호르트의 불신앙을 직시해야 한다.

만일 당신의 협조를 얻기 위해 신약성경의 절대 무오류성을 믿어야 한다면 유감스럽게도 나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²⁵⁾

심지어 그는 한 동료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당신이 성경의 절대 무오류성을 지지하는 한 나는 당신과 함께 갈 수 없소.²⁶⁾

호르트는 비록 그 시대의 복음주의자들에게는 감명을 받지 않았지만 비성경적 진화론을

22) Hort, Arthur Fenton, *Life and Letters of Fenton John Anthony Hort*, (New York, 1896), Vol. I, p. 211.

23) Fuller, David, *True or False*, (Grand Rapids International Publications, Grand Rapids, 1973), p. 240.

24) Hort, Arthur Fenton, *Life and Letters of Fenton John Anthony Hort*, (New York, 1896), Vol. I, p. 78.

25) 같은 책 p. 400.

26) 같은 책 pp. 420-422.

주장한 다윈(C. Darwin)에 대해서는 큰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자기의 동료인 웨스트코트에게 매우 흥분된 어조로 다음과 같이 편지했다.

다윈에 대해 읽어 봤소? 그 이론에 대해 무어라 말할 수 있을까? 비록 어렵기는 하지만 반박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었소. 어찌 됐든 그런 책을 읽는다는 것은 큰 기쁨이오.

그리고 엘러톤(J. Ellerton)에게는 다음과 같이 편지했다.

그러나 나의 주의(注意)를 가장 많이 끈 책은 다윈의 것이요, 비록 그것에 대해 남들이 무어라 할지는 몰라도 그 책은 우리가 동시대인으로서 자부심을 느껴야 할 책이오, 만일 그렇다면 새 시대가 열리는 것이오.²⁷⁾

어떤 때 보면 호르트는 나무와 나무 사이에서 방황하는 것 같고 또 어떤 때는 완전히 숲 속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보인다. 그 예로서 근본적인 성경 진리에 대한 그의 관점들을 수 있다. 인격적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그는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만일 마귀가 있다면 그는 단순히 부패되고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전적으로 사악해야만 하며 또한 그의 이름과 그의 에너지와 행동이 다 사악해야만 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것을 지지한다면 말씀의 거룩한 특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²⁸⁾

호르트 목사는 또한 글자 그대로의 영원한 지옥을 믿지 않았다.

모리스의 편지는 우리가 미래의 처벌 기간에 대해 확실히 알 수 없다는 것과 또한 ‘영원한’이란 단어가 단순히 물리적으로 굉장히 긴 기간이라기보다는 좀 더 고차원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고 나는 생각하며 또한 항상 불가능하게 생각되어 내 마음과 상치되는 것이 소멸되는 것과 비슷한 어떤 것을 충분히 보여 주었다고 생각합니다.²⁹⁾

비록 고등 교육을 받은 호르트의 마음속에 글자 그대로의 마귀와 지옥에 대한 개념이 자리 잡지 못했지만 로마 카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연옥에 대한 거짓 교리는 그의 마음속에 굳건히 자리를 잡았다. 그는 1854년 엘러톤 목사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했다.

나는 모리스가 말로써 연옥을 부인했다는 것에 대해 당신과 마찬가지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논쟁의 세 가지 주요한 논점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확고부동하게 동의하는 바입니다. (1) 영원이 기간과는 상관없다; (2) 회개의 힘은 현생에만 제한되어 있지 않다; (3) 모든 사람이 궁극적으로 회개하든지 회개하지 않든지 영원은 드러나지 않는다. 현 시대 사람들이 이 중 둘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즉 연옥 사상을 부정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신학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³⁰⁾

또한 한 젊은 학생을 지도하는 동안 그는 아래와 같이 편지했다.

나는 불로 깨끗하게 되는 연옥(煉獄)에서의 정화라는 개념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벌과 분리해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래의 상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을지라도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의 성격도 역시 변해야만 한다는 이 교리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그 저주받은 연옥 교리가 크고 중요한 진리를 믿는 믿음 즉 카톨릭 믿음을 유지시켜 주었으므로 전적으로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조항에 모순된다고는

27) 같은 책 pp. 414-416.

28) 같은 책 p. 121.

29) 같은 책 p. 149.

30) 같은 책 pp. 275.

생각하지 않습니다.³¹⁾

호르트 박사의 의견들은 확실히 정통 교리에 의해 제지되지 않았다. 그런데 그의 고집불통이며 제멋대로 행하려는 생각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호르트 박사 자신의 글이 보여 주듯이 그는 몇몇 다른 기본적 진리에 있어서도 매우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는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代贖)의 죽음을 거부했다.

나는 각 사람이 자기의 죄로 인한 고통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건지 모르겠다.³²⁾

사실 호르트는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가르침을 이단으로 생각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기까지 고통 당하셨다는 것보다 더 성경적이지 못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정말로 그것은 거의 보편적 이단 교리의 한 측면이다.³³⁾

사실 호르트는 하나님보다는 사탄이 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값을 받아들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었다. 즉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에게 속죄 값으로 자신의 생명을 지불했다고 믿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사탄에게 지불한 속죄 값이라는 그 원시적 교리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혐오하지도 않는다. 또한 그것 말고는 속죄 값에 대한 교리를 조리 있게 변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다른 형태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사실 그 어떤 것도 예수의 죽음이 아버지에게 속죄 값을 드린 것이라는 개념보다는 더 낫다.³⁴⁾

호르트 박사는 또한 로마 카톨릭 교회의 가르침 즉 유아세례에 의해 거듭난다는 가르침이 복음주의자들의 가르침보다 옳다고 믿었다.

우리는 로마 카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유아세례를 통한 중생’을 가장 중요한 교리로 지킨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관점이 복음주의자들의 관점보다 더욱더 나를 진리로 가깝게 인도하는 것 같다.³⁵⁾

또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와 그의 몸의 일원으로서 하늘나라의 상속자임을 보장해 준다.³⁶⁾

호르트는 자기의 믿아들 아더에게 그가 유아세례로 인해 구원받았음을 확신시켰다.

너는 단지 사람들이 사는 세상 속으로 태어났을 뿐 아니라 크리스천 왕국의 크리스천 부모에게 태어났다. 하나님은 네가 아직 유아였을 때 세례를 통해서 너를 자신의 교회 즉 사도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이어져 온 위대한 성회의 ‘무의식적인 한 일원’으로 만들어 주셨다. 너는 크리스천 영향권 내에서 자라났다. 즉 눈을 들어 네 자신의 아버지로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보도록 교육을 받았고 또한 이상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끈에 의해 그에게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한 부분

31) 같은 책 Vol. II, pp. 336-337.

32) 같은 책 Vol. I, p. 120.

33) 같은 책 p. 430.

34) 같은 책 p. 428.

35) 같은 책 p. 76

36) 같은 책 Vol. II, p. 81.

24 개역성경분석

또는 일원으로서의 놀라운 감격을 느끼도록 교육을 받았다. 이것은 다시 말해 너의 타고난 권리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네 몫이 있음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³⁷⁾

호르트는 사실 공산주의와의 접촉을 통해 많은 사상적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사실은 대략 1850년경 그와 엘러톤 목사와의 계속적인 편지 왕래에서 잘 드러난다.

내가 여기서 앞으로 3, 4년간 공산주의에 대해 연구하기로 결심한 것은 꽤 잘한 일입니다.³⁸⁾

내 자신이 공산주의를 연구한 것은 바로 정치 분야를 통해서였습니다.³⁹⁾

확실히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청지기로 예정을 받아 자기 이웃의 유익을 위해 그분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복과 탕런트 즉 권력, 부, 영향력, 지위, 출신 등을 공산주의자들처럼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⁴⁰⁾

또한 호르트는 그의 좋은 친구였던 웨스트코트와 또 소위 유령 길드(Ghostly Guild)라는 단체에 속한 다른 이들과 같이 초자연적인 것에 깊이 몰두했다.

웨스트코트, 고크, 스코트, 벤슨, 브래드쇼우, 루아드 등과 나는 유령과 모든 초자연적인 현상과 그 결과들이 정말로 존재하며 또한 그것들이 속임수나 단순한 주관적 망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 모임을 시작했다. 우리는 실제로 진리를 입증할 수 있는 좋은 이야기들을 얻게 되어 행복해 할 것이다. 웨스트코트는 질문들의 목록을 짜고 있다. 코우프는 우리를 탐탁과 수소 클럽이라고 불렀지만 우리는 이 그룹의 이름을 잠정적으로 유령 길드라 할 것이다.⁴¹⁾

어떤 사람이 이 정도로 비성경적이며 무신론적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사실 그리 놀라운 일이 못 된다. 그러나 성경을 믿는 설교자나 전문가들이 킹제임스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은 권위를 그런 사람에게 부여한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 아닌가! 호르트 박사가 뛰어난 그리스어 학자였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무리 위대한 지식인이라 해도 스스로 성경을 믿지 않는다고 주장하면 그는 절대로 성경의 권위자가 될 수 없다(고전2:14).

아인슈타인은 위대한 지식인이었지만 성경을 거부했고 그래서 그가 성경 문제에 대해 말할 때 아무도 그의 말을 권위 있는 말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대한 심성이나 능력을 소유한 것이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되는 보증 수표는 아니다. 비록 호르트 박사가 뛰어난 학자였지만 그의 뛰어난 학벌이나 학식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관한 그의 이론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수는 없다.

오늘날 보수적인 교회의 어떤 목사가 복음 전도자들의 집회에 참가했는데 이 복음 전도자들이 호르트의 비기독교적 신앙에 버금가는 불신앙을 가졌음을 알게 된다면 당장에 그 모임을 취소하리라 믿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느 목사가 호르트의 신앙관이 매우 잘못된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대한 그리스어 학자'로 옹호하며 자기가 믿는 킹제임스 성경을 그에게 건네주어 악의에 찬 그로 하여금 그것을 절개하고 내던지도록 그냥 내버려둔다. 물론 이런 과정 속에서 호르트는 한때 성경이 차지했던 권위의 자리에 앉아 스스로 왕 노릇을 하고 있다.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바로 목사들의 무분별한 신앙 때문이며 또한 신학교 시절의 인본주의 교육 때문이다. 그런데 사실 신학교들 또한 알고 죄를 지은 것은

37) 같은 책 p. 273.

38) 같은 책 Vol. I, p. 130.

39) 같은 책 p. 138.

40) 같은 책 p. 139.

41) 같은 책 p. 211.

아니다. 왜냐하면 대개 그들은 영국을 다시 한번 로마 카톨릭화하려는 예수회의 운동 아래 부각된 두 사람 즉 호르트와 웨스트코트의 권위를 단순히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월켄슨은 실제로 호르트가 로마 카톨릭 교회에 의해 심각하게 영향을 받았다고 말한다.

호르트 박사는 본문 비평학의 아버지인 천주교도 시몬의 글들이 킹제임스 성경의 근간이 된 공인본문과 같은 계열에 속한 사본들과 및 성경들의 신용을 떨어뜨리는 데 큰 몫을 했다고 말한다.⁴²⁾

웨스트코트의 문제점

웨스트코트 박사의 신용장 역시 호르트의 신용장과 비슷하다. 웨스트코트는 창세기 1-3장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함을 믿지 못했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름까지 언급하신 모세나 다윗도 시적 인물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웨스트코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예를 들어, 오늘날에는 어느 누구도 창세기의 첫 세 장이 문자 그대로의 역사를 제공한다고 믿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두 눈을 뜨고 그것을 읽는 사람이라면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는지 난 이해할 수 없다. 게다가 그 세 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을 보여 주고 있음을 지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⁴³⁾

또한 그는 다윗이 역사적 인물이 아닌 영적 인물이라고 말했다. 신학교의 자유주의자들이나 현대주의자들은 수 년 동안 계속해서 창세기의 처음 세 장이 모두 비유라고 주장하며 그렇게 믿고 있다. 웨스트코트는 또한 기적에 대한 성경 이야기를 모두 의심했다.

나는 기적 이야기 같은 것은 읽어 본 적이 없으나 직관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느낀다. 그리고 그 이야기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발견했다.⁴⁴⁾

웨스트코트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고 믿었다.

역사적 믿음에 관해 기록한 나의 작은 책 안에서 주의 오심에 대해 내가 믿는 바를 간략히 말한 적이 있음을 나는 기억한다. 나는 예루살렘의 멸망이야말로 주의 말씀이 첫 번째로 성취된 재림이었다고 강하게 믿었으며 그 외에도 다른 재림이 수차례 있어 왔으므로 그분께서 지금 우리에게 오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는다.⁴⁵⁾

웨스트코트 감독은 기본적인 천국의 교리를 부인했다. 실제로 그는 천국을 글자 그대로의 장소로 믿지 않았고 어떤 상태로 믿었다.

전례 법규의 언어가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사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인성의 임재를 실제의 장소와 연결 짓는 실수를 하지 않게 해 준다. 천국은 장소가 아니라 상태이다.⁴⁶⁾

보이지 않는 것은 삶의 가장 큰 영역이다. 천국은 우리 안에 놓여 있다. 그리고 생각, 회상 그리고 동경을 위하여 조용히 휴식을 취함으로써 우리는 좀 더 거룩한 상태 즉 천국을 계속해서 신선하게

42) Wilkenson, Benjamin, *Our Authorized Bible Vindicated*, (Takoma Park, 1930), p. 104.

43) Westcott, Arthur, *Life and Letters of Brooke Foss Westcott*, (New York, 1903), Vol. II, p. 69.

44) 같은 책 Vol. II, p. 52.

45) 같은 책 Vol. II, p. 308.

46) 같은 책 Vol. II, p. 49.

유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습관적으로 그 천국을 숨 쉴 수 있다.⁴⁷⁾

우리는 인내, 확고한 결심, 믿음 그리고 노력을 통해 우리 주변의 천국 즉 우리의 지상 생활의 영광을 추구하는 바이다.⁴⁸⁾

어떤 사람이 읽는 책이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낸다는 말이 있다. 웨스트코트는 계속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영향력에 자신을 노출시킴으로써 자신도 알지 못한 채 로마 카톨릭 교회를 선호하게 되었다. 로마 카톨릭주의의 지속된 공세로 인해 결국 웨스트코트는 많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관례들과 자기의 사고가 일치하게 만들었다. 1849년 2월 그는 로마 카톨릭화하려는 자들이 좋아하는 두 가지 주제에 대해 연구하기로 결심했다.

‘성경의 영감’과 ‘로마 교황의 사도계승권’, 주여! 나로 하여금 이런 주제를 단지 진리 추구를 위해 진정으로 연구하게 하소서!⁴⁹⁾

첫째 주제에 대한 연구 결과 웨스트코트는 성경이 절대적으로 진리임을 깨닫게 되었지만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은 부인했다.

친해하는 호르트에게: 나는 당신의 글과 라이트푸트의 글을 보게 되어 기쁘고 또한 이렇게 터놓고 이야기할 기회를 갖게 되어 기쁘오. 왜냐하면 나 역시도 내 신념에 앞서 성경의 절대 무오류성을 먼저 확립해야만 하는 것을 거부하기 때문이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배우면 배울수록 새로운 의심들이 나의 무식함으로부터 생긴다는 것이고 나는 지금 절대적 진리보다는 어떤 임의적인 가정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있소. 나는 성경 전체를 뒤덮고 있는, 성경의 무오류란 단어를 부인하오.⁵⁰⁾

로마 카톨릭주의의 영향으로 인해 드디어 영국 성공회에 속한 선한 감독 웨스트코트는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확신을 잃게 되었다.

웨스트코트의 로마 카톨릭 성향은 결국 그로 하여금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의식’을 허락하게 만들었다. 영국 국교회 안에서도 이미 인정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이런 의식에 대해 그는 1900년 8월에 한 성직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많은 학식과 경험을 가진 몇몇 다른 감독들과 의논했고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에 관하여 우리 교회가 취할 태도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공식 예배에서 교회 전체와는 별개로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금지해야만 한다는 것에 만장일치로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개인기도 때에는 그러한 제약을 두지 않았습니다.⁵¹⁾

우리는 육체로 더럽혀진 옷을 미워해야 한다(유23). 웨스트코트 박사는 표범의 가죽만큼이나 천주교의 얼룩얼룩한 점으로 오염된 사람이다! 로마 카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그토록 충성했던 제롬과 비길 수 있는 신념을 지닌 이 사람이 과연 그리스어 본문을 공정하게 수정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을까?

로마 카톨릭 교회의 또 다른 교리는 마리아 숭배이다. 그리스도의 어머니에 대한 웨스트코트의 감탄의 정도는 그의 아들 아더가 설명한 대로 심지어 자기 약혼녀의 이름을 마리아로 바꾸고자 한 점에서도 잘 드러난다.

제 어머니의 이름은 사라 루이스 휘타드(Sarah Louisa Whittard)로 세 자매 중 장녀였습니다. 어머니는

47) 같은 책 Vol. II, p. 253.

48) 같은 책 Vol. II, p. 394.

49) 같은 책 p. 110.

50) 같은 책 p. 110.

51) 같은 책 Vol. II, p. 349.

후에 아버지의 요구대로 건진성사 때 세례명으로 마리아라는 이름을 택했습니다.⁵²⁾

웨스트코트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들은 의심했지만 로마 카톨릭 제사장들이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음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는 프랑스에 있는 라살레트의 우리의 마리아(Our Lady of La Salette)라는 성물 함에서 자기가 본 것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참고로 라살레트는 마리아가 출현하여 기적을 베푼다고 천주교회가 주장하는 장소이다.

글로는 이런 것을 충분히 전달할 수 없다. 아버지의 열렬한 에너지, 딸의 겸손한 감사, 여기저기로 옮겨 다니는 구경꾼들의 빠른 눈초리, 사제의 만족감, 표정과 고덕임의 이야기들이 19세기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던 상황을 만들어 주었다. 믿음의 시대가 고대의 모습으로 우리 눈앞에서 회복되었다. 우리는 굉장한 호의를 보여 준 젊은 신도에게 치료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이 참여하게 된 특수한 상황에 대해 우리가 설명하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믿음이 없이 어찌 이 일을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장소의 중요성과 힘이 바로 여기에 놓여 있다.⁵³⁾

웨스트코트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영적인 것이며 천국은 마음의 상태라고 믿었고 죽은 자를 위한 기도도 개인기도 시간에는 허용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그리스도가 국제적 무장해제를 통해 평화를 가져오리라고 믿었다. 그는 연옥을 믿었고 마리아를 숭배했으며 성경도 다른 책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했다. 바로 이 사람이 영국개역성경위원회의 위원으로 일했으며 우리가 읽고 믿는 성경의 심판관으로 앉아 있었다. 그는 킹제임스 성경에서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고 로마 카톨릭 교회의 주장을 지지하는 ‘개약된 그리스어 본문으로’ 그 부분을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 두 명의 케임브리지 학자들의 공통된 소망은 킹제임스 성경의 권위 즉 ‘보편적 그리스어 본문’의 권위를 박탈하는 것이었다. 여러 학자들이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왔으나 이들의 노력은 ‘보편적 본문’이 정말로 성경의 참 본문이며 자필 원본이 보존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들에 의해 좌절되었다. 그런데 이 두 학자들은 로마 카톨릭주의에 의해 교묘히 영향을 받았으며 자기들의 의무가 이 순수한 프로테스탄트 본문 즉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본문을 던져 버리고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국지적 본문으로 그것을 대체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늘 그렇듯이 눈에 드러나는 현저한 증거는 항상 하나님의 편으로 기울어 있다. 아무도, 심지어 로마 카톨릭 교회조차도, 현존하는 모든 사본의 99% 이상이 보편적 본문인 이유를 설명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따라서 인본주의자들의 ‘본문 비평’은 이러한 장애물이 극복될 때까지 정제된 상태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로마 카톨릭 교회의 본문을 살리기 위한 길을 터놓은 사람은 다름 아닌 호르트라는 천재였다. 이 사람은 다윈이 하나님의 창조라는 사실을 전복시키는데 사용한 것과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여 보편적 본문의 권위를 뒤집어 버렸다. 다름이 아니라 그는 ‘학설’을 사용했다.

그의 학설은 다름이 아니고 자필 원본은 국지적 본문과 일치하는데 이 국지적 본문을 주후 4세기에 안디옥에 있던 시리아 교회가 마음대로 편집했고 그렇게 편집된 본문이 바로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보편적 본문이며 그 이후에 교회의 공회가 이 본문을 사용하도록 사람들을 강요했다는 것이었다. 즉 이 말은 킹제임스 성경의 보편적 본문이 변개된 것이고 현대 역본들의 국지적 본문이 올바르게 보존된 것임을 의미한다.

다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상식과 입수할 수 있는 모든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이 그의 이론의 부당함을 입증하였다. 다윈과 마찬가지로 그는 증거가 될 수 있는 최소한의

52) 같은 책 Vol. I, p. 8.

53) 같은 책 Vol. I, p. 254.

단편들을 모두 모아 뒤틀고 과장시켜 자신의 주장을 이론화시켰다. 다윈의 진화론처럼 그의 학설 역시 그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며 결코 역사적 사실이나 증거와는 무관한 것이었다.

또한 다윈의 진화론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 하나님의 권위를 폐지할 길을 찾고 있었던 지식인들은 그의 학설을 압도적으로 받아들였다. 진화론은 하나님의 창조라는 사실에 분개한 과학자, 생물학자, 대학 교수들의 귀에 마치 달콤한 음악과도 같았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 그러므로 그대로 되리라.”는 말씀은 자연스레 사람의 육체 안에 적개심과 반항심 같은 것을 불러 일으켰다(롬7:18). 따라서 다윈이 세상에 그의 이론을 내놓았을 때 온 세상은 그 거짓말을 기꺼이 믿었다.

그런데 기독교 학자들 사이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도움 없이도 자기 자신의 말씀을 보존할 수 있으며 또 보존하실 것이라는 생각에 대해 분개해 왔다. 절망적인 과학자들처럼 그들도 역사의 증거나 사실이 킹제임스 성경의 편이라는 점을 마지못해 받아들여야만 했다. 그러던 때에 웨스트코트 박사의 후원을 받은 호르트의 학설이 발표되자 그것은 곧 ‘본문 비평의 해방’으로 알려졌다.

다윈의 학설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호르트의 학설을 이용하면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하게 되지만 이렇게 서로 다른 결론들은 결코 호르트의 지지자들을 위협하지 않았다. 그들은 새로운 결론을 내리는 데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들은 단지 고대의 것 다시 말해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참 성경이라는 생각을 없애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다.

호르트의 이론과 다윈의 이론에는 또 다른 유사점이 있는데 그것은 이 이론들의 오류가 입증된 후에도 오랫동안 사람들이 그것을 존경한다는 점이다. 다윈의 이론은 이미 오래 전에 역사적인 증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상식 등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을 입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끈질기게도 그것을 확실한 사실로 떠받들어 왔다. 그들은 다윈의 이론이 자기들을 진리로 인도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행한 것이 아니다. 오직 그들은 다윈의 이론이 자기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킹제임스 성경으로부터 -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 도망칠 수 있게 해 주리라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했다.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배교의 모든 증거를 살펴볼 때 현대 학자들이 이 두 사람을 그렇게 숭배한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다.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도 않았을 뿐더러 슬프게도 경험조차 하지 못한 사람들을 지지하다니 정말로 슬픈 일이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이 이 두 명의 신앙심 없는 사람들의 말로 인해 눈이 멀어 사실을 도외시하게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다.

우리는 영적으로 부흥할 수 있다. 그러나 창세기 35장 2-3절에서 야곱이 자기 집안사람들에게 말했던 것같이 크리스천 학자들이 ‘이방 신들을 내어버리고 뻔엘로 올라가야만’ 그런 부흥이 가능할 것이다.

제 5장

개역성경분석

개역성경의 본문

로스의 성경을 필두로 하여 한글 성경은 한결같이 로마 카톨릭 교회 소수본문에 근거하여 번역되었다. 개역성경의 구약은 1901년의 미국표준역(ASV)에 기초하여 번역되었는데 미국표준역은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수정 그리스어 본문에 기초한 영국의 개역성경(ERV)과 내용이 같다. 대한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공동번역, 표준새번역 등도 한결같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이집트 본문을 사용하여 번역되었으며 번역의 대본인 본문이 같으므로 문체만 다를 뿐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성경을 읽다 보면 각주에 “더 좋은 사본에……” 혹은 “더 오래된 사본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경우 더 좋거나 더 오래된 사본들은 대부분 대한성서공회가 자신들의 성경 번역을 위해 대본으로 삼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사본들이다.

교황, 마리아, 연옥, 사제(신부), 면죄부, 행위 구원 등 비성경적 요소로 가득한 기관, 성경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수많은 성도들을 죽인 단체에서 성도들을 위해 올바른 성경 사본을 보존해 왔다고 믿을 수 있겠는가? 대한성서공회를 움직이는 연합성서공회의 지도자가 로마 카톨릭 교회 사제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⁵⁴⁾ 부디 알렉산드리아 학자들의 말을 믿지 말고 성경의 판결을 믿기 바란다. 이집트 사상을 이어 받은 로마(바빌론)에서는 결코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계17, 18장).

개역성경의 용어

성경 번역이나 해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개념으로 단어들을 다루어야 한다는 점이다. 처음에 성경이 한글로 번역될 때 중국 및 인도의 이교도 사상과 토속 샤머니즘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와중에 이런 비성경적 사상들이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여 개역성경에는 기독교 개념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단어가 많이 들어 있다. 한 예로 귀신이라는 단어를 들 수 있다. ‘우리말 큰 사전’은 귀신을 가리켜 ‘사람이 죽은 뒤의 녀’⁵⁵⁾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 중국 등에 편만한 이교도 사상으로서 성경은 결코 이런 개념을 수용하지 않는다. 바른 본문에서 바른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번역하여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읽혀 온 킹제임스 성경은 정관사 ‘the’가 붙은 마귀 즉 유일한 사탄 마귀와 그의 천사들인 마귀들이 있다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다음에서는 성경 번역자들의 본문 및 용어 선택이 신학과 교리에 미친 영향을 정리하였다.

1. 한 하나님인가, 한 분 하나님인가?

● 삼위일체

삼위일체야말로 하나님의 속성 중 가장 특이한 것이며 사실 이 교리로 인해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다. 그런데 마땅히 삼위일체를 가르쳐야 할 성경이 여호와의 증인들의 믿음을 가르친다

54) 천주교 추기경인 마르티니(C. N. Martini)는 밀라노의 주교이며 교황 성경 연구소에서 신약성경 본문 비평을 가르치는 교수이고 1967년부터 연합성서공회의 그리스어 신약성경 편집자 중 하나로 일했다.

면 그 결과가 어떨 것인가?

개역: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역번역: God is one person. 딤후2:5)

흠정역: 한 하나님께서 계시니라(영어 KJV: There is one God).

개역성경처럼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면 여호와와 증인들 주장대로 하나님은 한 분 즉 아버지 하나님만 있게 된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결코 한 분이 아니며 아버지, 아들, 성령의 뚜렷한 세 분으로 존재하시되 이 세 분이 하나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리야말로 너무 중요한 것으로 이것이 무너지면 기독교의 근간이 무너지게 된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분명한 말씀을 주셨다.

흠정역: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요일5:7).

그런데 개역성경은 알렉산드리아 철학을 따라 요한일서 5장 7절에서 이 부분을 삭제했다.

개역: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인가?

삼위일체 문제는 참으로 중요한 것으로 한국에서도 이로 인해 많은 이단들이 생겨났다. 특별히 한국에서는 양태론을 주장하는 이들이 많으며 심지어 복음적인 교단의 목사나 지도자들도 이런 이론을 가르치고 있다. 예를 들어 누가 삼위일체를 설명하면서 “나는 아이들에게는 아버지요 아내에게는 남편이요 성도들에게는 목사이다.”라고 말하면 이것이 곧 양태론이다. 또는 “물은 얼음도 되고 액체도 되고 수증기도 된다.”는 주장 역시 양태론에 근접한 진술이다. 이렇듯 양태론의 핵심은 한 하나님이 아버지도 되고 아들도 되고 성령님도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것을 분명하게 이단 교리라고 말한다. 한국에는 양태론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여럿 있는데 그중에 한 파는 여기서 더 나아가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이고 성령님의 이름이 예수라고 주장하며 그래서 침례를 줄 때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으로 준다.”고 한다. 이런 이론이 생기게 된 것은 전적으로 개역성경 때문이다. 이들은 요한복음 17장 11절을 근거로 이런 엉터리 주장을 한다.

개역: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개역성경에는 분명하게 예수라는 이름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므로 그들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들이 성경대로 그렇게 믿는다고 주장해도 도저히 반박할 수 없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은 이와 전혀 다르다.

흠정역: 이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흠정역 성경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키사”로 되어 있다. 즉 개역성경에는 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을 아들에게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반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들을 주신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성경이 다르면 교리가 변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개역성경의 근간이 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사본들이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NIV 등도 개역성경과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임을 보여 주며 그 결과 예수 유일주의 같은 이단 교리가 발붙일 틈을 주고 있다.

NIV: I will remain in the world no longer, but they are still in the world, and I am coming to you. Holy Father, protect them by the power of your name--the name you gave me--so that they may be one as we are one.

이제 성경적 삼위일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뚜렷이 구분되는 서로 다른 세 인격체 즉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한 하나님으로서 이 세 인격체 중 하나가 없으면 한 하나님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시간을 생각해 보자. 시간은 반드시 과거, 현재, 미래가 있으며 각각이 다 시간이고 이 셋 중 하나가 없으면 더 이상 시간이 아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체는 공간을 차지하면서 반드시 길이(x), 너비(y), 높이(z)를 가지고 있으며 이 중 하나가 없으면 더 이상 물체가 아니다. 아무리 얇은 것도, 작은 것도 반드시 x, y, z 세 방향의 크기를 가지며 이로써 그 물질이(혹은 공간이) 구성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삼위일체의 증거들을 우주에 많이 만들어 두셨다.

● 하나님을 삭제한 구절들

한편 개역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삭제했다. 다음은 신약성경에서 하나님을 삭제한 몇 예를 보여 준다.

흠정역: 그들이 꿈에 하나님으로부터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마2:12)

개역: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a)

흠정역: 오직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마6:33).

개역: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b)

흠정역: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마21:12)

개역: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c)

흠정역: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눅4:4).

개역: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d)

흠정역: 이들은 다 풍족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헌물로 넣었거니와 그 과부는 빈궁한 가운데서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눅21:4).

개역: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e)

흠정역: 능력 있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의 권능으로 이루신 그 일들 외에는 그 어느 것도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로써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다니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만히 선포하였노라(롬15:19).

개역: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f)

흠정역: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나를 구별하시고 자신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선(갈1:15)

개역: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g)

흠정역: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가 없이 위대하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딤후3:16)

개역: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며,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h)

흠정역: 그들의 입에서 교활함을 찾을 수 없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왕좌 앞에서 잘못이 없도다(계14:5).

개역: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ⁱ⁾

흠정역: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리라(계21:4).

개역: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j)

(d) 용례에서 볼 수 있듯이 개역성경은 대부분의 현대 역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삭제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그 이유는 번역의 근간이 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사본들이 사람들의 전통을 교리로 삼으려는 자들에 의해 번개되었기 때문이다.

(h) 용례에서 우리는 개역성경이 ‘하나님’(God)께서 육체 안에 오셨음을 보여 주는 성육신 교리마저 부인하려 함을 볼 수 있다(딤후3:16).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가장 강하게 증명하는 구절로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을 인용한다.⁵⁵⁾ 도대체 개역성경의 ‘그’(he)는 누구란 말인가?

디모데전서 3장 16절을 포함하고 있는 300여 개의 그리스어 사본 중에서 오직 다섯 개의 사본 - 9, 12, 13세기의 후대 사본 - 만이 ‘하나님’(God)을 삭제하고 있다. 시내 사본 등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God’으로 혹은 ‘who’로 추측할 수 있도록 번개되었다. 한편 주후 265년경의 알렉산드리아의 디오니시우스 등과 같은 초기의 증인들도 이 구절에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음을 지지한다. 이와 더불어 주후 110년의 이그나티우스 등도 이 구절에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주후 400년 이전에는 배교자요 이단인 오리겐만이 여기서 ‘하나님’을 삭제했다.

한편 이탈리아의 디오다티 성경, 스페인의 발레라 성경, 포르투갈의 알메이다 성경, 루터의 독일어 성경 등 세계 전역에서 사용되어온 역본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개역성경에서 ‘하나님’이 빠진 것은 1881년의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수정 그리스어 본문 - 이것은 연합성서공회가 발행하는 그리스어 본문의 근간이 되는 본문이다 - 에서 이 단어를 삭제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삭제는 압도적인 사본들의 증거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1881년 영국 성경 개정 위원회의 교리적 입장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위원회에는 스미스(V. Smith)와 썬이어(J. H. Thayer)라는 이름의 유니테리언 교도⁵⁶⁾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의 영향으로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삭제되었다. 다음은 이들의 증언이다.

성경 개정자들은 - 스미스와 썬이어 - 고대 사본들 중에서 이 구절에 ‘하나님’이라고 기록된 사본들을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단지 겸손한 선생에 불과하던 예수를

55)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Section 8, par. 2

56) 유니테리언주의(Unitarianism): 이들은 하나님이 한 위(位)로만 존재한다는 견해를 갖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신성과 삼위일체 교리를 부인한다. 하나님의 단일성과 예수의 인성에 대한 신학적 기반은 2~3세기의 단일신론과 아리우스 및 그 추종자들(아리우스파)의 가르침에서 발견된다(브리태니커 백과사전).

육신으로 나타난 하나님으로 바라보려 했던 초기 기독교 시대의 경향이 확대됨에 따라 자연스레 파생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단 교리를 수용한 켄이어는 지금도 대부분의 신학 대학에서 그리스어 시간에 참고 문헌으로 많이 사용하는 「켄이어의 그리스어 어휘사전」(*Thayer's Greek Lexicon*)의 저자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신학생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이런 이단 교도가 지은 사전을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영국에서는 이런 유니테리언들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심지어 성경 개정 위원회와 성서 교회에도 이들이 침입하여 성경을 변개시키는 일이 발생하자 더 이상 이것을 방관할 수 없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뜻있는 사람들이 트리니테리언 성경공회⁵⁷⁾를 조직하여 유니테리언들에 의해 훼손되지 않은 킹제임스 성경을 보급하고 있다. 이 정도로 이단의 활동은 무섭고 집요하다. 유명세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면 속기 쉽다. 그의 사상이 어떠한가를 먼저 살펴보고 그가 이단 사상을 지녔으면 사도 요한의 가르침처럼 단호히 인사도 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이 교리를 가지지 아니한 채 너희에게 오거든 그를 너희 집에 받아들이지 말고 그에게 축복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축복 인사를 하는 자는 그의 악한 행위들에 참여하는 자니라(요이10-11).

● 거룩한 성경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가장 근본적인 속성은 거룩함이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거룩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독자는 거룩한 성경을 가지고 있는가?

〈‘거룩한’(holy)을 삭제한 사례들〉

개역성경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모든 천사	마25:31	모든 거룩한 천사
모든 형제	살전5:27	모든 거룩한 형제
사람들	벧후1:21	거룩한 사람들
사도들과 선지자들	계18:20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
선지자들	계22:6	거룩한 대언자들
성령	마12:31	성령님
성령	요7:39	성령님
성령	행6:3	성령님
성령	행8:18	성령님
성령	고전2:13	성령님
개역성경의 ‘성령’은 원래 ‘영’(Spirit)인데 임의로 ‘성’을 넣은 것이고 흠정역의 ‘성령님’(Holy Ghost)은 원래 ‘holy’가 있으므로 그대로 번역한 것임.		

57) Trinitarian Bible Society: 웹사이트는 <http://www.trinitarianbiblesociety.org>이다.

2. 독생하신 아들인가, 독생하신 하나님인가?

● 그리스도는 창조된 신인가?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이분을 제대로 알 때에야 비로소 올바른 구원받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개역: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요1:18)

흠정역: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

여기서 ‘독생하다’는 말은 영어로 ‘only begotten’이며 이는 ‘유일하게 낳은’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개역성경은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유일하게 낳은 하나님’임을 보여 주며 이로써 또 다시 ‘예수님은 창조된 하나님’이라는 여호와와 증인들 교리를 지지한다.

성경은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하는데(요일2:22) 그렇다면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아들’(Son)을 제거해 버린 개역성경과 다른 현대 역본들은 성경의 증거에 따라 적그리스도이다. 실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와 같이 영존하시는 분임을 믿고 있다.

그리스도와 관련된 ‘나신’(begotten)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처음 소개되었다.

흠정역: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1:14).

KJV: And the Word was made flesh, and dwelt among us, (and we beheld his glory, the glory as of the only begotten of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

그러나 매우 유감스럽게도 요한복음 1장 18절은 원래의 문맥에서 변개되어 지나간 역사 속에서 이들의 발이 되고 말았다. 가장 먼저 이 일을 시작한 자들은 영지주의자들이었다.

종교와 윤리학 사전은 요한복음을 가리켜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대항하는 근본적인 반론’이라고 칭하고 있다.⁵⁸⁾ 결과적으로 역사는 발렌티누스라는 이집트의 영지주의자가 요한복음의 ‘독생하신 즉 유일하게 나신 아들’ 즉 ‘독생자’를 ‘유일하게 나신(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변개시킴으로써 요한의 일격을 봉쇄하려 했음을 보여 준다. 발렌티누스는 파피루스 72와 66 같은 것에도 영향을 주어 자신이 주장하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개념을 사람들이 수용하게 했다.

이러한 투쟁은 4세기까지 지속되어 오리겐의 학생인 아리우스에게 전해 내려왔고 그는 ‘유일하게 나신 아들’ 즉 독생자를 신조로 삼는 아타나시우스 등과 싸워 예수님을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사실 아리우스는 예수님을 ‘하나의 신’으로, ‘창세 전에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자’로 여겼다. 이러한 아리우스 주의가 대중에게 지지를 얻자 아리우스 주의를 내심 추종하던 유세비우스는 주후 325년에 ‘예수가 모든 시대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사 모든 창조물 중 처음이 되신 분’이라고 콘스탄틴의 교회 칙령에다 첨가했다.

아리우스 주의의 영향이 점점 더 강성해짐에 따라 주후 330년에 콘스탄틴은 소극적 아리우스 주의자였던 가이사라의 유세비우스를 아리우스 주의 신봉자인 니코데미아의 유세비우스로 대체시켰다. 그는 또한 주후 335년에 아타나시우스를 추방시켰는데 그 이유는 그가 ‘유일하게 나신 아들’을 강력하게 옹호했기 때문이었다. 콘스탄틴이 바티칸 사본과 시네 사본을 만들도록 명령한 것도 바로 이런 분위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요한복음 1장 19절을 ‘유일하게 나신

58) *The Encyclopedia of Religion and Ethics*, p. 240.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분명히 정치적 목적을 띤 것이었다.

사실 '독생자' 즉 '유일하게 나신 아들'이라는 용어는 대다수의 사본에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요한복음 1장 18절에 대해 현존하는 기록 중 가장 오래된 기록인 주후 180년의 터툴리안의 기록도 이 용어를 증거하고 있다. 심지어 연합성서공회(UBS)의 그리스어 신약성경 편집자인 위크렌도 이 점을 인정하고 있다.

요한복음의 저자가 '유일하게 나신 하나님'이라고 기록했다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많으며 이것은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전통 안에서 발견되는 초보적인 실수로 필사 시에 이루어진 실수일 것이다.⁵⁹⁾

그러나 연합성서공회가 발행하는 그리스어 신약성경의 비평 장치는 시내 사본, 바티칸 사본, 클레멘트, 오리겐, 아리우스 등을 동원해 가면서 비록 이 증거들이 교리적으로 비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유일하게 나신 하나님'이 옳다고 말한다.

이런 것을 통해 예상할 수 있듯이 이처럼 '창조된 하나님'은 개역성경을 비롯한 현대 역본들의 여러 구절에서 발견된다.

흠정역: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유다의 수천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아오리라. 그의 나아감은(whose goings forth) 옛적부터 있었으며 영원부터 있었느니라(미5:2).

개역: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whose origins) 상고에, 태초에니라

우리 주 예수님에게는 기원이 없다. 오직 창조물에게만 근본이 있으며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므로 근본이 없다.

● 낳다(beget)의 의미

한국에서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은 아버지가 '유일하게 낳은 아들'이므로 과거의 언젠가 아버지가 물리적으로 아들을 낳은 시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만일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삼위일체가 성립이 안 되며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의 창조물이 된다. 물론 성령님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 그러므로 이런 혼동을 피하기 위해 '낳다'(beget)라는 단어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리말에서는 'beget'을 '낳다'로 생각하기 쉽지만 원래 'beget'은 'get'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I got the book." 혹은 "I got the cold."라는 말은 "내가 책을 손에 넣었다", "감기 들렸다"를 뜻한다. 그런데 누가 무엇을 손에 넣게 되면 그것과 관계를 맺게 된다. 그러므로 'get'의 원래 의미는 '소유해서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마1:2) 등에서 '낳고'를 모두 'beget'으로 표현하고 있다.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삭을 낳지 않았다. 단지 이삭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미묘한 것을 모두 표현할 수 없으므로 'beget'을 어쩔 수 없이 '낳다'로 번역하였다. 다시 말해 'beget'은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 'get'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성경에서 '낳다'(beget)는 결코 사람이 사람을 낳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되며 더더욱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물리적으로 낳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옥스퍼드 영어사전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잘 표현해 주고 있다.

beget: applied to the relationship of the Father to the Son in the Trinity; also to the spiritual relationship of God to man in regeneration.

이 사건은 “삼위일체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특별한 관계를 나타낼 때 beget이라는 단어가 쓰이고 또 사람이 다시 태어날 때 하나님과 다시 태어난 사람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때도 쓰인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가리켜 ‘아버지의 독생자’ 즉 ‘유일하게 낳은 아들’이라고 할 때 이것은 곧 아버지와 유일하게 특별한 관계를 맺는 분이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므로 시편 2편 7절 말씀 즉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 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I have begotten thee).” 역시 아버지께서 어느 날 예수님을 물리적으로 낳았음을 말하지 않는다. 이 구절은 사도행전 13장 32-37절에서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설명하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사건을 가리킨다. 즉 아버지께서 그분을 부활시킴으로써 그분과 특별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로마서 1장 3-4절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분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
 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다시 말해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신성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스스로 존재하는 자’였으며
 인성으로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성령님에 의해 수태되어 마리아의 몸에서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신 분이시다.

● 그리스도의 신성 경시

다음에서 개역성경은 아주 교묘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리고 있다.

개역: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아들에 관하여는(about the Son) 하나님이며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히1:5, 8)

흠정역: 그분께서 어느 때에 천사를 가운데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 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느나?...아들에게는 이르시기를(unto the Son he saith), 오 하나님이며, 주의
 왕좌는 영원무궁하오며 주의 왕국의 홀은 의의 홀이니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오 하나님이며!” 하고 말 할 수
 있겠는가? 개역성경은 NIV 같은 현대 역본들과 보조를 같이하며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아들에 관한 것’으로 바꾸어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고 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흠정역: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므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빌2:5-6)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位格)이므로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사실을 -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므로 - 도둑질하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한다.
 다시 말해 이것은 그분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자신이 동등함을 당연히 여기셨음을 뜻한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이것을 얼버무려 무슨 뜻인지 잘 알 수 없게 만들었으며 잘못 보면 마치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게 만들었다.

개역: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는 ‘무소부제’ 즉 어느 곳이나 계신다는 것이다. 사람 중에서 무소부제
 를 주장할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므로 무소부제하시며 그래서
 과감하게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다.

흠정역: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요3:13).

그러나 개역성경의 번역자들은 이런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무난하게 번역하고 있다.

개역: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핵심 구절은 ‘하늘에 있는’이며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무소부재를 증명해 주는 단서가 된다. 이 모든 변개의 원인은 불신이다. 믿지 못하면 삭제하는 것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사본을 필사한 서기관들의 관습이었다.

● 그리스도를 부인함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때에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 안에 거하며 그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라고 명확히 선언하고 있다(요일2:22).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그리스도를 개역성경은 여러 곳에서 삭제했으며 다음은 구체적인 예를 보여 준다.

흠정역: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불리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한 분 곧 그리스도이니 너희는 다 형제니라(마23:8).

개역: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a)

흠정역: 마귀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나가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 니이다, 하매...(눅4:41)

개역: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b)

흠정역: 이는 우리가 직접 그분의 말을 들었고 이분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줄 알기 때문이라, 하였더라(요4:42).

개역: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앎이니라...^(c)

흠정역: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하매(요6:69).

개역: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삽나이다^(d)

흠정역: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그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롬1:16).

개역: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e)

흠정역: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이다. 아멘(롬16:20).

개역: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이다^(f)

흠정역: 그런즉 나의 보상이 무엇이냐? 진실로 내가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값없이 선포하고 이로써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권리를 남용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로다(고전 9:18).

개역: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g)

흠정역: 영원무궁토록 찬송 받으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내가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고후11:31).

개역: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h)

흠정역: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을 사백삼십 년 뒤에 생긴 율법이 취소하지 못하며...(갈3:17)

개역: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사백 삼십년 후에 생긴 율법이...(i)

흠정역: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3).

개역: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j)

흠정역: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살전2:19)

개역: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k)

흠정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살후1:8)

개역: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l)

흠정역: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복음 선포자와 사도로 임명을 받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하지 아니하노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이방인들의 교사가 되었노라(딤후 2:7).

개역: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m)

(e), (g) 용례에서 보듯이 우리가 전하는 것은 단순히 복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요약해 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고전 15:3-4)

(i) 용례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된 것임을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다. (j) 용례도 매우 중요하다. 킹제임스 성경은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주체가 그리스도임을 분명히 보여 주지만 개역성경은 그냥 불특정 인물이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 인물이 누구인가에 따라 본문의 내용이 달라지지 않겠는가? 킹제임스 성경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일에서도 개역성경보다 훨씬 더 낫다.

● 그리스도의 주(Lord) 되심 부인

신약성경에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가리켜 ‘주’(Lord)라고 할 때 이것은 그분이 곧 구약성경의 ‘주’ 곧 만물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 예수님이 ‘주’라는 것을 삭제하여 그분이 마땅히 취하셔야 할 영광과 존귀를 찬탈하고 있다. 다음은 ‘주’를 삭제한 구체적인 예이다.

함정역: 그 아이의 아버지가 곧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소서, 하더라(막9:24).

개역: 곧 그 아이의 아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a)

함정역: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해 주기 원하느냐? 하시니 그 눈먼 사람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내가 시력을 받게 해 주옵소서, 하매(막10:51)

개역: ...소경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b)

함정역: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매(눅23:42)

개역: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c)

함정역: 그가 떨며 심히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하시니(행9:6)

개역: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d)

함정역: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후4:10).

개역: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e)

함정역: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주 예수님의 자국들을 지니고 있느니라(갈6:17).

개역: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f)

함정역: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딤후4:1)

개역: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g)

함정역: 이 일들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많은 사람들의 큰 음성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계19:1).

개역: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h)

마귀 들린 아이의 아버지도, 눈먼 사람도, 십자가에 달리 강도도, 구원받기 전의 사울도 다 예수님을 ‘주’(Lord)로 인정하고 그분을 구원자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선생님’ 등으로 바꾸는 것은 주 예수님의 신성을 격하시키는 것이다.

● 임마누엘을 부인함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기독교인들이 참으로 많이 사용하는 말 중 하나이다. 이사야서에서 처음 언급된 이 말(사7:14; 8:8)은 성경에 단 세 번 나오며 마태복음에서 성도 마태가 이것을 인용하고 있다(마1:23).

개역: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 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40 개역성경분석

개역성경을 따르면 임마누엘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없으며 단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평범한 약속만을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도로 이 구절을 주지 아니하셨다.

흠정역: 보라, 처녀가 아이를 배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비슷하게 보이지만 킹제임스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즉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신성을 가장 강력하게 증언하는 말이다. 그러나 개역성경은 이것을 전혀 달리 번역했으므로 이런 구절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기 어렵다.

● 그리스도의 성육신 부인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라고 말했다(요일4:3). 여기서 밑줄 친 부분은 참으로 적그리스도를 시험하기 위한 중요한 시금석이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다.

개역: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개역성경은 ‘그리스도’와 ‘육신 안에 오셨다’는 구절을 삭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으며 따라서 사도 요한이 말한 ‘적그리스도의 영’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속이는 자들에게 동조하는 자들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속임수로 인해 고통을 자초할 것이다.

속이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자가 속이는 자요 적그리스도니라. 너희 자신을 살필지니 이로써 우리가 이론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아니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죄를 지으며 그리스도의 교리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이 있느니라. 어떤 사람이 이 교리를 가지지 아니한 채 너희에게 오거든 그를 너희 집에 받아들이지 말고 그에게 축복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축복 인사를 하는 자는 그의 악한 행위들에 참여하는 자니라(요이7-11).

지금까지 우리는 개역성경이 무려 12번 이상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지워 버린 것을 살펴보았는데 이제 개역성경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리스도께서 육체에 오신 것’도 삭제하고 있다.

●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 부인

한편 알렉산드리아의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창조된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분의 신성을 공격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탄생마저도 공격한다.

개역: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눅2:33)

흠정역: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는 그가 아이에 관하여 말한 그것들로 인해 놀라워하더라.

요셉은 결코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다. 그가 예수님의 아버지라면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의 피를 받고 태어난 죄인이 되고 만다.

● 그리스도의 신성 부인

또한 마귀의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려고 무척이나 애쓴다.

개역: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마5:22)

흠정역: 누구든지 아무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서기관들에게 노하셨는데 만일 이런 구절에서 '아무 까닭 없이'가 빠진다면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될까?

● 그리스도의 피 부인

또한 개역성경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예수님의 피를 무시한다.

개역: ...우리가 구속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골1:14)

흠정역: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 그리스도를 격하시킴

마태복음 4장 10절은 경배의 대상이 오직 한 하나님뿐임을 명백히 보여 준다.

흠정역: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바, 너는 주 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마4:10).

이런 이유 때문에 베드로는 고넬료가 자기에게 경배하러 하자 단호히 거절했고 바울 역시 이교도들이 자기에게 경배하러 하자 즉각 거절했으며 천사도 요한이 경배하러 하자 단호히 거절했다.

흠정역: 그때에 그(천사)가 내(요한)게 이르기를, 나는 네 동료 중이요, 대언자들인 네 형제들과 이 책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들 가운데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계22:9).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므로 언제든지 사람들에게서 경배를 받으셨다.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닌가?

흠정역: 보라, 한 나병 환자가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매(마8:2)

그런데 개역성경은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대신 절하게 한다.

개역: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

이곳 외에도 예수님께 경배한다는 구절이 나오면 개역성경은 대개 다 절하는 것으로 바꾸었다(마9:18; 14:33; 15:25; 18:26; 20:20 등). 그런데 흥미 있게 계시록 13장 4절에서 개역성경은 동일한 그리스어를 '경배하다'로 바르게 번역하고 있다.

개역: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계13:4)

예수님께는 절하게 하고 짐승에게는 경배하게 하는 번역이 과연 논리적으로 옳은가? 이것이 바로 성경 부패 뒤에 숨겨진 알렉산드리아 철학의 핵심 내용이다.

●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은 인류 역사의 클라이맥스를 장식할 중요 사건이며 그리스도인들의 최대의

소망이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잘못 가르치고 있다.

흠정역: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 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마25:13).

개역: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흠정역: 이르되, 오 주 하나님 전능자여,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주께 우리가 감사를 드림은 주께서 친히 주의 큰 권능을 취하시고 통치하셨기 때문이니이다(계 11:17).

개역: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 노릇 하시도다

예수님의 재림 전에는 많은 거짓 그리스도 즉 '뉴에이지 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성경은 말한다. 이들은 다 자기들이 그리스도라고 말할 것이다. 힌두교에서 도를 닦아 부처가 되었다고 주장하는 구루(선생)들과 짐 존스 같이 집단 자살을 일으킨 이단 교주들이 다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부른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이것을 감추려고 노력한다.

개역: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막13:5-6)

이제 도대체 무슨 말인가? 개역성경과 마찬가지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사본에서 나온 NIV 등도 이와 똑같이 "I am he."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은 분명하게 거짓 그리스도를 보여 주고 있다.

흠정역: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3. 하나님의 영인가, 하나님의 신인가?

구약시대에는 성령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 '하나님의 영'(the Spirit of God) 혹은 '주의 영'(the Spirit of the LORD) 등에 있는 성령님(the Spirit)은 구약성경에 28회나 나오지만 개역성경은 이것을 다 '신'(god)으로 번역하여 구약에서 성령님을 제거했다.

개역: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창1:2)

흠정역: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하나님의 신을 다시 영어로 번역하면 'god of God'이 되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번역된 성경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 아마 유니테리언 교도들만이 이런 번역을 취할 것이다. 구약의 'the Spirit'이 바로 신약의 'the Spirit' 즉 동일한 성령님이라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개역성경의 번역자들이 기독교를 접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자기를 속에서 형성된 그 당시의 보편적 사고 체계에 따라 소위 신이 내린다는 강신(降神)의 무속신앙 개념으로 성경의 '성령님'을 이해하였기 때문이다.

개역: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므로(삼상10:10)

개역: 여호와와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삿6:34)

따라서 과거에 여러 사람들이 사용하던 ‘성신’은 틀리며 ‘성령’이 맞는다. 한편 신약성경에서 개역성경은 성령에 관한 한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개역: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롬8:9)

개역: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빌1:19)

이런 구절은 다 ‘the Spirit of Christ’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스도의 영’으로 통일되어야 한다. 이런 번역자들을 향해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흠정역: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하므로 잘못하느니라(마 22:29).

4. 주인가, 여호와인가?

한국 성도들에게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매우 친숙한 단어이다. 이 단어는 ‘4자음문자’(Tetragrammaton)라고 널리 알려진 히브리어 ‘JHVH’에서 왔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의 종살이를 끝내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처음으로 이 이름을 계시해 주셨다(출3:13-16; 6:2-8). 또한 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자신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엄중히 명령하셨다(출20:7).

흠정역: 너는 주 네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명령을 매우 두렵게 생각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에서 그분의 두려운 이름 ‘JHVH’를 대할 때마다 눈으로 그 이름을 확인하고 정작 읽을 때는 주(主)를 의미하는 ‘아도나이’(Adonai)로 읽은 것으로 전해진다. 그래서 영어의 ‘Jehovah’는 히브리어 4자음문자 ‘JHVH’에 ‘아도나이’의 모음을 넣어 만든 ‘JaHoVaH’를 음역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그들의 영향을 받은 현대주의자들은 ‘여호와’가 아니라 ‘야훼’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전통 마소라 본문은 모음 부호를 통해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임을 명백하게 보여 준다. 한편 개역성경의 ‘여호와’는 영어의 ‘Jehovah’를 우리말로 음역한 것이다. 사실 대한성서공회 역시 이 점을 인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약의 마소라 본문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네 글자를 ‘주’(아도나이)라 표기했고 신약의 사도들이 신약을 기록할 때도 그 이름을 ‘주’(큐리오스)라고 기록했으며 루터의 독일어 성경도 이 이름을 ‘주’(헤르)로 그리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도 이 이름을 ‘주’(로드)라 번역했고 개역성경 신약도 이 거룩한 이름 네 글자를 ‘주’라고 번역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점을 잘 알고 있는 대한성서공회가 개역성경의 구약을 번역함에 있어 신약을 번역할 때와는 달리 주님의 거룩한 이름 ‘여호와’를 그대로 음역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약을 읽으면서 무려 6,400회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취하게 해 놓았다는 점이다. 그 결과 많은 성도들이 마땅히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해야 할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아무 때나 아무 의미 없이 취함으로써 그 이름의 위엄과 존엄성을 떨어뜨리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기도할 때 심각하게 나타난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주요 원인은 개역성경의 구약이 영어 성경 중 유일하게 ‘JHVH’를

‘주’(LORD, 전체 대문자)로 표기하지 않고 ‘여호와’로 표기한 미국표준역(ASV, 1901)에 근거하여 번역되었기 때문이다. 이 미국표준역은 여호와와 증인들의 신세계역과 마찬가지로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로마 카톨릭 소수본문에서 나온 것으로 20세기 초반에 여호와와 증인들이 자기들의 교리를 확증하기 위해 가장 선호하고 애용한 성경이다. 참고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자 그 이후에 나온 신미국표준역(NASB, 1971)은 급히 이것을 수정하고 다시 원래의 성경 전통으로 돌아가 ‘여호와’ 대신 ‘주’(LORD)를 쓰고 있다. 참고로 NIV, NKJV, RSV 등 대부분의 영어 성경과 주요 유럽어 성경이 모두 ‘여호와’를 ‘주’로 번역하고 있다. 다음은 구체적인 예를 보여 준다.

흠정역: 땅과 하늘들이 창조된 때 곧 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만들고...(창2:4)

개역: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KJV: These are the generations of the heavens and of the earth when they were created, in the day that the LORD God made the earth and the heavens,

ASV: These are the generations of the heavens and of the earth when they were created, in the day that Jehovah God made earth and heaven.

개역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에서 ‘LORD’로 번역한 단어(스트롱 번호 3068)를 다 여호와로 번역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단어의 변형인 ‘여호비’(스트롱 번호 3069)도 대개 여호와로 번역했는데 이것 역시 미국표준역(ASV)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이 단어는 특히 예레미야서와 에스겔서 등에 많이 나오며 킹제임스 성경은 이것을 다 대문자 ‘GOD’로 표현해서 사람이 무의식중이라도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할 수 없게 만들었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다음과 같다.

흠정역: 그들은 뻔뻔하고 마음이 뻣뻣한 자손들이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하라(겔2:4).

개역: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박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KJV: For they are impudent children and stiffhearted. I do send thee unto them; and thou shalt say unto them, Thus saith the Lord GOD.

ASV: And the children are impudent and stiffhearted: I do sent thee unto them; and thou shalt say unto them, Thus saith the Lord Jehovah(ASV).

유대인들은 이런 경우에 ‘여호비’를 ‘엘로힘’으로 읽었는데 그 이유는 ‘여호비’ 앞에 대개 ‘주’를 의미하는 ‘아도나이’가 오므로 ‘여호비’를 다시 ‘아도나이’로 읽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유대인들의 전통대로 ‘여호비’를 피하기 위하여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은 조심스레 이것을 대문자 ‘GOD’로 표현했는데 이렇게 표현된 ‘GOD’은 성경에 309번 나온다. 이런 것을 통해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성경을 바르게 번역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으며 그래서 유대인들의 구약성경이 주는 의미와 맛을 표현하려 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의도가 ‘여호와’를 ‘주’로 번역하라는 것은 다음의 용례를 통해 명백히 드러난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주’(그리스어 큐리오스)라고 번역해야 함을 친히 보여 주신다.

흠정역: 주(LORD, 그리스어 큐리오스)께서 내 주(Lord, 그리스어 큐리오스)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마22:44)

개역: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네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이 구절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한 것이다.

흠정역: 주(LORD, 히브리어 여호와)께서 내 주(Lord, 히브리어 아도나이)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시 110:1).

개역: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리스말로 신약성경을 주시면서 구약성경의 '여호와'를 '주'로 번역하라고 이런 용례를 남기셨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호와'를 '큐리오스' 즉 '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그분께서는 '여호와'라는 자신의 신성한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이 구절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 중요한 구절로서 우리 주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구절인데 개역성경은 여기서 '여호와'를 '주'라 번역하지 않아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없게 했다. 또한 마태복음과 시편 구절을 동일하게 번역하지 않았고 또 '발받침'(footstool)을 그냥 '발'로 바꾸었으며 '원수들'이라는 복수를 '단수'로 바꾸었다. 이렇게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성경의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 문제는 또한 교리적으로도 중요한 차이를 가져온다. 구약의 '주'(LORD)를 '여호와'로 표현하면 성경의 중요한 개념 중 하나인 '주의 날' 즉 재림에 관한 개념이 변하게 된다. 다시 말해 동일한 날을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로 하고 신약에서는 '주의 날'로 하면 그것들이 동일한 날을 가리키고 있음을 독자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예로 사도행전 2장 20절을 살펴볼 수 있다.

흠정역: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개역: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것은 성도 누가가 요엘서 2장 31절을 인용한 것이다.

흠정역: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개역: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 같이 변하려니와

개역성경을 본문으로 한 관주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 2장 20절의 관주가 분명히 요엘서 2장 31절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서 보면 '주의 날'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로 되어 있으므로 독자는 이런 구절을 잘 이해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영어 성경에는 모두 '주의 날'로 되어 있으므로 관주가 제대로 관주 역할을 한다. 그래서 한국 성도들에게는 대언자 이사야의 글로부터 줄기차게 언급되고 있는 '크고 두려운 주의 날' 즉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하기 위한 '야곱의 고난의 때'(렘30:7)에 대한 개념이 없으며 따라서 교회의 환난 전 휴거와 우리

주님의 전천년 재림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다. 이런 개념이 제대로 있으면 행2:20, 살전5:2, 벧후3:10 등에 나오는 '주의 날'이 유대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구약의 '주의 날' 즉 다니엘의 70 이레의 마지막 한 이레인 7년 환난기를 가리킴을 금방 알 수 있고 따라서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다는 자기 학대의 믿음과 행위 중시 믿음에서 떠나 복된 소망인 환난 전 휴거를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기록했다. 여기서 그가 언급한 주는 분명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런데 사실 이 구절은 구약의 대언자 요엘이 기록한 말씀과 같다.

흠정역: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욥2:32)

개역: 누구든지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를 통해 바울 사도는 신약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곧 구약의 주 하나님임을 보여 주고자 했다. 그런데 요엘서의 '주의 이름'을 개역성경처럼 '여호와와 이름'이라고 하면 성경의 일관성이 깨지면서 성경남께서 요엘과 바울 두 사람의 기록을 통해 주의 깊게 의도하셨던 바를 독자들이 전혀 파악할 수 없게 된다.

최근에 출간된 표준새번역은 개역성경과는 달리 전 세계 대부분의 성경처럼 바른 전통을 따라 구약에서 'JHVH'를 '주'로 옮겼는데 이는 참으로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5. 루시퍼인가, 계명성인가?

21세기 뉴에이지 시대에 하나님을 내버리고 인본주의를 삶의 모토로 삼은 새로운 세대는 새로운 신 마귀에게 새로운 일거리가 생겼다고 흥얼거리며 노래를 부르고 있다.

흠정역: 그들이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렸으니 곧 자기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신들, 새로이 일어난 새로운 신들에게 드렸도다(신32:17).

사탄은 이 세대 속으로 침투하여 많은 영혼들을 제물로 삼기 위해 온갖 힘을 쏟으면서 이제는 노래를 통해 '메탈 음악 시장'으로부터 평범한 '중류 음악 시장'에 이르기까지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손아귀에 넣었고 심지어 CCM이라는 신복음사가 장르를 만들어 마귀를 찬양하는 리듬과 가사를 유행시키고 있다. 이제 반(反) 문화의 창시자들이 최근에 나온 새 역본들 안에까지 신비주의 지하 조직의 철학들을 집어넣음으로써 반(反) 문화의 대중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 결과 우리 눈앞에서 기독교회의 전체적인 배교가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 영향은 우레와 같이 엄청나게 크다.

흠정역: ¹²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네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¹³네가 네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좌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옆면들에 있는 회초의 산 위에 앉으리라. ¹⁴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¹⁵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곧 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내려가리다. ¹⁶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너에 대해 깊이 생각하여 이르기를, 이 자는 땅을 떨게 하고 왕국들을 흔들며 ¹⁷세상을 광야같이 만들고 거기의 도시들을 멸망시키며 자기 죄수들의 집을 열지 아니한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사14:12-17).

루시퍼의 자만에 찬 외침 즉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는 외침 속에는 단어 단어마다 그의 불만이 무겁게 깔려 있다. '기름 부음 받은 그룹'(Cherub)인 루시퍼는 스스로

자신의 신분을 변경하기를 원했다. 그는 모든 창조물이 지극히 높으신 분이 아니라 자기에게 경배를 드리기를 갈망했다. 마태복음 4장 9절에 기록된 대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네가 내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이라고 말한 것을 보아도 그의 욕망이 경배 받는 것임이 확실하다. 그러나 계시록 13장 4절이 사람들이 용에게 경배했다고 기록하듯이 불행하게도 그의 야망은 곧 성취될 것이며 바로 그 환난기가 뉴에이지의 절정기가 될 것이다.

계시록 12장 9절은 ‘큰 용이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라고 분명히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그의 정체성을 밝히 보여 주고 있다. 21세기의 일반 대중이 사탄에 대해 느끼는 나쁜 이미지를 바꾸어 경배 받기에 합당한 좋은 이미지로 바꾸기 위해 대중 매체는 그럴듯한 선전을 동원하고 있다. 그 내용은 가히 놀랄 만한데 그 핵심은 그의 정체성을 바꾸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사야서 14장은 성경에 기록된 루시퍼에 대한 유일한 일대기로서 이곳이 야말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불법의 신비’(살후2:7)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우리는 12절에서 루시퍼가 하늘에 있음을 알 수 있고 15절에서 그가 지옥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하늘에서 지옥으로 가는 동안 그는 무려 다섯 번이나 “내가...하리니”(I will...)라고 외치면서 하나님과 갈게 되려는 욕망을 표출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외침 하나 하나는 루시퍼를 하늘에서 지옥으로 이끌고 가는 계단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성도들은 이 구절을 통해 마귀의 자만심의 본질이 무엇인지 바르게 볼 수 있다.

위의 성경 구절은 사탄의 종착지가 어디인지 확실히 보여 주므로 지금까지 사탄의 증오의 대상이자 저항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 구절들은 그의 오만(13-14절), 세상의 불행에 대한 그의 책임(17절) 그리고 그의 파멸(15-16절)을 한 점 의혹도 없이 적나라하게 드러내 주고 있다. 마귀의 일대기는 에스겔서 28장에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나 거기에서 그의 이름은 밝혀져 있지 않고 그는 다만 ‘기름 부음을 받은 그룹’이라고 언급되어 있다(겔28:14). 루시퍼의 야망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는 것’인데 이 구절은 그의 정체성을 훤히 드러내 줌으로써 그의 꿈을 산산조각 내고 있다. 사탄에게 아부하지 않는 정결한 말씀으로부터 ‘루시퍼’라는 단어가 확실히 제거되어 그를 ‘지극히 높은 자’로 만드는 말씀 속으로 삼입될 때까지 그가 자신의 이름 ‘루시퍼’에 대해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지나치게 순진한 발상이다. 사실상 이 묘한 속임수는 개역성경을 비롯한 현대 역본들에서 이미 완성되었고 오직 킹제임스 성경만이 부패되지 않은 채 말씀의 순수성을 유지하며 루시퍼의 일대기를 보여 주고 있다.

개역: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사14:12)

NIV: How you have fallen from heaven, O morning star, son of the dawn! You have been cast down to the earth, you who once laid low the nations!

현대 역본들은 한결같이 ‘루시퍼’란 이름을 제거했고 이로써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타락 전 사탄의 이름을 보여 주는 부분은 본문에서 삭제되어 성도들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 결과 ‘루시퍼’라는 단어는 이제 시인들과 신화 작가들의 영역으로 넘어가 버렸고 그는 더 이상 성경에서 유래되어 확인될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 신화적 인물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성경을 변개시킴으로써 루시퍼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에 관한 정확한 지식을 갖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가리켜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제 성경이 변개되었으므로 사탄은 자신이 원하는 어떠한 특성도 스스로 취할 수 있게 되었다.

개역성경을 비롯한 현대 역본들에 나타난 이 같은 변화는 히브리어 원문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고찰해 보면 ‘루시퍼’란 단어 대신 ‘계명성’ 혹은 ‘새벽별’(morning

star)을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누구나 쉽게 깨달아 알 수 있다. 이 구절의 히브리어는 'halel, ben, shachar'로서 이것을 정확히 번역하면 개역성경처럼 '계명성'이 아니라 킹제임스 성경처럼 '아침의 아들 루시퍼'가 된다. 그런데 NIV와 NASB 등의 새 역본들과 개역성경은 마치 이 구절이 히브리 원본에 'shachar, kokab, ben, shachar' 즉 '아침의 아들, 새벽별'이라고 쓰여 있는 것처럼 번역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별'(kokab)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으며 또 '아침' 혹은 '새벽'이란 단어도 개역성경을 비롯한 현대 역본들에 있듯이 두 번 나오지 않고 킹제임스 성경에 있듯이 한 번만 나온다.

개역성경이나 NIV의 역자들은 'kokab'(스트롱 번호 3556)이라는 히브리어를 다른 곳에서는 수십 번씩이나 '별'로 번역했으며(창1:16부터 나3:16까지 약 40번) '아침' 혹은 '새벽'이란 단어도 마찬가지로. 또한 개역성경의 편집자들은 '새벽별'(boger kokab)이 욥기 38장 7절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그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다.

흠정역: 어느 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
(욥38:7)

따라서 만일 하나님께서 '루시퍼'라는 단어를 '새벽별' 혹은 '계명성'으로 전달하고자 하셨다면 욥기에 나오는 동일한 단어를 이사야서에서도 반복해서 사용하셨을 것이다.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곳을 제외하고는 '루시퍼'란 단어가 나오지 않듯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halel'이란 단어 즉 '루시퍼'를 뜻하는 히브리 단어도 이곳 말고는 히브리어 구약성경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진정한 새벽별은 누구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역성경 번역자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사본과 역본을 따라 이사야서 14장에 등장하는 '루시퍼' 대신 '새벽별' 혹은 '계명성'을 삽입함으로써 예수님께 대한 가장 결정적인 신성모독을 범하고 말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후서 1장 19절, 계시록 22장 16절 등에서 '새벽별'이라 불린다.

흠정역: 나 예수는 내 천사를 보내어 교회들 안에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빛나는 새벽별이라, 하시더라(계22:16).

그러나 사탄은 서기관들을 이용해서 조용히 자리를 떠나 교활하게 무대 밖으로 빠져 나왔다. 그리고 그는 이사야서 1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의 대상 혹은 타락의 대상으로 만들으로써 '고소하는 자'(계12:10)라는 호칭에 걸맞게 행동하고 있다. 참고로 NASB 같은 현대 역본은 이사야서 14장 12절 옆에 "벤후1:19를 보라."는 관주를 붙임으로써 이 구절이 '루시퍼의 타락'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타락'을 지칭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았다.

현세대 신학자들의 변절과 배교가 있기 전에는 믿는 성도들이 모두 오직 그리스도만이 '새벽별'이요, '계명성'이요, '셋별'이라는 데 동의했다. 이미 오래 전에 재미슨(Robert Jamieson)은 그의 저서 '주석: 구약 비평과 설명'에서 뉴에이지 시대에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 놀이가 있을 것을 예고했다.

셋별: 진실로 그리스도께 속한 칭호로서 장차 적그리스도가 이 명칭을 사칭할 것으로 사료됨.

1913년도에 발행된 저 유명한 스펜스(H. D. M. Spence)의 '풀썬 주석' 이사야서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셋별(새벽별)이란 칭호는 참으로 그리스도의 칭호이지만 후에 적그리스도가 이것을 찬탈할 것이다. 그는 구약성경에 나오는 바빌론의 실체이며 신약성경의 신비 바빌론의 선두주자이다. 후에 사탄은 이 칭호를 마치 자신의 것으로 주장할 것인데... 그는 이방 세상 권세 바빌론에게 활기를 주고

있으며 현재는 배교의 길을 걷고 있는 교회를 부추기고 있고 결국에는 세속적인 적그리스도와 ... 그리고 그의 챔피언인 거짓 선지자를 선동하게 될 영이다.

사탄 마귀는 계시록12장에서 그 정체가 용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성경에는 용이 35회 등장하는데 개역성경은 용의 정체를 감추기 위해 여러 구절을 뱀(신32:33), 이리(욥30:29), 시랑(시44:19) 등으로 처리해 버렸다.

흠정역: 그들의 포도주는 용들의 독이요, 독사들의 지독한 독이라(신32:33).

개역: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사탄 마귀를 나타내는 '리워야단'(Leviathan, 스트롱 번호 3882)은 성경에 다섯 차례 나온다(욥41:1; 시74:14; 104:26; 사27:1에 두 차례). 그런데 개역성경은 이사야서를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그를 악어로 번역해서 그 뜻을 완전히 가려 버렸다.

흠정역: 내가 낚시 바늘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혹은 늘어뜨리는 줄로 그의 혀를 끌어낼 수 있겠느냐?(욥41:1)

개역: 내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뿔 수 있겠느냐

참고로 성경의 용(dragon)은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 상상하는 용과 다르다. 예를 들어 에스겔서 29장 3절의 용은 강 한 가운데 누워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고 계시록 12장의 용은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다. 다시 말해 성경의 용은 보통 우리가 '공룡'이라 하는 짐승과 비슷하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영어에서 용의 용례를 찾아봐야 한다. 영어에서 용은 공룡과 같은 큰 괴물을 지칭하는 데 쓰였다.

Dragon: a mythical monster, represented as a huge and terrible reptile, usually combining ophidian and crocodilian structure, with strong claws, like a beast or bird of prey, and a scaly skin; it is generally represented with wings, and sometimes as breathing out fire. The heraldic dragon combines reptilian and mammalian form with the addition of wings(옥스퍼드 영어사전).

우리가 공룡을 지칭할 때 쓰는 'dinosaur'라는 단어는 1841년에 처음으로 문헌에 나오며 그 전에는 그런 괴물을 모두 '용'으로 불렀다.

Dinosaur: A member of an extinct race of Mesozoic Saurian reptiles (group Dinosauria, typical genus Dinosaurus), some of which were of gigantic size; the remains point to an organism resembling in some respects that of birds, in others that of mammals(옥스퍼드 영어사전).

그래서 영국의 전래 동화 등에서 나오는 용은 대개 모습이 '공룡' 혹은 '공룡의 새끼'처럼 생겼다. 따라서 앞으로 성경에 나오는 '용'을 우리가 알고 있는 '공룡'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이다.

6. 천사인가, 사자인가?

천사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존재이다. 지금처럼 뉴에이지 사상이 득세할 때에는 특별히 천사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천사는 성경에 295회 나오는데 개역성경은 이 중 177회를 천사로, 67회를 사자(使者)로 번역했다. 천사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의 천사'(the angel of the LORD)인데 개역성경은 이것을 다 사자로 번역했다.

구약의 '주의 천사'는 다른 천사와 달리 특별한 경우에만 나타나는 중요한 인물이며 성육신 이전의 예수님으로 이해되고 있는데 이런 중요한 개념이 제대로 번역되지 않으면 교리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개역성경은 마귀의 천사들 역시 사자들로 번역하여 마치 마귀에게는 그를 추종하는 천사들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 놓았다. 그러나 소위 '배교의 결정판'이라 하는 NIV 등도 주의 천사와 마귀의 천사들을 제대로 번역했다.

개역: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마25:41)

흠정역: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뉴에이지는 아기 천사, 여자 천사 등을 가르치지만 성경의 천사는 모두 남자이며 아기 천사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천사를 다루는 부분의 'man' 혹은 'men'은 반드시 남자로 번역해야만 한다.

개역: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창19:5)

흠정역: 내게 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여기 나오는 '남자들'은 바로 천사들이며 소돔 사람들은 바로 이 남자들(천사들)과 성적 접촉을 갖고자 했다. 이에 대해 유다서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흠정역: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에 내주고 낯선 육체(strange flesh)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과 같으니라(유7).

소돔 사람들은 우리와는 다른 '낯선 육체'를 추구했다(물론 그들은 다 남성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개역성경은 여기서도 이상하게 번역을 하여 이런 것을 알 수 없게 만들었다.

개역: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과연 이런 번역을 가지고 천사들과의 성적 접촉을 찾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영어에서는 동성연애를 'sodomy', 동성연애자를 'sodomite'라 부른다.

끝으로 성경의 천사는 항상 젊은 남자로 나타나므로 사람이 알아보지 못한다.

흠정역: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히13:2).

7. 마귀인가, 귀신인가?

개역성경의 귀신은 어떤 존재인가? 소위 원한을 품고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할아버지 귀신, 할머니 귀신, 처녀 귀신인가?

개역: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고전 10:20)

귀신론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보면 무릎을 치지 않겠는가? 믿지 않은 사람들이 기일이 되면 상을 차려 놓고 조상귀신들을 불러오는 것이 참으로 이 구절과 잘 맞지 않는가! 과연 성경이 조상귀신을 가르친단 말인가?

흠정역: 그러나 내가 말하건대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희생물로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께 희생물로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리나니

개역성경이 '제사하는 것'이라 번역한 단어는 'sacrifice'인데 이 단어는 우리 조상들이

조상귀신을 부르는 제사와는 전혀 다른 개념의 용어로 '희생물을 드림'을 뜻한다. 그래서 구약의 소제, 화목제 등도 제사가 아니라 '음식 헌물', '화평 헌물'을 드린다고 해야 맞으며 모든 영어 성경이 '번제 헌물'(burnt offering) 혹은 '번제 희생물'(burnt sacrifice)이라 번역하고 있다. 다시 말해 우리 조상들이 무지할 때에 조상신을 섬기려고 드린 제사는 성경에서의 희생 헌물을 드린다는 개념과는 전혀 다르다.

성경은 죽은 자가 가는 곳이 천국 아니면 지옥이고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구천이니 음부니 하는 허구의 장소는 없음을 분명히 보여 준다(누가복음 9, 16장 참조). 즉 죽은 사람의 넋인 귀신은 성경에 없다는 말이다.

웹스터 영어사전은 '마귀'와 '귀신'이라는 두 단어를 예리하게 구별하고 있다.

귀신(demon): 고대 이교도들의 신과 사람 사이의 중간 존재. 고대 사람들은 악한 귀신과 착한 귀신이 있어서 이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영향을 준다고 믿었고 그래서 귀신들을 숭배했으며 또한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이 귀신이 된다고 믿음(A spirit, or immaterial being, holding a middle place between men and the celestial deities of the Pagans. The ancients believed that there were good and evil demons, which had influence over the minds of men,...Hence demons became the objects of worship. It was supposed also that human spirits, after their departure from the body, became demons, and that the souls of virtuous men, if highly purified, were exalted from demons into gods).

마귀(devil): 1. 기독교 신학에서 악한 영 혹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난 타락한 천사들을 가리키며 또 이런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를 가리킴(In Christian theology, an evil spirit or being; a fallen angel, expelled from heaven for rebellion against God; the chief of the apostate angels).

사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지혜의 길로 이끌어 준 어떤 영적 존재인 '귀신'(demon)을 자신이 소유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그리스 사람들은 '귀신'이 '반신반인'이라고 생각했다. 성경적인 기독교와 유대교를 제외한 전 세계의 모든 종교는 성경이 '악한 영들'(evil spirits)이라고 부르는 존재를 존경과 위로를 받기에 합당한 '반신반인' 혹은 '귀신'이라고 믿는다. '그리스어 신약성경'을 들먹이는 사람들은 그리스어 '디아볼로스'(diabolos)와 '다이모니움'(daemonium)이 서로 다르며 전자는 사탄을 후자는 마귀들을 지칭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같이 두 개의 서로 다른 그리스어를 하나의 영어 단어로 번역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원본주의자들은 큰 낭패를 보게 된다. 그 이유는 NASB 같은 현대 역본들이 두 개의 서로 다른 히브리어 'shed'(스트롱 번호 7700)와 'sair'(스트롱 번호 8163)를 다 '귀신'(demon)으로 번역해 놓았기 때문이다(레17:7; 신32:17 등). 깨지기 쉬운 유리 집에 살고 있는 학자들은 "원어는 원래 이런 뜻이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원어의 뜻을 집어던지는 행위를 삼가야만 할 것이다. 우리는 결코 원어를 무시하지 않는다. 다만 학자인채 하며 이중 잣대를 사용하는 것을 반대한다.

도대체 다음과 같은 표현을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개역: 저희가 그 자녀로 사신에게 제사하였도다(시106:37)

여기의 '사신'은 무엇을 뜻하는가? 너무 쉬운 말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으므로 개역성경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킹제임스 성경은 얼마나 단순하고 정확한가?

흠정역: 참으로 그들이 자기 아들딸들을 마귀들에게 희생물로 바쳤으며

한편 개역성경은 시편 106편 37절에서 '사신'으로 번역된 동일한 히브리어(스트롱 번호 7700)를 신명기에서는 '마귀'라고 멋있게 번역하였다.

개역: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의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신32:17)

다만 아쉬운 것은 여기 나오는 마귀, 신 등이 모두 복수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흠정역: 그들이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지 아니하고 마귀들에게 드렸으니 곧 자기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너희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신들, 새로이 일어난 새로운 신들에게 드렸도다.

많은 신(gods)이 있고 유일한 하나님(God)이 있으며 많은 아들(sons)이 있고 유일한 아들(the Son)이 있으며 많은 마귀(devils)가 있고 유일한 마귀(the devil)가 있다는 것이 바른 성경의 가르침이다.

8. 살아 있는 혼인가, 살아 있는 영인가?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역시 영, 혼, 몸으로 구성된 삼위일체이다.

흠정역: 평강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 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살전5:23).

사람이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음을 가장 잘 보여 주는 구절이 바로 창세기 2장 7절인데 개역성경은 여기에서도 전 세계 모든 성경과 달리 특이하게 번역을 하여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

개역: 여호와 하나님은 흠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흠정역: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흠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있는 혼이 되니라.

성경이 보여 주고자 하는 바는 사람이 몸(흠)과 영(생명의 숨)이 합쳐진 혼이라는 것인데 개역성경은 이것을 부인하며 그 결과 '영이 없는 사람'(창세기 1장)이 있고 '영이 있는 사람'(창세기 2장)이 있다는 '이중 아담론'을 확립해 주고 말았다. 사람이 '산 영'(living spirit)이면 죽지 않는데 그러면 도대체 무슨 부활이 필요하며 '살려 주는 영'(quickenning spirit)이 필요한단 말인가?

개역: 기록된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었나니(고전15:45)

흠정역: 그러므로 기록된바, 첫 사람 아담은 살아 있는 혼이 되었더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주는 영이 되셨느니라.

성경에는 혼이라는 단어가 535회 나오는데 혼을 믿지 않는 개역성경의 번역자들은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꼭 혼이 나와야만 말이 되는 구절에서만 혼을 혼으로 번역했다.

개역: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히4:12)

그리고 개역성경은 이런 곳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혼을 영혼이나 자(者) 등으로

바꾸어버렸다.

개역: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치지리라(출12:15)

흠정역: 누구든지 누룩 있는 빵을 먹는 혼은 이스라엘에서 끊이지리라.

개역: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의 아픔을 인하여 말하며 내 영혼의 괴로움을 인하여 원망하리이다(욥7:11)

흠정역: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이 번민 중에 말하며 내 혼이 고통 중에 불평하리이다.

위의 욥기를 보면 영과 혼이 명백히 구분되어 있지만 개역성경은 이것을 전혀 구분하지 않고 두루뭇술하게 ‘영혼’으로 처리해 버렸다. 이렇게 정확성이 떨어지므로 개역성경으로는 바른 교리를 정립하기가 어려우며 영어로 쓰인 기독교 관련 서적을 번역할 때 저자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개 자기 교회로 사람을 데려오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미국 사람들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전도로 생각한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진짜 전도이다. 이 경우에 그들은 ‘혼을 구원한다’는 뜻을 가진 ‘soul winning’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나가서 사람의 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킹제임스 성경은 사도행전에서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혼을 구원한 사실을 잘 보여 주지만 개역성경은 전혀 이런 것을 반영하지 못한다.

흠정역: 그때에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며 바로 그 날에 삼천 혼 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지니라(행2:41).

개역: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9. 짐승의 영인가, 혼인가?

과연 성경은 짐승에 대하여 무어라 말하는가? 성도들의 믿음과 실행의 표준이요, 최종 권위인 성경 말씀을 살펴보자.

개역: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전3:21)

흠정역: 누가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아느냐?

개역성경은 본문에 ‘짐승의 혼’이라고 적었으나 밀의 난외주를 보면 “여기의 혼은 원래 히브리어로 영임.”이라고 되어 있다. 도대체 히브리어가 ‘영’이면 본문에 있는 그대로 ‘영’으로 해야지 왜 ‘혼’이라 했을까? 그 이유는 번역자들의 토착 샤머니즘 사상 때문이었다. 그들은 도저히 짐승에게도 영이 있음을 이해할 수 없었으며 그래서 자기들의 사상대로 ‘영’을 ‘혼’으로 번역하였다.

이 구절의 영은 히브리어 ‘루아흐’를 번역한 것으로 ‘루아흐’는 영, 바람을 의미하며 여기서는 사람, 짐승과 관계가 있으므로 마땅히 영이 되어야 한다. 성경은 전도서 3장 19절에 있듯이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같이 숨을 가졌고 영을 가졌음을 분명히 보여 주며 노아의 대홍수 때에도 사람과 짐승 등 코에 생명의 숨을 가진 육체만 죽임을 당했다(창2:7; 6:17; 7:15; 7:22).

흠정역: 보라, 나 곧 내가 땅 위에 물들의 홍수를 일으켜 속에 생명의 숨이 있는 모든 육체를 하는 아래에서 멸하리니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죽으리라(창6:17).

한편 하나님께서는 짐승도 영을 가졌으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말을 할 수 있음을 보여 주시기 위하여 민수기 22장에서 단 한 번 나귀가 말하는 기사를 영감으로 기록하셨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자 영을 가진 나귀는 곧바로 천사를 알아보고 말을 하게 되었다.

어떤 이들은 이런 구절을 통해 짐승도 영이 있으므로 구원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는다. 그러나 전도서 3장 21절이 의미하듯이 짐승의 영은 죽어서 소멸되고 만다. 그러므로 짐승은 영을 가졌으나 천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는 상관없이 죽으면 그 영이 땅으로 내려간다.

지금 ‘루아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므로 전도서의 번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도서에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유명한 구절이 있다. 그러면서 전도자 솔로몬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한다.

흠정역: 내가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보았노니,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전1:14).

킹제임스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것이 헛되어 영을 괴롭게 한다.”(vexation of spirit)고 전도서에서 무려 10번이나 말하고 있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이것을 전혀 달리 표현하고 있다.

개역: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영을 괴롭게 하는 것’과 ‘바람을 잡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 앞서 말했듯이 ‘루아흐’는 ‘바람’으로도 번역이 되고 ‘영’으로도 번역이 된다. 원어가 동일하므로 이 같은 차이가 생긴데 대해 원어를 탓할 수는 없다. 이 예를 통해 우리는 성경 번역자가 같은 단어를 문맥에 따라 어떻게 번역하는가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전도서의 문맥상 어느 번역이 맞을까? 우리는 전도서 기자가 말하려는 요점이,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이 번역한 대로,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어 우리의 영을 괴롭게 하는 것임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래서 결국 전도서 기자는 마무리를 하면서 12장 13절에서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즉, 이 모든 것이 영의 문제지 결코 뜬구름 잡는 것 같이 바람을 붙잡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번역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의미를 제대로 전달해 주는 번역이라고 믿으며 이런 의미에서 킹제임스 성경이 우리의 최종 권위라고 담대히 말한다.

10. 대언인가, 예언인가?

성도들이 성경을 성경으로 풀려면 성경 번역시 중요 용어를 반드시 일관성 있게 번역해서 용어색인(Concordance) 기능이 되게 해야 한다. 미국의 성도들이 성경대로 믿으며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에게 스트롱(Strong)이나 영(Young)이 만든 용어색인이 있어 누구라도 제대로 성경을 공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경이 어떤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는가를 살펴보면 용어색인을 이용하여 그 단어의 용례를 처음부터 살펴보면 된다.

그런데 불행히 개역성경은 이러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예로 ‘prophecy’ 혹은 ‘prophet’이라는 단어를 들 수 있다. 이 단어들은 성경에 500회 이상 나오며 성경 기록 그 자체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현대 영어사전을 살펴보면 이 단어의 주된 의미가 ‘예언하다’이므로 개역성경의 번역자들은 이것들을 앞날을 예언하는 ‘예언’, ‘선지자’ 등으로 번역했다. 그러나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남의 말을 대신 전한다’는 ‘대언(代言)’이며

성경의 용례 역시 전적으로 이것을 가리킨다. 그래서 심지어 개역성경도 출애굽기 7장 1절, 에스겔 37장 4절, 계시록 19장 10절 등 10 구절에서는 부득이 대언으로 바르게 번역했다.

개역: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출7:1-2)

개역: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이 여호와와 말씀을 들을지이다(겔37:4)

개역: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계19:10)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신다.

홍정역: 이로써 창세로부터 흘린 모든 대언자들의 피를 이 세대에게 요구하리니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상전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까지라(눅11:50-51).

예수님께서서는 아벨을 가리켜 최초의 대언자라고 하신다. 다시 말해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초로 대언한 자라는 말이다. 그러면 그가 누구에게 대언했는가? 그는 가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고 그 결과 박해를 받아 죽게 되었다. 이런 구절에서 개역성경처럼 아벨을 ‘선지자’라고 하면 말이 되겠는가?

아브라함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창세기 20장에는 처음으로 ‘대언자’라는 단어가 나온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다.

홍정역: 그러므로 이제 그 남자(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대언자이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만일 내가 그녀를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모든 것이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창20:7).

여기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온다. 앞날을 예견한다는 의미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사실 구약시대의 대언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할 때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라는 선언과 함께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그들이 이런 선언을 할 때에는 평상시 입에 올리기 어려운 ‘여호와’(영어의 LORD)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까지 자기들의 메시지가 주님의 말씀임을 확증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LORD)의 이름으로 대언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대언자를 죽이라고 명령하셨다.

홍정역: 만일 대언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 일이 뒤따라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성취되지도 아니하면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이요, 오직 그 대언자가 자기 뜻대로 그것을 말하였나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신18:22).

이와 같이 대언자의 책무는 엄청났으며 특히 구약시대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의 패망에는 거짓 대언자들의 역할이 지대했다.

한편 성경 기록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언자들이 받은 그대로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다음 말씀처럼 성경 기록은 대언이다.

홍정역: 성경 기록의 대언 중 어떤 것도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베후1:20-21).

이처럼 성경은 분명히 성경 기록 그 자체가 대언임을 보여 주지만 개역성경으로는 도저히

이것을 알 길이 없다.

개역: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여기서 개역성경이 ‘예언’으로 번역한 단어 역시 앞날을 예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대언으로 주신 말씀을 뜻한다. 앞뒤 문맥이 분명하지 않은가?

이처럼 중요한 단어를 ‘선지자’나 ‘예언’ 등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 내에서도 고린도 교회의 은사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여 많은 교인들이 입시, 입사, 이사 때마다 예언기도 받으러 기도원의 점쟁이들을 찾아다닌다! 신약시대에도 성령이 완성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대언자들을 사용하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것은 대언의 말씀이지 결코 예언의 말씀이 아니다. 그러나 개역성경은 고전12-14장의 대언, 대언자를 다 예언, 선지자로 번역하여 기복무속신앙을 부추기고 있다. 구약의 대언자들의 말씀 중 여러 부분이 미래를 다루므로 대언에 예언의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언이라는 말은 이미 그 의미도 다 포함하고 있다.

사실 구약시대에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처음에는 ‘선견자’(seer)라는 호칭이 있었으나 후에는 ‘대언자’로 바뀌었다.

흠정역: (예전에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여쭙려 할 때에 이같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선견자(seer)에게로 가자, 하였더라. 지금 대언자(prophet)라 부르는 사람을 예전에는 선견자라 불렀더라)(삼상9:9).

여기 나오는 선견자야말로 ‘앞날을 내다보는 사람’으로 ‘선지자’와 같은 말이다. 그러므로 이런 구절에서 대언자를 ‘선지자’로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게 된다.

11. 왕국인가, 천국인가?

한 국가의 통치 제도는 누가 그 권력을 행사하는가에 따라 다르게 된다. 다시 말해 백성들 개개인이 통치 권력을 행사하면 민주국이 되고 왕이 홀로 통치하면 왕국이 된다. 그러면 성경 속의 하나님의 통치 체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사람들처럼 여러 사람의 뜻을 물어 민주적으로 통치하실까? 아니면 홀로 주권을 행사하시며 자신의 뜻대로 통치 하실까?

신구약성경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왕국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것이다(렘1:6, 12, 14).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개념으로 가득하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도 동방에서 온 지혜자들이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나?”라고 물었으며(마2:2) 그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선포하셨다(마4:17). 그래서 그분께서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 위의 명패에도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왕 예수라는 글이 붙었다(마27:37).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왕으로 즉 그들의 메시아로 오셔서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메시아 왕국을 그들에게 계시하셨으나 배척을 당하시고 결국 유대인들의 왕으로 돌아가시면서 새로운 언약 즉 신약을 여셨다. 그러므로 왕국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마가복음 같은 경우 그 시작이 이렇게 되어 있다.

흠정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이제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여(막1:1, 14)

유대인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이런 것을 무시하며 진실을 가리고 있다.

개역: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막1:14)

이렇게 왕국이 중요하므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언하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구절을 개역성경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번역하고 있다.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는 천국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인데 과연 그 당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너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때가 되었다고 선포하신 것일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보면 그렇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다.

흠정역: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마6:10).

개역: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사실 개역성경으로는 이 구절의 의미를 파악할 수 없다. 개역성경이 ‘나라’로 번역한 그리스어 ‘바실레이아’는 왕국이며 여기서 예수님이 의도하신 왕국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문자 그대로 실제로 땅에 임하게 하사 자신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는 왕국 즉 ‘하늘의 왕국’이다(마4:17). 이 하늘의 왕국은 대언자 다니엘을 통하여 이미 오래 전에 예언된 왕국으로 하늘의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세우시는 왕국이다.

흠정역: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터인데 그것은 결코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남겨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왕국들을 산산조각 내어 소멸시키고 영원히 서리이다(단2:44).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왕국을 유대인들에게 제시하셨으며 결코 우리 성도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을 제시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왕국을 의도적으로 거부했고(마 23:37-39) 이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공훈이 전해지게 되었다(롬11:30-31).

한편 예수님의 재림 전에 선포될 복음도 천국 복음이 아니고 바로 왕국의 이 복음이다(마 24:14).

흠정역: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곧 그는 구원을 받으리라.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24:13-14).

위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목숨을 내걸고 주님께 헌신하는 자가 아니고 세상의 끝까지 견디는 자를 말한다. 즉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 가운데 믿음으로 7년 환난기를 통과하는 사람을 가리키며 이들은 로마서 11장 26절 말씀 즉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른 뒤에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성취될 때에 구원받는 자들이다.

그래서 7년 환난기에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왕국의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지고 그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땅에 강림하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세우신다. 그러므로 선교단체인 교회 등이 마태복음 24장을 문맥에 상관없이 취해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바르지 못하다. 이것은 후천년주의에서 나온 발상이며 성경은 이런 것을 지지하지 않는다. 물론 선교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문맥에 맞지 않는 구절을 취해 내 목적에 맞도록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처음부터 이 왕국의 도래가 가장 큰 관심사였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분께 가장 먼저 왕국의 회복에 대해 물었다.

홍정역: 주여, 주께서 이때에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고자 하시나이까?
하매(행1:6)

개역: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그런데 개역성경은 이 구절을 또 다시 오역하여 그 의미를 완전히 가려 버렸다. 이런 번역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의도를 전할 수 있단 말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이스라엘 대체 신학'이 주류를 이룬다. 한국 성도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늘의 왕국의 설립과 특히 천년왕국의 도래 등에 대해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학자들로부터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어려서부터 잘못 번역된 성경을 읽고 그것으로 말씀을 공부하므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참 뜻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처럼 성경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결국 성도들이 대부분의 구절을 '영적으로 비유로' 해석한다. 성경을 - 특히 구약성경을 - 읽으면서 그 내용을 역사적 사실로, 하나님의 치리가 이루어지는 사실로 대하지 않고 다 나하고 상관이 있는 '영적 QT 재료'로만 사용하기에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심오한 관이 형성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왕국을 세우시고자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무엇보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다. 이런 원대한 계획안에 사람의 구속(救贖)이 들어 있고 마귀의 파멸이 들어 있다. 결코 사람의 구원이 하나님의 계획의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기존 한글 성경들을 제외한 다른 모든 성경에서 왕국으로 번역된 'kingdom'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모두 342회 나오며 이것은 원래 왕권(kingship)을 의미했으나 후에는 주로 왕이 다스리는 통치 체제 즉 왕국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런 중요한 단어를 '나라'나 '천국' 등으로 일관성 없게 번역했으므로 개역성경으로는 성경의 핵심 주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성경의 핵심 주제를 보여 주는 이 단어는 단지 여호와와 증인들의 전용 용어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다.

한편 왕국의 이해가 부족하므로 인본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은 구절을 악용하여 천국이 장소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라고 주장하며 인본주의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개역: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눅 17:20-21)

그런데 여기의 너희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예수님께 질문한 바리새인들이 아닌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저주까지 하신 바리새인들 안에 - 혹은 그들의 마음 속에 - 하나님의 나라가 있단 말인가? 여기 나오는 나라 역시 왕국이다. 이것을 왕국으로 번역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으며 그 결과 자연적으로 문맥에 전혀 맞지 않는 영적 해석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왕국이 성립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왕이 있어야 한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왕으로 너희 가운데 와서 거하므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그들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하신다. 결론적으로 '왕국'(kingdom)을 '천국'(heaven) 혹은 '나라'(country)로 바꾸는 것은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를 완전히 가려 성도들의 성경 이해를 가로막는 심각한 폐해를 낳는다.

12. 성경에 오류가 있는가, 없는가?

성경은 사람의 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영감으로 기록하신 책이므로 모순이 없다. 만일 그 안에 모순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위태롭게 된다.

개역: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막1:2-3)

이 구절은 말라기서 3장 1절과 이사야서 40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마가가 인용한 것이다. 여기서 앞부분 즉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예비하리라.”는 절은 대언자 이사야의 글이 아니고 말라기의 글이며 따라서 이것을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라고 하면 성경에 오류가 생기게 된다. 킹제임스 성경은 이것을 정확하게 ‘대언자들의 글’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 대언의 성취를 부인함

하나님께서서는 자신의 대언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됨을 보여 주시려고 다음과 같은 말씀을 영감으로 기록하셨다.

흠정역: 이로써, 그가 범죄자들과 함께 계수되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더라(막 15:28).

그러나 개역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해 버린다.

개역: 없음

● 종교를 강조함

개역성경과 현대 역본들은 “너는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하나님의 둘째 명령을 직접적으로 거역하면서 우상숭배를 지지하고 있다. 사실 이 같은 우상숭배는 사람들이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는 때 곧 7년 환난기에 온 땅을 가득 채울 것이다(계13:15).

개역성경을 비롯한 현대 역본들이 추구하는 거꾸로 된 세상 속에서는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엄한 책망도 따뜻한 칭찬으로 바뀌게 된다.

개역: 바울이 아래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멘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religious)(행17:22)

흠정역: 그때에 바울이 마르스의 언덕 한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알고 보니 너희가 모든 것에서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도다(superstitious).

킹제임스 성경이 ‘미신’이라고 번역한 그리스어의 어근은 마귀와 상관이 있다. 한편 개역성경에서 ‘종교심’으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드레쉐이스’(thresheis) 혹은 ‘세보마이’(sebomai) 인데 이런 단어는 그 구절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다. 개역성경은 이렇게 아테네 사람들처럼 자기들의 열심에 도취되어 헛된 것에게 경배하는 것을 ‘종교심’이 많은 것으로 이해하는 교인들을 생산하고 있으며 한국 교회의 현실이 이를 잘 보여 준다.

● 그리스도를 비하함

다음은 우리 주 예수님을 물건으로 비하하는 사례이다.

개역: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요6:33)

떡은 둘째 치고 도대체 하나님의 빵이 '생명을 주는 것'(thing) 즉 사물로 되어 있지 않은가?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빵으로 생명을 주는 자라고 말씀하신다.

흠정역: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자니라.

완전히 내용이 다르지 않은가?

● 서기관들이 주범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서기관들을 향해 노한 목소리로 저주의 말씀을 하신다.

흠정역: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걸치레로 길게 기도하나니 그런즉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마23:14).

그러나 서기관들은 이미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가 버렸다.

개역: 없음

●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어야 하는가?

주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없어서 마귀를 내쫓지 못했는가, 아니면 믿음이 적어서 내쫓지 못했는가?

개역: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마17:20)

흠정역: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로다...

우리 주님의 요점은 그들의 믿음이 겨자씨보다 작다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다는 것이다. 문맥을 보면 너무 당연하지 않은가?

이렇게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후에 예수님께서서는 어떻게 마귀를 내쫓는지 친히 말씀해 주신다.

흠정역: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마 17:21).

그러나 개역성경은 여기서도 예수님의 충고를 들으려 하지 않고 몸을 피한다.

개역: 없음

참으로 개역성경은 NIV 등의 다른 현대 역본들과 마찬가지로 기도와 금식의 능력을 부인한다.

개역: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막13:33)

흠정역: 너희는 주의하라. 깨어 기도하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개역: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홀연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행10:30)

흠정역: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에 이 시간까지 금식하고 아홉시에 내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보라, 한 남자가 빛나는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개역: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고전7:5)

흠정역: 너희는 서로를 속여 권리를 빼앗지 말라. 너희가 금식과 기도에 전념하기 위하여 동의를 구해 얼마 동안 그리하는 것은 예외이나 다시 함께하라.

개역: 매 맞음과 간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기 못함과 먹지 못함과(고후6:5)

흠정역: 매 맞음과 욕에 간힘과 소동과 수고와 깨어 있음과 금식 가운데서 그리하고

마지막 예에서 먹지 못하는 것과 금식은 다르다. 금식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자기의 욕망을 누르는 것이다. 따라서 먹지 못해 배고픈 것이 반드시 금식은 아니다. 물론 금식하면 배가 고프다. 개역성경은 다른 현대 역본들과 마찬가지로 금식의 능력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다.

● 그리스도 안과 밖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역사적으로 과학적으로 오류가 없다. 그런데 개역성경에서는 자주 오류가 발견된다.

개역: 할레나 무할레가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갈6:15)

흠정역: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할레나 무할레가 아무 효력이 없고 오직 새로운 창조물만 있느니라.

그리스도 밖에서는 할레나 무할레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로마서 3장). 할레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복은 무할레자들이 결코 뺏을 수 없는 복이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는' 즉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는 교회 안에서는 이런 것이 소용이 없다고 말한다. 천주교 성향의 서기관들이 천주교의 이스라엘 대체 신학 즉 교회가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거짓말을 지지하기 위해 이것을 삭제시켰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친 자손들이 있으며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자기들의 땅에서 이스라엘 국가를 건설하여 천년왕국을 소유하려 하고 있다. 아브라함에게 무조건적으로 허락하신 저 팔레스타인 땅은 누가 뭐라고 해도 영원토록 유대인들의 땅이다(창세기 12, 15장).

● 그리스도의 고난이 부족한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에 충분한가, 아니면 부족하므로 우리가 공을 들여 채워야 하는가?

개역: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골1:24)

도대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어느 면에서 부족하기에 그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워야 한단 말인가? NIV는 아예 그리스도의 고난에서 부족한 것을 내 육체에 채운다고 말한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흠정역: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고난들 뒤에 있는 것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해 내 육체 안에 채우노라.

킹제임스 성경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는 뒤에 이제 성도들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62 개역성경분석

따르면서 고난 받는 것을 말하고 있다. 우리 주님께는 남은 고난이 하나도 없다.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창에 찔리고 육체가 완전히 부서져서 그 얼굴을 알아보기 어려웠는데 도대체 무슨 고난이 더 남아 있단 말인가?

흠정역: 그의 얼굴이 누구보다도 더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의 아들들보다 더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너를 보고 놀랐느니라(사52:14).

● 그리스도의 고난을 부인함.

이렇게 예수님의 고난을 무시하는 개역성경은 다음의 구절에서도 중요한 단어를 삭제했다. 예수님의 몸이 우리를 위해 찢긴 것을 기억해야 한다.

개역: [그분께서]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고전11:24)

흠정역: [그분께서]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broken)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 복음의 핵심 부인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 개역성경처럼 그냥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것인가?

개역: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마9:13)

이것은 결코 복음이 아니다. 예수님은 단지 죄인들을 부르러 오시지 않았다.

흠정역: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이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회개'이다. 이것이 빠지면 예수님의 메시지가 아무 효력도 갖지 못한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개역성경은 자꾸 삭제한다.

개역: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촌으로 가시니라(눅9:55-56).

흠정역: 그분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러 오지 아니하고 구원하러 왔느니라, 하시니라. 그들이 다른 마을로 가니라.

● 보편적 구원을 가르침

새 예루살렘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개역성경은 어떤 민족이나 누구든지 들어간다고 기록한다.

개역: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계 21:24)

개역성경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든 이단 교리 즉 '보편적 구원'(Universal salvation)을 가르치지만 킹제임스 성경은 구원받은 자들만이 거기에 들어간다고 가르친다.

흠정역: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엄청난 차이가 아닌가? 과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류가 넘치도록 원본 성경을 주셨을까? 아니다. 마귀의 사주를 받은 서기관들이 자기 뜻대로 이 모든 것을 변개하였다. 하나님은 오류가 전혀 없는 한 성경만을 쓰셨다.

●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를 향한 것인가?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진노하시는가? 개역성경은 이 점이 명확하지 않다.

개역: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골3:5-6)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흠정역: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느니라.

이것은 사실 에베소서 5장 6절과 짝을 이루는 말씀이다.

흠정역: 아무도 헛된 말들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임하니니

하나님의 진노와 관련하여 개역성경은 또 다시 오류를 범한다.

개역: 듣고 격노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좇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히3:16)

개역성경은 모세를 따라 이집트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격노하게 했다고 말한다. 과연 그런가?

흠정역: 이는 어떤 자들이 듣고 격노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모세로 말미암아 이집트에서 나온 자가 다 그리하지는 아니하였느니라.

민수기 14장 29-32절을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과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어린것들은 하나님을 격노하게 하지 않았으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러므로 논리적으로 개역성경은 거짓을 진술하고 있다.

● 아멘을 무시함

아멘이란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소서.”라는 말이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기도한 뒤 ‘아멘’ 한다. 성경에는 아멘이 총 78회 나오는데 개역성경은 이 중에서 20회 이상을 삭제하고 50여 회만 적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이 아니란 말인가?

흠정역: 나는 살아 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무궁토록 살아 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계1:18).

개역: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흠정역: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들을 멀리하라. 아멘(요일5:21).

개역: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 여인들을 무시함

성경은 남녀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평등함을 보여 준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NIV 같은 현대 역본들과 마찬가지로 여인들에게만 무거운 짐을 지워 준다.

64 개역성경분석

개역: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로 잡지 말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니라(딤후5:16)

흠정역: 만일 어떤 믿는 남자나 여자에게 과부들이 있거든 그들이 그들을 구제하게 하고 교회에 짐을 지우지 말라. 이것은 교회가 참 과부인 자들을 구제하게 하려 함이라.

또한 현대 역본들은 한결같이 여인들에게만 죄를 뒤집어씌우고 남자들에게는 면죄부를 주려 한다.

개역: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약4:4)

흠정역: 너희 간음하는 남자와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 아버지 없는 아이와 고아

하나님은 인자하시며 긍휼이 풍성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고 특별히 명령하셨다.

개역: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출22:22)

그런데 개역성경은 이런 구절에서도 번역을 잘못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가리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은 ‘고아’를 가리켜 ‘부모를 여의거나 부모에게 버림받아 몸 붙일 곳이 없는 아이’로 정의하고 있다. 즉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는 아이만이 고아이다. 개역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어머니 둘 다 없는 아이에게만 긍휼을 베풀라고 하신 것처럼 기록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이와 다르다.

흠정역: 너는 과부나 아버지 없는 아이를 괴롭히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버지가 없는 아이에게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하신다. ‘고아’와 ‘아버지 없는 아이’는 완전히 다르며 이것을 통해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긍휼이 개역성경에 드러난 긍휼보다 더 큼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킹제임스 성경은 부모가 아니라 아버지만 없어도 긍휼의 손길을 베풀라고 하므로 약자를 더 많이 위로하는 성경이다. 이렇게 ‘아버지 없는 자’를 ‘고아’로 표현된 구절은 자그마치 50 여 군데나 된다.

이 모든 부패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사본에서 나왔으므로 NIV나 NASB 그리고 공동번역과 표준새번역 같은 현대 역본도 내용이 동일하다.

● 정반대를 기록함

욥은 4000년 전에 메시아의 재림을 말하면서 자신의 부활까지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 자신의 ‘육체 안에서’ 즉 ‘육체를 입고’ 하나님을 눈으로 볼 것을 확신하였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이런 중요한 구절을 ‘육체 밖에서’라고 정반대로 기록하였다.

흠정역: 내가 알거니와 내 구속자께서 살아 계시고 또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욥 19:25-26).

개역: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 십일조를 삼 일만에 바치는가?

개역성경은 NASB 등과 같이 십일조를 삼 일만에 바치라고 요구한다.

개역: 너희는 벤엘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회생을 삼 일마다 너희 십일조를 드리며(암4:4)

과연 성경에 십일조를 삼 일마다 드렸다는 기록이 있는가? 신명기 14장 28절과 26장 12절 등은 분명히 삼 년마다 드리는 십일조가 있다고 말한다.

흠정역: 너는 삼 년이 끝날 때에 그 해 소출의 십일조를 다 가져다가 네 성문 안에 저축하여(신 14:28)

그러므로 아모스 4장 4절은 킹제임스 성경처럼 되어야 한다.

흠정역: 벤엘에 가서 죄를 짓고 길갈에서 범죄를 크게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물을, 삼 년 뒤에 너희 십일조를 가져오고

● 일천 번제인가, 천 개의 번제 헌물인가?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린 후에 지혜와 부와 명예를 얻게 되었다고 해서(왕상3:4, 13) 요즘 한국 교회에서는 일천 번제가 유행하고 있는데 그 골자는 천일 동안 매일 일정한 액수의 돈을 바치고 기도하는 것이다. 과연 이런 일이 성경에 근거한 것일까? 과거에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했다고 해서(단10:2-3) 지금 교회마다 '다니엘 작정 21일 새벽기도'를 하고 있고 또 부흥회가 유행하던 시절에는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으므로 자기도 40일 동안 금식해서 능력을 받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선 적이 있는데 이제 또 여러 무지한 목사들이 무지한 양떼를 '일천 번제'로 끌고 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솔로몬은 결코 천일 동안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

개역: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왕상3:4)

흠정역: 왕이 기브온에서 희생물을 드리려고 거기로 갔으니 이는 그것이 큰 산당이었기 때문이더라. 솔로몬이 그 제단 위에 번제 헌물 천 개(a thousand burnt offerings)를 드리니라.

솔로몬이 기브온으로 간 이유는 그 당시 그곳의 산당이 매우 컸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곳의 산당만이 유일하게 천 개의 번제 헌물을 일시에 수용할 수 있었다. 천일 동안 매일같이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성경과도 맞지 않고 이치에도 맞지 않다. 어떻게 왕이 왕좌를 버리고 떠나서 근 3년 동안 번제만 드릴 수 있었겠는가?

솔로몬의 기사를 가지고 천 번 번제를 드렸다고 해석하게 된 데는 무엇보다도 개역성경의 공헌이 지대하다. 개역성경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각종 헌물을 제사로 처리해서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여기 나오는 'burnt offering'은 원래 '태우는 헌물'이다. 하나님께는 '태우는 헌물' 즉 '번제 헌물'을 드리지 '번제' 즉 '태우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 경우 'burnt offering' 대신 'burnt sacrifice'라는 말이 사용되곤 했는데(레 1:3, 9, 10, 13, 14, 17 등 18 곳) 이것은 곧 '태우는 희생물'을 뜻한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이것을 다 번제라고 번역했고 그래서 개역성경으로는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린다는 개념을 찾기 어렵다. 그 결과 솔로몬의 기사에서도 태우는 희생물 천 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천 번 드린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은 이런 희생 헌물에 대해 아주 쉽고 명쾌한 답을 준다. 죄를 지으면 '죄 헌물'(sin offering)을 드리고 법을 어겼으면 '범법 헌물'(trespass offering)을 드리며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원하면 '화평 헌물'(peace offering)을, 자원해서 드리기 원하면 '자원 헌물'(freewill offering)을, 음식을 드리고자 하면 '음식 헌물'(meat

offering)을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간단한 것을 개역성경은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낙헌 예물’, ‘소제’ 등으로 어렵게 만들었으며 또한 ‘자원 헌물’을 빼고는 모두 ‘헌물’이라는 말을 없애고 전체를 몽뚱그려 제사로 바꾸어서 원래의 의미를 퇴색시켰다. 속건제의 ‘건’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자원 헌물’의 경우 개역성경은 레위기 22장 21절과 23절에서 ‘자의로 드리는 예물’ 혹은 ‘낙헌 예물’이라고 해서 헌물의 개념을 살렸는데 사실 다른 모든 경우에도 이렇게 했어야만 했다. 영어 성경의 경우에는 NIV, NASB 등 부패된 역본들도 모두 ‘헌물’(offering)을 살리고 있다. 아마도 이 사례 역시 중국 성경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offering’을 제사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게 되며 그래서 제사장 계급이 일천 번제를 드리라고 강요해서 무지한 성도들의 돈을 착취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흠정역: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하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네가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은즉 나도 네 자녀들을 잊으리라.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성경을 알아야 이런 무지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중세 천주교의 암흑시대가 우리에게 닥칠 것이다.

● 아무 뜻도 없는 번역

개역: 여호와와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암 5:20)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사람이 있는가? 뜻을 모르고 번역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다.

흠정역: 주의 날은 어둠이 아니겠느냐? 그것은 빛이 아니니라. 심지어 너무 어두우므로 그 날에는 밝음이 없지 아니하겠느냐?

다음은 신약성경에서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구절 중 하나이다.

개역: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앎으로 말미암음이라(벧후1:3)

여기서 ‘신기한’으로 번역된 단어는 ‘divine’이며 이는 ‘하나님의 신성을 띠다’를 뜻한다. ‘영광과 덕으로써’는 어떤 수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을 뜻한다. 킹제임스 성경은 다음과 같다.

흠정역: 우리를 부르사 영광과 덕에 이르게 하신 분을 아는 것을 통해 그분의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 순교하고 약속도 받지 못하는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전당에 들어간 사람들은 순교하고 아무 약속도 받지 못하였는가?

개역: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히11:13)

믿음을 따라 죽는 것이 순교가 아닌가? 그런데 아무 약속도 받지 못했던 말인가? 여기서도 개역성경은 오역을 했다(히11:39 참조).

흠정역: 이 사람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으며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받아들였고...

14. 하늘들인가, 하늘인가?

우리말에서는 하늘의 복수형인 '하늘들' 같은 표현을 잘 쓰지 않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복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개역: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창2:1)

흠정역: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니라.

개역성경은 참으로 간결해 보이지만 많은 면에서 내용은 부실하다. 이런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이 하나가 아니고 여럿임을 보여 주시기 위해 복수를 쓰셨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을 보면 성경에는 최소한 첫째, 둘째 셋째 하늘이 있으며 다른 영어 역본들도 이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흠정역: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십사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여 올라갔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고후12:2).

그러나 개역성경은 이런 신학을 무시한 채 대부분의 중요 복수 단어를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다. 많은 경우 개역성경의 간결성은 성경의 정확성을 희생하면서 얻은 결과이다. 성경이 이처럼 부실하니 그 부실한 기초 위에서 부실한 기독교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은가?

15. 지옥인가, 음부인가?

마귀는 지옥을 숨기려고 부단히 노력한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믿지 않으면 음부에 갑니다.” 혹은 “스울에 갑니다.”하면 알아들을 사람이 있겠는가?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죽어 아브라함의 품인 낙원과 지옥으로 갔으며(눅16:19-31) - 이 구절의 음부도 음부가 아니고 지옥임 -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낙원에 있던 사람들은 하늘 즉 천국으로 옮겨졌으나(엡 4:8-10; 고후5:8; 12:2-4; 히11:40) 지옥은 여전히 지옥으로 남아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죽은 사람은 곧장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

지옥은 성경에 54회 나오는데 개역성경은 이 중에 구약에 나오는 31번의 지옥을 모두 스올로 번역했고 신약에서도 13번만 지옥으로 번역하고 나머지는 음부로 번역했다. 그렇다면 스올 혹은 음부는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말 큰 사전은 음부는 저승인데 저승은 ‘죽은 혼령이 가서 사는 세상으로 구천, 유명’이라고 말한다. 즉 개역성경은 번역자들의 샤머니즘으로 인해 불교 용어와 개념을 도입하였다.

개역: 음부와 유명도 여호와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잠15:11)

개역: 음부와 유명은 만족함이 없고(잠27:20)

이런 이교도 사상이 개역성경에 그대로 반영되어 교리와 신학에 참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이에 대해 흠정역성경은 정확하게 ‘지옥과 멸망’이라고 번역하고 있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개역성경의 번역자들은 이에서 그치지 않고 지옥의 본질을 성경에서 제거해 버렸다.

개역: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막9:45)

흠정역: 만일 네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 내버리라. 절뚝거리며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곧 결코 꺼지지 않을 불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네게 더 나으니

지옥은 결코 불이 꺼지지 않는 무서운 곳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흠정역: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막9:44, 46, 48).

너무나 중요한 진리이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44, 46, 48절에서 연거푸 이 사실을 강조하신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44, 46절은 생략했다. 단 한 번만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스스로 판단한 것이다. 예수님은 중요한 것을 강조하실 때는 늘 반복을 하셨다.

흠정역: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또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요3:5).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에 우리 주님은 ‘진실로 진실로’라고 강조하셨다. 마찬가지로 지옥에 빠지는 것 역시 치명적이므로 그분께서는 연거푸 세 번이나 지옥의 실상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거기에 가지 말 것을 촉구하신다. 그러므로 44, 46절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

참고로 영어의 지옥 즉 ‘hell’은 ‘감추다’ 또는 ‘덮다’를 뜻하는 앵글로색슨어에서 유래한 말로서 1차적으로는 ‘죽은 사람들이 가는 지하 세계’를 뜻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는 ‘그 지하 세계에서 악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곳’을 뜻한다.

Hell: The abode of the dead; the place of departed spirits; the infernal regions or lower world regarded as a place of existence after death(옥스퍼드 영어사전)

그러므로 한자의 ‘지옥’(地獄) 즉 ‘땅의 감옥’이란 표현은 아주 적절하다. 바벨탑에서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말 성경에 아주 근사한 용어를 허락해 주셨다. 지옥이 땅의 중심부에 있음을 성경이 말하지만 현대판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의 이성을 따라 이것을 믿지 않는다.

흠정역: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마 12:39-40).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중심부에 가셨다가 부활하셨다.

흠정역: (다윗이) 또 이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의 혼이 지옥에 남겨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썩음을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였느니라(행2:31).

그러나 개역성경은 여기서도 지옥을 음부라고 하여 그 의미를 알 수 없게 만들었다.

개역: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예수님께서 지옥에 가셨음은 우리나라 성도들이 자주 외우는 사도신경에도 들어 있다. 한영 성경이나 한영 찬송가의 표지 안에 들어 있는 영어 사도신경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He was crucified, dead, and buried. He descended into hell.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원래 사도신경에는 “그분께서 지옥으로 내려가셨다.”는 구절이 있으나 번역자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였으므로 고의로 이 구절을 삭제하였다. 우리는 결코 주문 외우듯이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으며 사실 신조 자체를 외울 필요도 없다고 믿는다. 기독교는 천주교나 불교처럼 기록된 말씀 이외의 다른 것에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는 지옥에 대해 바른 개념을 갖는 것이 필요함을 보여 주기 위해 사도신경을 예로 들어 설명했을 뿐이다. 궁극적으로 예수 믿지 않은 악인들이 영원토록 살 곳은 성경에서 불 호수라 하는 곳 즉 불로 가득한 호수이며 이곳의 위치는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다(계19:20; 20:14).

● 영존하는 지옥 형벌

어떤 이들은 지옥의 불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진짜 불 즉 이 세상에서 우리가 뜨겁게 느끼는 그런 불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불 즉 상징적인 불이라고 말한다. 또한 이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므로 자신의 창조물을 진짜 불 속에 영원토록 던져 넣는 잔인한 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가 ‘eternal’이다. 이 말은 원래 시작과 끝이 없는 것을 나타낼 때 혹은 천상의 것의 우수함이나 고매함 등을 지상의 것과 비교할 때 즉 질적 비교를 할 때 사용되는 말이다.

개역: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eternal fire)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마 18:8)

반면에 영어에서 양을 강조하면서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을 나타낼 때는 ‘영존하는’이란 의미의 ‘everlasting’을 사용한다.

흠정역: 그러므로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들을 찍어 네게서 내버리라. 네가 절뚝거리거나 불구가 되어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존하는 불(everlasting fire) 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네게 더 나으니라.

이렇게 ‘영존하다’(everlasting)를 사용하면 여호와와 증인들이나 안식교인들의 ‘영혼 멸절설’ 같은 이단 교리가 발붙일 수 없다. 영원토록 계속해서 불 속에서 고통을 받는데 어떻게 영혼이 멸절될 수 있는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질적으로 우수한 ‘영원한 생명’(eternal life)이기도 하며 동시에 양적으로도 영원토록 계속되는 ‘영존하는 생명’(everlasting life)이기도 한다. 즉 질적으로 양적으로 영원무궁한 생명이 다.

흠정역: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eternal life)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everlasting life)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 3:15-16).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밀하게 자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다. 킹제임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의 의도를 바르게 전달하고 있으며 그래서 믿는 자들의 최종 권위가 된다.

16. 믿음인가, 행위인가?

● 구원받기가 어려운가?

만일 사람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다면 기독교나 다른 종교의 차이가 없을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가르친다(롬3:23). 그런데 개역성경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사본에 근거하였기에 자주 행위로 어렵게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친다.

개역: 애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막10:24)

그러나 바른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흠정역: 애들아, 재물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심히 어렵도다!

● 과정 신학

믿는 이들의 구원은 한순간에 일어나는가? 평생의 과정인가?

개역: 갓난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벧전2:2)

흠정역: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새로 태어난 신자들이 먹어야 할 순수한 젖이 무엇인가? 흠정역 성경은 그 젖이 바로 성경 말씀임을 보여 준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구원으로 자라나야 한다고 말함으로 천주교회의 평생 행위 구원론을 가르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종교 체제 하에서는 사람이 평생토록 죄의 종이 되어 사제의 말에 순종해야 구원을 얻는다.

● 믿음인가, 행위인가?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의 일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개역성경은 그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못 들어갔다고 기록한다.

개역: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히4:6)

개역성경은 겉으로 드러난 그들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근본 문제에 초점을 맞추신다.

흠정역: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이 반드시 그 안식에 들어가야 하는 일이 남아 있는 줄을 알거니와 먼저 복음 선포를 받은 그들은 믿지 아니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은 이것을 믿음의 문제로 보시지 행위의 문제로 보시지 않는다. 바른 믿음이 있으면 바른 행위가 나온다. 이런 예는 로마서 11장 32절, 로마서 15장 31절, 히브리서 3장 18절, 히브리서 4장 11절 등에서 반복되고 있다.

개역성경의 행위 신학은 다음과 같은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잘 드러난다.

개역: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요3:36)

흠정역: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며...

이렇게 행위를 강조하다 보니 개역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축소시킬 수밖에 없다.

흠정역: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롬11:6).

개역: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삭제하였는가?

하나님의 선물 즉 구원은 거저 받는 것인가, 값을 치르고 받는 것인가?

흠정역: 그러나 거저 주시는 이 선물(the free gift)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롬5:15)

개역: 그러나 이 은사(the gift)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거저' 주신다고 기록하지만 로마 카톨릭 교회의 사본에 근거한 개역성경은 NIV 등과 마찬가지로 '거저'(free)라는 가장 중요한 단어를 삭제했다(롬5:16; 5:18에서도 마찬가지임). 이 단어가 이 구절의 핵심이 아닌가?

개역성경은 조상들의 은덕으로 자손들이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

개역: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출20:6 참조)

흠정역: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수천 세대라는 것은 원문에도 없고 알렉산드리아 서기관들이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첨가한 것이다. 앞뒤 문맥과 성경의 구원 및 은혜관이 무엇을 지지하는지 살펴보기 바란다.

● 믿음의 대상

믿기는 믿되 헛것이나 이방신을 믿으면 허사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이런 것을 약화시킨다.

개역: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요6:47)

흠정역: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 내 몸을 쳐야 하는가?

고대로부터 행위로 구원받고자 하는 자들은 자기 몸을 혹사시키거나 참기 어려운 고행을 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이집트의 이시스, 로마의 키벨레 그리고 에베소의 다이아나같이 피에 굶주린 여신들을 위해 사람들이 피의 제전을 열었음을 알고 있다. 그래서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천주교회의 수도사들 가운데는 자기 몸을 극도로 상하게 한 사람들이 많았고 루터 같은 경우도 이런 일을 하려고 애쓰다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영적으로 높은 상태에 다다르기 위해 고행이 필요하다는 이교도들의 교리를 지지한다.

개역: 내가 내 몸을 쳐(I beat my body)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고전9:27)

한국 성도들에게 보상 심리를 허용하면서 많은 은혜를 끼친 이 구절은 실제로 나를 때리라는 것이 아니다. 이 구절에는 ‘치다’(beat)라는 뜻을 갖는 그리스어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후포피아조’(hupopiazo)이며 실제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흠정역: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키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에서 바울 사도는 육체의 정욕들이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였으며 이것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자기를 치는 행위’ 즉 자해 행위는 특히 왕상18:28에서 잘 드러나는데 거기서 바알의 대언자들은 자기들의 방식에 따라 자기 몸을 자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것은 결코 성경의 개념이 아니다.

흠정역: 참으로 이런 것들은 의지대로 경배하고 자기를 낮추며 몸을 경시하는 데는 지혜가 있는 것같이 보이니 육체를 만족시키는 데는 아무 가치가 없느니라(골2:23).

● 거세해야 하는가?

그런데 자기 학대로 만족하지 못한 자들이 이제는 신체의 일부를 잘라 내는 거세(去勢)를 행하려 하며 개역성경은 이것을 지지하고 있다.

개역: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갈5:12)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지방의 신자들을 유혹하던 거짓 대언자들이 그곳의 신자들과 교제하는 것에서 끊어지기를 원했으며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흠정역: 나는 너희를 어지럽히는 자들이 아예 잘려 나가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에서 분명히 바울 사도는 그곳 성도들이 아니라 ‘그들을 어지럽히는 자들’이 잘려 나가기를 즉 교제에서 단절되기를 원하였다. 누군가가 자기 몸을 자해하기를 원하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도리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뉴에이지와 고대 신비주의 관습이다.

개역성경이 “스스로 베어 버리기를 원하노라.”고 번역한 부분을 NIV와 NASB 등은 ‘emasculate’(거세하다)와 ‘mutilate’(신체를 절단하다)라고 번역하여 그 의미가 거세임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다. 결국 동일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사본에서 나온 현대 역본들은 고행을 통한 구원이라는 자기들의 교리를 지지하기 위해 이런 두려운 일을 시도하였다. 이런 거세 풍습은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의 기독교와 무관하며 신비 종교들에서만 발견되는 특이하고도 무서운 관습이다.

그런데 이러한 신비적인 가르침들로 인해 현대 역본들의 기반이 된 ‘부패된 그리스어 신약 사본’을 편집한 장본인인 오리겐은 스스로 자기의 몸을 잘라 내는 거세를 행했다.

● 열심을 내면 되는가?

우리의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실까? 개역성경은 그렇다고 한다.

개역: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요4:24)

우리말 큰 사전은 ‘신령’이란 ‘신기하고 영묘한 것’이고 ‘진정’이란 ‘거짓 없이 참되게’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신기하게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는 말인가? 많은 교인들이 이런 구절에 은혜를 받고 열성으로 지성을 내어 예배를 드린다.

기독교는 “지성이면 감천이다.”를 모토로 하는 샤머니즘이 아니다. 인격 대 인격이 만나는 관계가 복음의 핵심이요 전부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사람이 영으로 그리고 진리로 하나님께 경배해야 한다.

홍정역: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너무나도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간의 열심으로 착각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17. 신약인가, 구약인가?

우리 주 예수님께서서는 구약(Old testament) 시대에 율법 아래에서 나서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신약(New testament) 시대를 여셨다.

홍정역: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롬 10:4).

홍정역: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나니(갈4:4)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태어난 순간부터 신약시대라고 생각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신약시대는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이다. 신약이란 ‘새로운 언약’을 이야기하며 이때의 언약이란 영어로 ‘covenant’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영어 성경책을 보면 한결같이 신약, 구약 할 때의 ‘약’이 ‘covenant’가 아니라 ‘testament’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testament’를 우리에게 전해 준 성경이 바로 킹제임스 성경이다.

‘Testament’라는 단어는 신약성경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신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처음 나오며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 14장 24절, 누가복음 22장 20절 등에도 나온다.

홍정역: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마26:28).

KJB: For this is my blood of the new testament, which is shed for many for the remission of sins.

여기서 ‘새 상속 언약’은 ‘New testament’이며 이는 곧 주님께서 ‘옛 상속 언약’ 즉 구약(Old testament)을 폐하고 신약을 여심을 뜻한다.

‘Testament’를 그냥 ‘언약’으로 번역하면 안 된다. ‘Testament’와 ‘Covenant’에 해당하는 원어는 ‘디아테케’(diatheke, 스트롱 번호 1242)인데 ‘Covenant’는 주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는 특별 약속을 뜻하며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총 295회 나온다. 반면에 ‘Testament’는 ‘증언’(testimony)이나 ‘증언하다’(testify)와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로 일차적 의미는 ‘증거로 주는 언약’이란 뜻이며 신약성경에만 총 14차례 기록된 신약성경의 독특한 단어이다. 성경은 이런 단어의 뜻을 알려 주기 위하여 내장(內藏) 사전을 제공한다. 히브리어 9장에 ‘Testament’의 뜻이 정의되어 있다.

홍정역: ¹⁵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New testament)의 중재자이시니 이것은 첫 상속 언약 아래 있던 범죄들을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Promise of eternal inheritance)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¹⁶상속 언약

(Testament)이 있는 곳에는 또한 반드시 상속 언약하는 자(Testator)의 죽음이 필히 있어야 하나니 ¹⁷상속 언약은 사람이 죽은 뒤에야 효력이 있고 상속 언약하는 자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아무 힘이 없느니라.

먼저 15절에서 히브리서의 저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구약시대 성도들의 죄가 구속되고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영원한 상속 유업의 약속을 받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 이것은 곧 십자가 사건 이전까지는 구약 성도들의 죄가 잠시 덮여졌으며 완전히 해결되지 아니하였음을 보여 준다.

홍정역: 내가 공물을 수천에게 베풀며 불법과 범죄와 죄를 용서하되 그것이 결코 죄 있는 자를 깨끗하게 하지는 아니하리라(출34:7).

완전한 희생 헌물이신 예수님의 완전하신 단번 속죄로 말미암아 신구약 성도들의 죄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었다. 그러면서 그분께서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상속 유업의 언약을 주시므로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가 되신다. 여기서 'Testament'를 '상속 언약'으로 번역해야 하는 근거를 찾을 수 있으며 16-17절이 이것을 확증해 준다. 16-17절에서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상속 언약하는 자'의 죽음이 있어야 '상속 언약'이 유효함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 즉 새 상속 언약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기 전까지는 새 상속 언약이 유효하지 않다. '상속 언약'(Testament)과 '상속 언약 하는 자'(Testator)는 바로 이런 점을 설명해 주는 단어이다.

개역성경도 이 부분만큼은 그냥 언약으로 할 수 없어 고육지책으로 '유언'이라 번역했다.

개역: ¹⁵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¹⁶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¹⁷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즉...

이렇게 번역을 하면 15절의 새 언약과 16, 17절의 '유언'이 도저히 같은 말임을 알 길이 없다. 왜 갑자기 여기서 유언이 나오는지 알 사람이 있겠는가? 개역성경 번역자들이 궁여지책으로 '유언'이라 번역했지만 이런 식으로는 말씀의 이해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그들은 15절의 'inheritance' 즉 '상속 유업'을 '기업'이라 번역하여 이런 의미를 더더욱 이해할 수 없게 만들었다.

개역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나 영국개역성경 혹은 미국표준역을 따라 어쩔 수없이 'Testament'를 '언약'이 아닌 '유언'으로 번역하려 한 시도는 좋았지만 'Testament'는 엄밀한 의미에서 '유언'이 아니다. 우리말 큰 사전으로 가서 '유언'을 찾아보면 '죽음에 이르러 남기는 말'로 되어 있다. 그러면 과연 예수님이 "이제 내가 죽으면서 이 말을 남긴다."고 하셨단 말인가? '유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말이다. 또한 언약하고도 상관이 없는 말이다. 이제 예수님께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주신 말씀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홍정역: 저녁 식사 뒤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그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라(눅22:20).

우리 주님은 죽음을 통해 '새 상속 언약시대' 즉 신약시대를 여셨으나 영원히 살아 계신 분이시다. 그래서 아직 피를 흘리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피가 이미 흘려졌다고 말씀하신다.

'너희를 위하여 흘린 피 곧 그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the new testament in my blood, which is shed for you)...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양 예수님께서는(계13:8) 자신의 피로 말미암은 - 직역하면 자신의 피 속에 담겨 있는 - 새 상속 언약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 결코 내가 죽을 때가 되어 몇 마디 유언의 말을 하고 죽겠다고 하지 않으셨다. 표준 국어 대사전은 유언의 1차적 의미가 '죽음을 맞이하여 남기는 말'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말 유언에는 1차적으로 '상속 언약'이란 뜻이 들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유언'이란 말을 적용하는 것은 사실 신성모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영어로도 '유언'은 'Will'이지 'Testament'가 아니다. 물론 'Testament'에도 'Will'의 뜻이 있으나 그것은 3차, 4차 의미이며 성경적인 용례로는 결코 'Will'을 의미하지 않는다.

개역성경은 이렇게 'Testament'의 심오한 뜻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히브리서에서는 이것을 '유언'으로 번역하여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 유언은 피조물인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말이다. 그리고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주님께서 만찬을 제정하시는 말씀들 속에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사본을 따라 가장 중요한 단어인 '새' 즉 'New'를 삭제했다. 다시 말해 우리 주님이 새 상속 언약을 주지 아니하시고 그냥 언약을 주신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개역: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마 26:28).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단번 속죄를 멸시하는 번역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 개역성경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사본에서 번역되었기 때문이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아직도 제사장 체제 하에서 구약이 준수되고 있다. 즉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제사장이라는 매개체가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그런 체제가 유지되려면 성경을 변개하여 '새 상속 언약' 시대가 열렸음을 알지 못하게 하는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사주를 받은 부패한 서기관들이 이런 부분을 삭제하였다. 킹제임스 성경의 대본이 된 다수 사본에서는 이런 오류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에라스무스, 루터, 칼빈 등이 한결같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사본을 배제한 것이다. 다만 믿음이 없이 학식을 자랑하려는 현대 학자들만이 이런 구절에 '새'(New)라는 단어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8. 번역인가, 음역인가?

● 거인과 네피림

성경에는 음역과 번역의 문제가 있다. 창세기 6장에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에 관한 유명한 구절이 있다.

흠정역: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사람들의 딸들이 그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더라. 바로 그들이 옛적의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4절).

킹제임스 성경은 노아의 홍수 이전에도 거인들(Giants)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있었다고 분명히 기록한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이(욥1:6; 2:1; 38:7) 사람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했을 때 성경은 그들이 거인들을 낳았다고 아주 단순하게 기록한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음역을 하여 어떻게든 이런 부분을 가리고 있다.

개역: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에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도대체 네피림이 무엇인가? 사람마다 의견이 다 다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아주 명쾌하게 풀어 주신다.

개역: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민13:33)

개역: (엣제에 엠 사람이 거기 거하여 강하고 많고 아낙 족속과 같이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칭하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칭하였으며(신2:10-11)

개역성경은 너무도 쉬운 문제를 네피림이니 르바임이니 하는 말을 사용하여 독자들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게 만든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들이 다 거인이라는 점이다. 킹제임스 성경은 아주 간결하게 이것을 번역하여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게 했다.

흠정역: 거기서 우리가 거인들에게서 나온 아낙의 아들들 곧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니라(민13:33).

흠정역: 과거에 엠 족속이 거기 거하였더니 그 백성은 크고 많으며 아낙 족속처럼 키가 크므로 사람들이 그들 또한 아낙 족속처럼 거인으로 여겼으나...(신2:10-11)

이들이 바로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자들 곧 홍수 이후에도 이 땅에 거하던 거인들이다. 고대 문명과 화석 기록을 보면 거인들이 고대에 살았음을 누구나 알 수 있다.

● 갈보리와 해골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대부분의 성도들이 주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신 갈보리 언덕을 알고 있다. ‘갈보리’라는 말은 유일하게 킹제임스 성경의 누가복음 23장 33절에만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개역성경은 이 중요한 단어를 ‘해골’로 바꾸어 버렸다.

흠정역: 그들이 갈보리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개역: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19. 기독교인가, 천주교인가?

● 그리스도께서는 니콜라당을 미워하신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신약시대에는 더 이상 성직자 계급이 없다는 것이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priest)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했으나 주 예수님께서 한 번 완전한 희생을 드린 이후에는 더 이상 중간 중재자가 필요 없고 신자가 모두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

흠정역: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로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벧전2:9).

그런데 개역성경은 전 성도 제사장 체제를 가리려 하고 있다.

개역: 네게도 니콜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계2:15)

흠정역: 네게도 니콜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거니와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그리스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여기 나오는 니콜라당은 ‘성도들 위에 군림하려는 자들’로서 구약시대의 제사장(priest)처럼 성도들을 통치하려는 자들이다. 신약 교회가 생기자마자 이런 무리가 생겼으며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런 자들의 교리를 미워한다고 말씀하

신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 교회는 아직도 구약시대의 종교로 남아 자기들의 성직자를 ‘priest’ 즉 제사장이라 부르고 있고 성직자 계급주의를 철저히 유지하고 있다. 사실 이런 체제를 유지하려면 결국 이처럼 중요한 구절을 삭제해야만 한다.

● 신부인가, 사제인가?

성도들은 결코 로마 카톨릭 교회의 사제를 신부(神父)라 부르면 안 된다. 이는 곧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으로 성경이 금하는 것이다(삿17:10; 마23:9). 그런데 목사(pastor)들이 로마 카톨릭 교회 사제처럼 행세하려고 로마 칼라 의복을 입고 긴 옷 입기를 좋아하며 심지어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세습을 시도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가! 또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미사라는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모이는 장소를 ‘성당’ 즉 ‘거룩한 제물을 둔 장소’라고 한다. 요즘에는 기독교인들마저 이런 것을 배워서 예배당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생기고 있다. 성당이나 성전에는 반드시 제사장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목사가 제사장이란 말인가?

흠정역: 이제 이것들(죄와 불법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서는 다시는 죄로 인한 헌물이 없느니라 (히10:18).

이처럼 예수님께서 단 한 번 영원한 희생 헌물을 드리시고 단번에 속죄를 이루셨으므로 더 이상 제사장과 성전과 성당이 필요 없다. 이렇게 귀중한 예수님의 단번 속죄를 무시하며 그분을 짓밟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그것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신다.

● 고해성사

로마 카톨릭 교회 사제의 권위는 고해성사에 달려 있는데 개역성경은 개악된 본문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이나 아닌 사람들에게 죄를 고백하라는 로마 카톨릭 교회 교리를 또 지지해주고 있다.

개역: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약5:16)

흠정역: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로마서 15장 16절에는 아주 묘한 구절이 있다.

개역: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군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흠정역: 이것은 내가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제공함으로써 이방인들을 바치는 일이 성령님을 통해 거룩히 구별되어...

과연 사도 바울이 제사장이 되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려 했을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기록한 히브리서에서 그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고 천명했다. 그런데 어떻게 개역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개역성경의 근간이 된 사본들과 역본들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제사장 체제를 주장하기 때문이다. 믿는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영적 의미의 제사장을 뜻하며 결코 개역성경이 말하는 것과 같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일을 하는 제사장을 뜻하지 않는다. 성경에는 교리적으로 오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역성경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영향으로 오류를 만들고 있다.

● 여자 목사와 집사

초대 교회부터 성경에는 이름 없이 주님을 섬긴 많은 여인들이 있다. 특별히 한국 교회에는

여자들의 활동이 아주 왕성하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주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너무 보기에 좋은 일이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창조의 질서가 지켜지길 원하신다.

홍정역: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조용히 배울지니라.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딤후2:11-12).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영감을 주사 교회의 두 직분인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셨다.

홍정역: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 받을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깨어 있으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행실이 바르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딤후3:2)

홍정역: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험뜯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을 잘 다스릴지니라(딤후3:11-12).

여기서 말하는 감독은 교단의 감독을 뜻하지 않는다. 성경에는 교단이 나오지 않으며 성경의 교회는 모두 독립/자치 교회이다. 여기서 감독으로 번역된 단어는 영어로 'bishop'인데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것을 주교로 부르고 있다. 현대 교단들의 감독 체제는 바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주교 개념에서 나온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감독은 한 지역 교회의 감독을 말한다. 지금 식으로 표현하면 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것이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의 직분은 목사와 집사뿐이 없으며 이들은 반드시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 즉 여자는 이런 직분을 맡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그것이 창조 질서를 위배하기 때문이다. 개역성경도 디모데전서 3장 2절과 12절은 잘 번역했으나 11절에서 큰 실수를 범하고 있다.

개역: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딤후3:11)

개역성경은 이곳을 '여자들도'라고 번역함으로써 마치 여자들도 집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번역했다. 그러나 심지어 NIV 같은 현대 번역본들도 킹제임스 성경과 마찬가지로 이곳을 '그들의 아내들도' 즉 '집사들의 아내들도'라고 정확히 번역하고 있다. 아마도 여자 집사를 인정하기 위해 이런 번역을 한 것으로 사료된다.

홍정역: 이와 같이 그들의 아내들도 반드시 신중하며 험뜯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일에 신실한 자라야 할지니라.

●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인가?

마태복음 1장에는 우리 주 예수님이 마리아의 맏아들임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홍정역: [요셉이] 그녀[마리아]가 그녀의 맏아들을 낳기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다가 낳으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마1: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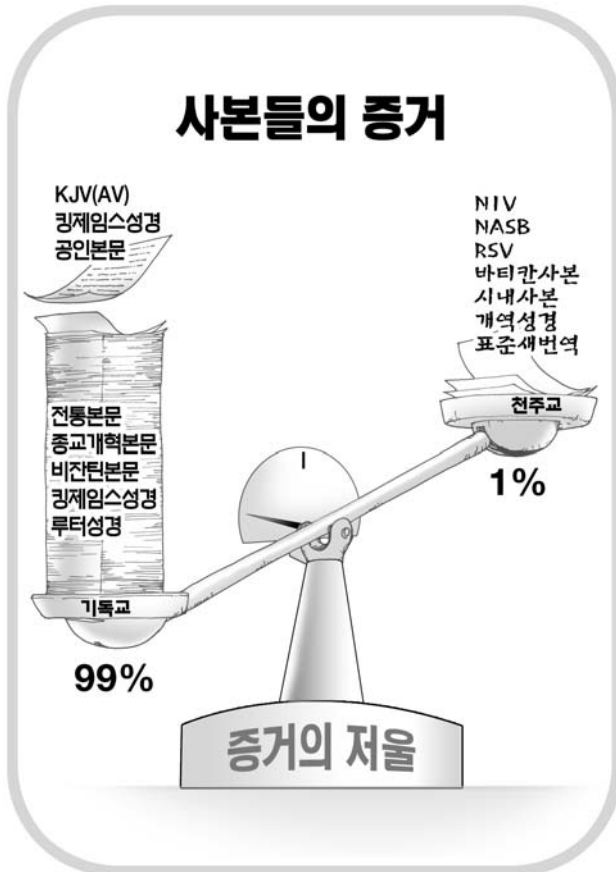
성령님께서서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숭배하여 평생 동정녀라 부를 자들이 생길 것을 미리 아시고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그녀의 '맏아들'(firstborn son)이라고 분명히 기록해 놓았다. 잘 알다시피 마리아는 예수님 외에도 여러 명의 자녀들을 낳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다 그분의 사촌이라고 주장하며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은 이후에 평생토록 동정녀로 지냈다고 주장한다. 이 같은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 그들은 서기관들을 동원하여 '맏아들'의 '맏'을 삭제해 버렸다.

개역: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으매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제 6장

킹제임스 성경의 신학적 우수성

한마디로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람의 구원, 교회, 천국, 천사, 지옥, 마귀, 성경,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등에 대한 절대 무오한 진리 - 이것을 정리하여 체계화하면 신학이 됨 - 를 담고 있는 책으로 오직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길을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신자들의 믿음과 실행의 모든 것을 재는 척도가 바로 성경이다. 따라서 이 척도가 곧은가 곧지 않은가에 따라 믿는 바가 달라지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단들의 경우처럼 잘못 믿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이 부분에서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KJV)의 신학이 얼마나 우수한가를 보여 주려 하며, 특히 본문을 잘못 선택함으로써 신학이 달라지고 그로 인해 많은 혼동이 발생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려 한다. 누구든지 마음을 열고 킹제임스 성경과 현대 역본들을 살펴보면 그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을 쉽게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비교를 위해 영어 본문도 함께 기록했다.



〈6.1〉 하나님론

KJV(요일5:7)	NIV 등 현대 역본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과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증언하는 이가 세 분이시니라.
For there are three that bear record in heaven, the Father, the Word, and the Holy Ghost : and these three are one.	For there are three that testify:
성경에서 이처럼 명백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여 주는 구절은 없지만 오직 KJV만 이 구절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여호와파의 증인들이 KJV를 가장 무서워하는 이유도 바로 이 구절 때문이다.	

〈6.2〉 그리스도론

KJV(갈3:17)	NIV 등 현대 역본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을 사백삼십 년 뒤에 생긴 율법이 취소하지 못하며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을 사백삼십 년 후에 생긴 율법이 취소하지 못하며
...the covenant, that was confirmed before of God in Christ, the law, which was four hundred and thirty years...	...The law, introduced 430 years later, does not set aside the covenant previously established by God...
KJV는 그리스도께서 구약시대에도 계셨음을 보여 주며 또한 구약시대의 언약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 주나 NIV 등은 이런 사실을 숨긴다.	

KJV(요3:13)	NIV 등 현대 역본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And no man hath ascended up to heaven, but he that came down from heaven, even the Son of man which is in heaven.	No one has ever gone into heaven except the one who came from heaven- the Son of Man.
KJV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느 곳이나 계신 분임을 보여 주나 NIV의 편집자들은 이런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밑줄 친 부분을 제거하고 있다.	

〈6.2〉 그리스도론 계속

KJV(요일4:3)	NIV 등 현대 역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니라.
And every spirit that confesseth not that Jesus Christ is come in the flesh is not of God: and this is that spirit of antichrist	but every spirit that does not acknowledge Jesus is not from God. This is the spirit of the antichrist
누가 이단인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자들이 아닌가? 그런데 NIV는 육체 안에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KJV(눅4:8)	NIV 등 현대 역본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기록된바, 너는 주 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되, 기록된바, 주 네 하나님께 경배하고...
And Jesus answered and said unto him, Get thee behind me, Satan: for it is written, Thou shalt worship the Lord thy God, and him only shalt thou serve.	Jesus answered, "It is written: 'Worship the Lord your God and serve him only.'
예수님은 사탄에게 명령하사 뒤로 물러가게 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나 NIV 등은 이 같은 예수님의 권세를 축소시키려 하고 있다.	

KJV(요1:18)	NASB 등 현대 역본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어느 때고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한 하나님께서 그분을 설명하셨느니라.
No man hath seen God at any time: the only begotten Son, which is in the bosom of the Father, he hath declared him.	No man has seen God at any time: the only begotten God, who is in the bosom of the Father, He has explained Him.
이것은 여호와와의 증인들이 가장 즐겨 인용하는 구절이다. NASB 등에 따르면 예수님은 독생하신 하나님 즉 '유일하게 태어난 하나님'이 된다. 따라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한 '열등한 신'이 되고 만다. 그런데 KJV는 예수님이 독생자 즉 '유일하게 태어난 아들'이라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6.2〉 그리스도론 계속

KJV(눅2:33)	NIV 등 현대 역본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는 그가 아이에 관하여 말한 그것들로 인해 놀라워하더라.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그가 아이에 관하여 말한 그것들로 인해 놀라워하더라.
And Joseph and his mother marvelled at those things which were spoken of him.	The child's father and mother marvelled at what was said about him.
요셉은 결코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니다. 만일 인간의 피를 받고 태어난 죄인이 되고 만다.	그가 예수님의 아버지라면 예수님은 타락한

〈6.3〉 교회론

KJV(계2:15)	NIV 등 현대 역본
이와 같이 네게도 니콜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으니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콜라당의 교리를 붙잡는 자들이 있으니
So hast thou also them that hold the doctrine of the Nicolaitans, which thing I hate.	Likewise you also have those who hold to the teaching of the Nicolaitans.
니콜라당은 '성도들 위에 군림하려는 자들'로서 회중에게 권한을 주지 않고 구약의 제사장처럼 일반 성도들을 통치하려는 자들이다. 신약 교회가 생기자마자 이런 무리가 생겼으며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이 이런 자들의 교리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신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구절을 삭제함으로써 계급주의 및 교권주의 사상이 교회 내로 들어오게 되었다.	

〈6.4〉 성경론

KJV(삼하21:19)	NIV 등 현대 역본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이 있더니 거기서 베들레헬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동생을 죽였는데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이 있더니 거기서 베들레헬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골리앗을 죽였으니
And there was again a battle in Gob with the Philistines, where Elhanan the son of Ja'are-oregim, a Bethlehemite, slew the brother of Goliath the Gittite	In another battle with the Philistines at Gob, Elhanan son of Jaare-Oregim the Bethlehemite killed Goliath the Gittite
성경은 절대 무오한 책이다. 그런데 NIV 등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이 아니고 엘하난이 골리앗을 죽인 것으로 기록하여 하나님 말씀의 무오성에 먹칠을 하고 있다.	

〈6.4〉 성경론 계속

KJV(막1:2-3)	NIV 등 현대 역본
대언자들의 글에 기록된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분의 행로를 곧게 하라,...	대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된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As it is written in the prophets, Behold, I send my messenger before thy face, which shall prepare thy way before thee. The voice of one crying in the wilderness, Prepare ye the way of the Lord, make his paths straight.	It is written in Isaiah the prophet: "I will send my messenger ahead of you, who will prepare your way" "a voice of one calling in the desert, 'Prepare the way for the Lord, make straight paths for him.'"
이 구절은 말3:1과 사40:3에 있는 말씀을 마가가 인용한 것이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얼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예비하리라.”는 말씀은 대언자 이사야의 글이 아니며 이를 대언자 이사야의 글이라고 하면 성경에 오류가 생기게 된다.	

KJV(막15:28)	NIV 등 현대 역본
이로써, 그가 범죄자들과 함께 계수되니라,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더라.	삭 제
And the scripture was fulfilled, which saith, And he was numbered with the transgressors.	삭 제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것이 이미 이사야서에 예언되었으며 그 예언이 구체적으로 성취되었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NIV 등은 이런 예언의 성취 구절을 삭제함으로써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있다.	

KJV(벧전2:2)	NIV 등 현대 역본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새로 태어난 아기들처럼 순수한 젖을 사모할 지니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u>구원에서</u> 자라게 하려 함이라.
As newborn babes, desire the sincere milk of the word, that ye may grow thereby:	Like newborn babies, crave pure spiritual milk, so that by it you may grow up in your salvation
새로 태어난 신자들이 먹어야 할 순수한 젖이 무엇인가? KJV는 그 젖이 바로 성경 말씀을 보여 주지만 NIV는 이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구원에서 자라야 한다고 말함으로 구원이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평생의 과정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6.5〉 구원론

KJV(요3:15)	NASB 등 현대 역본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는 믿는 자마다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That whosoever believeth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so that whoever believes will in Him have eternal life.
NASB의 편집자들은 아무 것이나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KJV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친다.	

KJV(계21:24)	NIV 등 현대 역본
구원받은 자들의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민족들이 그 도시의 빛 가운데서 다니겠고 땅의 왕들이 자기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오리라.
And the nations of them which are saved shall walk in the light of it: and the kings of the earth do bring their glory and honour into it.	The nations will walk by its light, and the kings of the earth will bring their splendor into it.
새 예루살렘 성에서 걷는 민족들은 구원받은 민족들뿐이다. 그런데 NIV 등은 민족들이 그 안에서 걷는다고 기록함으로써 누구나 구원받는 것으로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다.	

〈6.6〉 속죄론

KJV(골1:14)	NIV 등 현대 역본
그분 안에서 우리가 <u>그분의</u>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In whom we have redemption through his blood, even the forgiveness of sins:	in whom we have redemption, the forgiveness of sins.
KJV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우리가 죄들의 용서를 받았음을 보여 주나 NIV는 이런 사실을 숨긴다. 현대인의 성경, 리빙바이블 등의 현대 역본들은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피를 제거하여 ‘피 없는 성경’이 되고 말았다.	

〈6.6〉 속죄론 계속

KJV(약5:16)	NIV 등 현대 역본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너희 죄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 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Confess your faults one to another, and pray one for another	Therefore confess your sins to each other and pray for each other
KJV는 성도들에게 서로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하라고 가르친다. 하지만 NIV는 형제들에게 죄를 고백하라고 가르친다. 죄는 하나님께 고백해야 한다. 바로 이런 구절들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고해성사를 지지하고 있다.	

〈6.7〉 종말론

KJV(마25:13)	NIV 등 현대 역본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u>아들이 오는</u> 그 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가 그 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Watch therefore, for ye know neither the day nor the hour wherein the Son of man cometh.	Therefore keep watch, because you do not know the day or the hour.
그 날과 그 시각을 수식해 주는 구절이 없으면 어떻게 이 구절을 이해하겠는가? NIV는 결코 쉽게 번역되지 않았으며 단지 사람들을 혼동으로 이끌고 갈 뿐이다.	

〈6.8〉 심판론

KJV(골3:6)	NIV 등 현대 역본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u>자녀들에게</u> 임하느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For which things' sake the wrath of God cometh on the children of disobedience:	Because of these, the wrath of God is coming.
하나님의 진노는 아무에게나 임하지 않고 오직 불순종의 자녀들에게만 임한다. 또 한 번 KJV는 현대 역본보다 훨씬 정확하다.	

〈6.9〉 부활론

KJV(막12:23)	NIV 등 현대 역본
그 일곱 사람이 그 여자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일어날 때에는 그 여자가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일곱 사람이 그녀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는 그 여자가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In the resurrection therefore, when they shall rise, whose wife shall she be of them? for the seven had her to wife.	At the resurrection whose wife will she be, since the seven were married to her?
NIV는 부활 때에 죽었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애써 감추려 한다.	

〈6.10〉 지옥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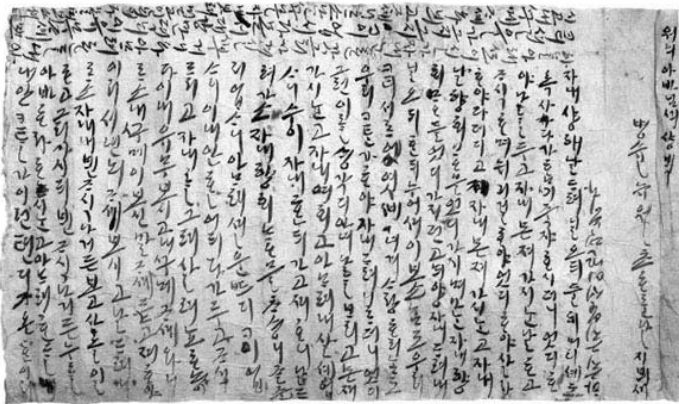
KJV(막9:44, 46)	NIV 등 현대 역본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삭제
Where their worm dieth not, and the fire is not quenched.	삭제
NIV의 편집자들은 지옥을 두려워하므로 지옥을 없애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은 이곳 외에도 신구약에서 지옥을 지칭하는 곳의 대부분을 의도적으로 삭제하거나 음부, 스올 등으로 대체시켜 버렸다.	

〈6.11〉 천국론

KJV(히10:34)	NIV 등 현대 역본
너희에게 하늘에 더 낫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고 너희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느니라.	너희가 결박 중에 있는 <u>그들을 불쌍히 여기고</u> 너희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긴 것은 더 좋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기 때문이다.
For ye had compassion of me in my bonds, and took joyfully the spoiling of your goods, knowing in yourselves that ye have in heaven a better and an enduring substance.	You sympathized with those in prison and joyfully accepted the confiscation of your property, because you knew that you yourselves had better and lasting possessions.
NIV는 성도들이 하늘에서 상급을 받는다는 사실을 지워 버리고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구한 소유를 얻는 것으로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께서 신약시대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늘의 복이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가난하게 어렵게 살았는가? 인간적인 기준에서 이것은 참으로 영구한 실체가 아니지만 그는 하늘에 영구한 실체가 있음을 알았다.	

제 7장

킹제임스 성경과 말씀 보존



〈조선 시대 ‘원이 엄마의 편지’〉

‘원이 엄마의 한글 편지’는 1998년 안동에 있는 고성 이씨(固城 李氏) 이응태(李應台 1556~1586)의 무덤에서 발견되었다. 420년 전에 한 여성이 한글로 기록한 ‘러브레터’이다. 임신 중에 있는 젊은 여인이 서른한 살 나이에 세상을 떠난 남편을 향한 애절한 마음을 종이 하나 가득 표현했다. 16세기 조선 여인의 가슴 뭉클한 이 사연은 ‘내셔널지오그래픽’에도 소개된 적도 있다고 한다.⁶⁰⁾

이 한글 편지에는 420여 년 전 이 땅에 살았던 한 여인의 애절한 감정이 종이 가득 자유롭게 표현되어 있다. 그렇지만 21세기 한국인이 이 한글 편지 원문을 살펴보려 하면 글자를 읽고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 대충은 읽고 대충은 이해하겠지만 전문가의 도움이 없다면 정확하게 읽고 이해하는 것은 어렵다.

기껏해야 400년의 시차가 있을 뿐인데 원이 엄마에게는 일상의 글이고 말이었을 것이 우리에게서는 사학과나 국문과 교수나 다룰 수 있는 전문 지식의 영역으로 넘어간 것이다. 그래서 고문서를 해독하고 과거의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분야의 권위자가 따로 있어야 한다.

이것이 언어이고 글이며 말이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하면서 ‘원이 엄마의 편지’를 읽고 이해하는 것과 같은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그리스어로, 라틴어로 몰려가며 그 언어의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성경을 알 수 있는 최고 권위자로 인정한다.

성경을 믿음이 아닌 학문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모든 신자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 400년 전에 한글 편지를 썼던 원이 엄마는 죽었다. 그러나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60) 8장은 김재근 목사(전주소망침례교회)의 글이다.

편지를 썼던 여성이 죽었기 때문에 그녀가 사용했던 단어와 표현과 정확한 의미를 알려면 400년 전 중세 한글을 연구해야 한다. 그런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이 이 분야에서 권위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르다!

3,000년 전에 히브리로 말씀하시고 2,000년 전에 그리스어로 말씀하신 원저자가 여전히 살아 계신다. 따라서 3,000년 전 언어를 연구하거나 2,000년 전 언어를 공부해야만 그분이 사용한 단어와 표현과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인류에게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자신의 말씀들(단어들)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셔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 옛날 성경에 씌어 있는 것과 동일한 진리를 말씀하고 계신다. 진짜 성경을 읽고 싶다면 고대 언어를 공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읽을 수 있는 성경 중에서 어느 것이 진짜 성경인지를 분별하기만 하면 된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살아 있는 언어로 말씀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보존이다.

400년 전에는 규방의 여인도 자유롭게 생생하게 사용하던 단어와 말과 글이 지금은 전문가의 영역으로 넘어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신 적이 없다. 대개 생명 없는 종교들과 그 추종자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계시를 특정 언어 - 예를 들어 라틴어, 아랍어, 산스크리트어 등 - 에다 가뒀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실 때면 언제나 그들이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글과 말을 사용하셨다. 3,000년 전 히브리어는 이스라엘의 언어였다. 그들에게는 일상의 언어였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모세의 율법을 읽기만 해도 남녀노소 누구나 다 알아 들었다. 메모를 했다가 나중에 단어를 찾아가면서 따로 연구할 필요가 없었다. 오늘날 히브리어에만 권위를 두는 사람들 중에서 이 정도 실력을 갖춘 사람이 과연 있을까? 여자들도 아이들도 종들도 다 히브리어를 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글과 말로 성경을 주셨다.

2,000년 전 그리스어는 보통 사람의 언어였다. 하나님께서는 저갓거리에 있는 사람들도 알 수 있는 글과 말을 사용하셔서 성경을 주셨다. 언어의 천재들만 그리스어를 사용한 것이 아니다. 대학 교수들만 그리스어를 이해한 것이 아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체로 오셨을 때 누구라도 그분과 대화할 수 있었고 그분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다. 율법 박사들만 그분의 말을 알아들은 것이 아니다. 종교 지도자만 그분과 대화할 수 있던 것도 아니다. 어부도 세리도 장애인도 바리새인도 여인들도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아들과 대화했고 그분의 말을 알아들었다. 심지어 죄인과 창녀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고 이해했다. 평생을 '개'같이 살았던 한 강도는 삶의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음의 고통을 느끼는 그 순간에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그분과 대화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고 알리시는 방법은 단순하다.

그분의 말을 듣고 이해하며 그분과 대화하는 일에서 전문가가 존재하지도 않았고 존재할 수도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저갓거리의 여인이나 뒷골목의 율패들도 알 수 있는 글과 말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셨다.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서 믿고 순종해야 할 사람들에게 살아 있는 언어로만 말씀하셨다. 라틴어 속에 갇혀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평범한 사람들의 살아 있는 언어로 전달되기 시작한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이다.

고대 언어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만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나에게 주신 성경이 아니다. 물론 그 성경에 기록된 언어를 자신의 일상의 글과 말로 소유했던 사람은 존재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고대의 언어를 전공하고 중근동 언어를 연구해야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고 섬기기에는 너무 어렵고 복잡한 신이 아닌가? 수천 년 전에 어린아이들과 여인들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던 하나님이라면 지금도 우리 아이들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 옛날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를 사용하던 성도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쳤다면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 하나님은 결코 고대 언어 전문가들에게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다. 믿음 없이 학문의 대상으로만 성경을 관찰하게 되면 '고대 언어와 역본' 얘기로만 가득 차게 된다.

킹제임스 성경의 위대함은 그것이 역사 속에 살아 있는 언어로 남아 있다는 사실이다.

구약의 성도들이 히브리어를 들으면서 알았던 바로 그 말씀을, 신약의 성도들이 그리스어를 들으면서 알았던 바로 그 말씀을 오늘날 우리는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게 된다. 킹제임스 성경의 어휘를 재정의 하거나 재번역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왕과 신실한 일꾼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미 400년 전에 끝마치셨다. 킹제임스 성경은 지난 400년 동안 온갖 종류의 비난과 공격과 모함에 대항하며 성공적으로 스스로를 방어해 왔으며, 불신자들에 의해 소위 킹제임스 성경의 오류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 틀렸음을 입증해 왔다.

구약시대에 마지막 대언자 말라기 이후로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처럼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이 나온 이후로 지난 400년 동안 하나님은 킹제임스 성경 외에 다른 성경을 주시지 않았다. 최근에 나온 현대 역본들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천주교회의 산물이다.

비슷한 시기의 두 문서가 있다. 그중 하나인 '원이 엄마의 편지'는 읽기도 힘들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다른 하나인 킹제임스 성경은 여전히 전 세계 모든 책들 중 최고의 베스트셀러로 남아 있다. 이것이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말과 영원토록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차이다.

고대 언어를 해석하는 사전들 - 원어로 된 성경이라고 주장하지만 대개는 사전임 - 에서 찾아낸 단어 몇 개로 신비로운 계시를 깨달은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결코 이런 방식으로 일하시지 않는다.

하나님께서서는 여기저기서 찾아낸 단어 몇 개를 공부하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마음껏 쪽쪽 읽으라고 성경을 주셨다. 지금 나와 아이들이 함께 앉아서 쪽쪽 읽을 수 있는 성경, 그것이 바로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의 말씀들(단어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흠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단어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라(시12:6-7).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단어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마24:35).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보존 약속에 따라, 원어의 모든 단어와 문장의 구조를 영어와 일대일 대응이 되도록 형식적으로 정확하게 일치시키고, 영어라는 만국의 공통어로 마지막 시대에 온 인류를 위해 표준 잣대로 하나님이 주신 '보존된 성경'이다. 우리말로 번역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말 문법에 맞게 일대일 대응이 되도록 하면서 읽기 쉽게 정확히 번역한 성경이다. 하나님께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통해 우리 민족 누구나 복음을 듣고 궁극적으로 구원받도록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한다.

성경의 내용 번역은 물론 신학 용어 번역에 있어 만인이 수긍할 수 있는 기본 역본이 없다면 상당한 혼돈과 분파를 초래할 것이다. 그런데 다행히 킹제임스 역본이라는 걸출한 역본이 있어서 1611년 이래 수백 년 동안 성경 역본과 신학의 기본 용어를 제공하는, 만인이 수긍하고 공인하는 기본 자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는데 이 점에 있어서 킹제임스 역본의 공헌은 잊히지 아니할 것이다. 상술하면 킹제임스 역본은 영어는 물론 세계 각 나라 언어로 성경이 번역될 때 참고가 되는 제1의 통일자료로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영어의 세계적 발흥과 아울러 킹제임스 역본의 내적 우수성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이다(통스대역 한영성경, 기독교지혜사, 부록 1, pp.4, 1989).

제 8장

결 론

하나님의 은혜로 약 1세기 전에 우리나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되었다. 복음 선포를 위해 처음에는 외국인 선교사들이 한국인 조력자들의 도움을 받아 성경을 한국어로 번역했고 그 결과 개역성경이 출간되었다. 개역성경은 문장이 간결하고 우아하고 웅장하여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마치 영어권의 킹제임스 성경 같이 한국의 독보적인 성경으로 자리를 굳혔다. 개역성경은 보통 사람들의 감정과 우리네 특유의 문화를 잘 반영하였으며 간결한 문체와 운율 등으로 읽는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회심하고 구원의 감격을 맛보았으므로 이 성경이 우리 민족에게 남긴 자취는 영원토록 기억될 것이다.

최근 들어 영어 킹제임스 성경과 그것의 근간이 된 전통 히브리어 마소라 본문(구약)과 전통 그리스어 공인본문(신약)의 권위와 정확성 등이 국내에도 소개되면서 개역성경의 신학적/사본적 근거를 살펴볼 필요가 생겼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확립적인 신앙 패턴이 자리를 잡아 성경의 경우 오직 개역성경만 성경으로 알고 있었다. 사실 다른 대안이 없었으므로 성도들이 개역성경을 유일한 성경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21세기를 맞으면서 기존의 확립적 신앙생활 패턴에서 벗어나 속 중심의 양심이 지도하는 대로 성경이 가르쳐 주는 진리를 추구하면서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무리들이 생기고 있다. 따라서 개역성경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분석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이며 왜 문제가 되는가를 밝혀 다음 세대와 성경 신자들을 위한 초석을 마련할 필요가 생겼다. 그러던 차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출간되었으므로 이제는 구체적으로 성경을 비교하고 분석하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

본서에서는 먼저 개역성경을 지지하는 학자들과 대한성서공회의 글을 통해 개역성경의 근간이 된 사본들과 역본들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개역성경 번역자들이 정확성이 떨어지는 중국어 성경과 부패된 ‘비평 그리스어 본문’ 그리고 거기서 번역된 영어 성경들 - 특히 미국표준역(ASV) - 을 번역의 대본으로 채택하였음이 드러났다. 이런 대본들은 대부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철학을 따르는 사람들이 삭제하거나 변개한 것을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보존하고 파급시킨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소수 본문이다.

또한 구체적으로 개역성경이 성경의 기본 교리들을 제대로 전달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불행히도 개역성경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천사, 마귀, 사람, 짐승, 천국, 지옥, 구원 등의 기독교 핵심 교리에서 유대교/기독교의 기본 개념을 잘못 전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개역성경이 진정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라면 이런 교리들에서 오류가 없어야 하지만 개역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심각한 오류를 보이고 있다.

개역성경 오류들의 대부분은 번역의 대본으로 취한 그리스어 본문에 의해 파생된 것으로 드러났다. 개역성경 번역자들은 그 당시 시대적 흐름과 중국 성경의 영향을 받아 NIV, NASB 등의 근간이 된 웨스트코트와 호르트의 부패한 신약성경 본문을 채택했고 키텔의 부패한 구약성경 본문을 채택했다. 그러므로 바른 본문에서 나온 킹제임스 성경과 이런 현대 역본들을 비교해 볼 때 오류와 부패의 정도가 거의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외국인 선교사들을 도와 개역성경을 번역하는 데 기여한 한국인 조력자들이 중국이나 인도 등의 이교도 사상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하고 불교/힌두교 사상과 토속 샤머니즘에 근거한 용어들을 사용하였으므로 유대교/기독교에서 수용할 수 없는 개념이나 용어가 그

안에서 많이 발견된다. 따라서 개역성경⁶¹⁾으로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성경의 기본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려움을 발견하게 되었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딤후3:16-17).

‘영감’(inspiration)이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책에 있는 모든 단어에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경은 보통 책과는 다른 초자연적인 책이다. 이렇게 기적을 통해 성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흠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일곱 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이다(시 12:6-7).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마24:35).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계양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기록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계22:18-19).

이런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들을 바른 사본들과 거기서 번역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보존하셨으며 이 성경은 단 한 번의 변화도 없이 곳곳이 역사 속에서 그 위용을 떨치며 수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했다. 이제 한국에도 하나님의 바른 말씀인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번역되어 바른 구원, 바른 교리, 바른 교회를 배울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으므로 우리 성도들이 힘을 모아 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여 읽고 널리 보급하고 후대에 전달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저자는 이 책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개역성경이 한국 민족에게 미친 고귀한 영향을 인정하며 이 성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저자와 저자의 가족을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개역성경을 통해 구원의 복음을 알았고 영혼의 안식과 위로를 얻었다. 다만 이 책에서는 번역의 대본인 본문과 번역자들의 사상이 개역성경에 미친 영향을 제시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개역성경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해야 하므로 그것의 좋지 않은 면을 부각시켰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부디 양식 있고 선한 독자에게서 이 점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고자 하는 이들에게 달고 선한 말씀들로 은혜 가운데 진리의 빛을 주실 줄 확신하다.

61) 최근에 대한성서공회는 판권이 거의 효력을 다한 개역성경을 대체하기 위해 ‘개역 개정판’을 보급하고 있는데 개역 개정판 역시 동일한 본문에서 번역되었으므로 몇몇 단어와 표현이 다를 뿐 기본적인 내용과 골격은 개역성경과 전혀 다르지 않다. 따라서 본서에서 살펴본 개역성경의 오류들이 대부분 개역 개정판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이것은 또한 표준새번역과 공동번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번역 대본이 같으므로 이것들 역시 우리말 표현만 조금씩 다를 뿐 근본 내용은 동일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심



거룩한 사람들이 기록함

원래의 기록
(자필원본)

히브리어/그리스어 전통본문
모든 사본 중 가장 신실한 것들

번역본들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 성경

킹제임스 성경의 선구자들

1611년 킹제임스 성경
권위역본

בראשית קרא אלהים את
השמים ואת הארץ והאֵרץ
היתה תהו ובהו וחשך על
תהום ורוח אלהים כרחפת

히브리어 구약성경

BIBΛΟΣ γενέσεως
'Ιησου χριστοῦ, υἱοῦ
Δαβίδ, υἱοῦ Ἀβραάμ.
'Αβραάμ ἐγέννησεν

그리스어 신약성경



번역자들
오직 경건하고
신실한 사람들

번역기술
단어 대 단어의
“죽자 번역”
“동적 일치 배제”

종교개혁의 정신과
함께 중요 교리와 하
나님의 말씀의 권위
가 완전히 보존됨

위클리프 성경	1382
틴대일 성경	1525
커버데일 성경	1535
매튜 성경	1537
그레이트 성경	1539
제네바 성경	1560

추천 참고 도서

1.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한영대역, 스테디, 큰글자, 박사, 작은성경, 신약성경 등), 그리스도예수안에(www.KeepBible.com).
2.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S. 김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3. 「킹제임스 성경 답변서」(구 '킹제임스 성경에 관한 100가지 질문과 대답'), S. 김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킹제임스 성경 입문서」(구 '킹제임스 성경 길라잡이'), B. 버튼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5. 「킹제임스 성경 변호」, E. 힐즈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6. 「킹제임스 성경의 4중 우수성」, D. 웨이트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7. 「킹제임스 성경의 영광」, T. 홀랜드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8. 「신약분석성경」(한/헬/영 대역판), 송종섭 저, 신약원어연구소.
9. 「뉴바이블」, 송종섭 저, 신약원어연구소.
10. 「우리말 성경 연구」, 나채운 저, 기독교문사.
11. 「New Age Bible Versions」, Gail Riplinger(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2. 「Did the Catholic Church Give Us the Bible?」, David W. Daniels(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개역성경분석

2006년 12월 6일 초판 발행

2012년 12월 2일 2판 발행

번 역 : 그리스도 예수안에

발 행 인 : 정 동 수

발 행 소 : 그리스도 예수안에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569-7, 지하1층
등록번호 238

인 쇄 소 : 디앤피디자인프린팅

판권소유 : 정 동 수

문 의 : (032) 872-1184(Tel), (032) 664-1611
(032) 232-0129(FAX)

홈페이지 : <http://www.KeepBible.com>

E-mail : webmaster@KeepBible.com

ISBN 89-951587-8-6 03230

(*) 그리스도 예수안에 출판사는 생명의 말씀사 온라인 서점에서 '8대 성경 출판사'로 꼽히며,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말씀사의 온라인 베스트 성경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 그리스도 예수안에 출판사의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말씀보존학회에서 출간하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 내용이 매우 많이 다릅니다. www.KeepBible.com에서 우측 상단의 검색 창에서 '말씀보존학회'라고 치시면 자세한 차이를 보실 수 있습니다.

킹제임스 흠정역

2011
400주년
기념판

King James Bible 1611
한영대역 큰글자성경
스터디바이블 작은성경



(없음)이 없는 성경이 있습니다!

거대 로마 가톨릭 교회의 권력 하에서 중세 암흑시대를 살았던 민초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지만, 성경을 번역한 죄로 화형당한 선조들의 기도가 응답되어, 왕의 명령에 의해 탄생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 400년간 세상을 비춘 **진리의 빛 1611년 킹제임스 영어성경**.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 원어(히브리어 마소라 본문, 그리스어 공인본문)의 단어들을 그대로 일대일 대응시켜 번역한 성경입니다.
- 지난 400년 동안 한 번의 개정도 없이 순수하게 보존된 성경입니다.
- 영어권에서 모든 성경과 모든 신학서적의 표준이 된 성경입니다.
- 웨슬리·스필전·무디·로이드존스 등 권능의 사역자들이 사용한, 유일한 복음의 도구였습니다.
- 전세계 모든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읽히고 번역된 성경입니다.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충실하게 번역하여 '(없음)'으로 표시된 부분이 없습니다.
- 루시퍼·갈보리 등의 단어들이 살아 있으며 천국·지옥·삼위일체 등의 교리가 명확합니다.
- 우리말 어법에 충실하게 옮겨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우며 운율이 그대로 유지되어 감동이 살아 있습니다.
- 정확한 용어색인이 가능하도록 모든 중요 단어를 통일시켰습니다.
- 역사성과 현실성이 반영되어 원어와 영어의 감동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총판 : 생명의말씀사 www.lifebook.co.kr

본 출판사는 생명의말씀사 온라인서점에서 '8대 성경 출판사'로 꼽히며, 10년 전 처음 출간된 흠정역 성경은 이미 베스트 성경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도서  그리스도 예수안에 www.KeepBible.com NAVER 성경지킴이 검색

개역성경에서 삭제된 구절들

	성경 위치	개역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1	마17:21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2	마18:11	(없음)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3	마23:14	(없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겔치레로 길게 기도하나니 그런즉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4	막9:44	(없음)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5	막9:46	(없음)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6	막11:26	(없음)	그러나 너희가 만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니라, 하시니라.
7	막15:28	(없음)	이로써, 그가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도다, 하시는 성경 기록이 성취되었더라.
8	눅17:36	(없음)	두 남자가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하시니라.
9	눅23:17	(없음)	(이는 그 명절이 되면 그가 필연적으로 반드시 한 사람을 그들에게 놓아주어야 하기 때문이더라.)
10	행8:37	(없음)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라.
11	행15:34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라는 거기에 그대로 머무는 것을 기뻐하더라.
12	행28:29	(없음)	그가 이 말들을 하매 유대인들이 떠나서 자기들끼리 큰 논쟁을 벌이더라.
13	롬16:24	(없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14	요일 5:7~8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 개역개정은 이 구절을 빼고 6절을 둘로 나누어 6절 후반부를 7절에 넣었음.)

개역개정판, 표준새번역, 공동번역도 위의 구절들을 빼거나 또는 원래 없는 것처럼 괄호나 각주 처리함.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24:35)

총판 : 생명의말씀사 www.lifebook.co.kr

www.KeepBible.com NAVER 성경지킴이 검색

도서출판  그리스도 예수안에